

단원 설정 이유

이 단원은 문학을 즐기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를 비롯하여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알고,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단원이다.



2

문학의 구성 원리와 갈래

대단원 도입

- 단원 길잡이 106
- 대단원 교수·학습 계획 110

소단원 학습

(1) 문학의 구성 원리

- 소단원 도입 112
- 소단원 전개 116
 - ① 선운사에서(최영미)
 - ② 유자소전(이문구)
- 소단원 마무리 149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 소단원 도입 150
- 소단원 전개 154
 - ① 향수(정지용)
 - ② 장마(윤홍길)
 - ③ 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 ④ 봉산 탈춤(작자 미상)
- 소단원 마무리 217

대단원 마무리

- 생활 속 문학 활동 218

단원 학습 안내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며,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문학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단원 길잡이

단원 한눈에 보기

소단원

해당 성취 기준 | 관련 깊은 교과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
문학의
구성 원리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06]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 학습 내용: 문학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문화 향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국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 학습 내용: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공감하거나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수용 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문학 소통에 활발히 참여한다.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공국1-05-01]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문학 소통에 참여한다.

[10공국2-05-02]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재

① 선운사에서(최영미)

② 유자소전(이문구)

- 학습 요소: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핵심 질문과 답변

-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도 안내 이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질문으로, 단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며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한다. 평소 문학 작품을 읽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문학의 갈래나 맥락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이 단원의 학습을 준비한다.

예시 답안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및 문학의 네 가지 갈래에 대한 이해,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이 단원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 갈래의 특성, 다양한 맥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해 보자.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비평하는 활동을 해 보자.

활동 안내 이 단원의 주된 학습과 활동이 어떤 내용과 목표를 지니는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핵심 질문과 짝을 이루어 이 단원의 학습과 활동을 예비하게 한다.

생각해 볼 문제

활동 안내 각 소단원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 문학의 네 가지 갈래와 문학을 둘러싼 맥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게 한다.

-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어떤 관계일까?

예시 답안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을까?

예시 답안 작품을 읽으면서 내용에 공감하기도 하고,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나 작품 속 현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상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맥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시 답안 문학의 맥락에는 글을 쓰는 작가의 맥락과 글을 읽는 독자의 맥락, 문학 작품이 창작된 때의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 작품과 문학사의 관계인 문학사적 맥락이 있을 것이다.



단원 길잡이

단원 한눈에 보기

소단원

해당 성취 기준 | 관련 깊은 교과 역량
연관 성취 기준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02] 문학의 여러 갈래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에 대해 이
한다.

- 학습 내용: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특
성을 탐구하고, 문학의 주요 맥락인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
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문화 향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10공국1-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생활 속 문학 활동
(가상 지역 문학관
건립 프로젝트)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12] 주제적인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속적으로 문학을 즐
기는 태도를 지닌다.

- 학습 내용: 지역 문학관을 조사하여 인터넷으로 가상 문학관을 만들
며, 문학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제적 문학 활동을 실천한다.

[디지털·미디어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12문학01-09]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
하고 소통한다.

[12매의01-06] 개인적·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는 주제를 선정하여 설득력 있는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연계 교과 설정 이유

활동 안내 '생활 속 문학 활동'이 타 교과의 어떤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지 제시한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가상 지역 문학관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공통국어1', '매체 의사소통' 과목과 연계하여 학습하게 한다.

제재

- ① 향수(정지용)
 - ② 장마(윤홍길)
 - ③ 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 ④ 봉산 탈춤(작자 미상)
- 학습 요소: 각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대단원 교수·학습 계획



구분		학습할 내용	교수·학습 방법	차시	
대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표지 · 핵심 질문과 답변 · 단원 한눈에 보기 · 생각해 볼 문제 · 생활 속 문학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표지를 보며 떠오르는 생각 말하기 - 대단원 주제와 문제의식 인지하기 - 대단원 구성과 주요 학습 내용 살펴보기 - 대단원 학습 스스로 계획하기 - 타 과목과의 연계 활동 파악하기 	1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 열기 · 소단원 학습 목표 · 앞의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하기 - 소단원 학습 목표 인지하기 -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다양한 감상 방법 알아보기 		
(1) 문학의 구성 원리	제재 ① 선운사에서 (최영미)	제재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운사에서〉 낭송하기 ·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적 표현에 주목하여 낭송하기 - 현대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해하기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내용 정리하기 · 내용과 형식의 결합 관계 이해하기 · 〈먼 후일〉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비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인식, 화자의 상황과 바람 정리하기 - 반복되는 표현, 대비되는 표현의 효과 설명하기 -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고, 한 줄 평 쓰기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운사에서〉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역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② 유자소전 (이문구)	제재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소전〉 읽기 ·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傳) 형식에 주목하여 읽기 - 현대 소설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해하기 	3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중심인물 이해하기 · 소설의 형식상 특징 파악하기 · 소설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비평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인물의 상황과 성품 정리하기 - 전(傳) 형식의 특징과 이 형식을 활용한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 중심인물의 행동이나 성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문 쓰기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소전〉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역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4
소단원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운사에서〉와 〈유자소전〉을 학습한 내용에 따라 ○, ×문제를 풀고 색칠하기 - 이 단원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점검하고 학습 과정 돌아보기 		

구분	학습할 내용		교수 · 학습 방법	차시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소단원 도입	· 생각 열기	-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하기	5	
		· 소단원 학습 목표	- 소단원 학습 목표 인지하기		
		· 앞의 마당	- 문학의 네 가지 갈래와 문학의 다양한 맥락 알아보기		
	제재 ① 향수 (정지용)	제재 탐구	· 〈향수〉 낭송하기 · 서정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화자의 심정에 주목하여 낭송하기 - 현대시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6
		학습 활동	· 시의 내용 정리하기 · 서정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 작가 맥락 파악하기 · 시 한 편 창작하기	- 고향의 모습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 운율과 표현에 나타난 효과 파악하기 - 작가의 연보로 작가의 상황과 창작 의도 이해하기 - 과거 사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 창작하기	
		정리하기	· 〈향수〉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여여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② 장마 (윤홍길)	제재 탐구	· 〈장마〉 읽기 · 서사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두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하며 읽기 - 현대 소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8
		학습 활동	· 중심 사건 정리하기 · 서사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 작품의 의미 파악하기 · 비평문을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 두 할머니 입장에서 중심 사건 정리하기 - 갈등 원인과 해결, 시점과 시점 변화의 효과 파악하기 - 제목과 마지막 문장의 의미 이해하기 - 작품의 사회 · 문화적 맥락 이해하기	
		정리하기	· 〈장마〉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여여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③ 통곡할 만한 자리 (박지원)	제재 탐구	· 〈통곡할 만한 자리〉 읽기 · 교술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라오동 별판이 주는 느낌에 주목하여 읽기 - 한문 소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10
		학습 활동	· 교술 갈래의 특성 이해하기 · 작가의 표현 이유 파악하기 · 문학사적 맥락 파악하기	- 작가의 경험, 인물의 대화를 통해 작가의 주장 파악하기 - 작가가 ‘갓난아이의 울음’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 파악하기 -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나타난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 작품에서 주목할 점을 파악하고 짧은 시 짓기	
		정리하기	· 〈통곡할 만한 자리〉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여여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④ 봉산 탈춤 (작자 미상)	제재 탐구	· 〈봉산 탈춤〉 읽기 · 극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주목하여 읽기 - 전통 가면극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12
학습 활동		· 인물의 특성 이해하기 · 탈춤의 특성 파악하기 · 발표 자료 만들기	- 인물의 모습 파악하고 대사와 춤의 기능 이해하기 - 대사에 나타난 특징과 작품의 사회 비판적 부분 파악하기 - 여러 가지 문학의 맥락을 고려하여 발표 자료 만들기		
정리하기		· 〈봉산 탈춤〉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여여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소단원 마무리	· 정리와 점검	- 네 작품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지우고 응원 문구 만들기 - 이 단원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점검하고 학습 과정 돌아보기			
대단원 마무리	생활 속 문학 활동	· 문학관 조사하기 · 가상 지역 문학관 구상하기	- 우리나라의 문학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조사하기 - 모둠별로 문학관에 대해 정보 수집하기 - 가상 지역 문학관 구상하기	13	

(1) 문학의 구성 원리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문학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에 대해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와 비평 방식을 통해 문학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소단원 지도 방향과 유의점

이 단원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공감적·비판적·창의적 감상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문학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비평 방식을 활용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도한다.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도할 때에는 형식적인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 전문적인 비평가의 시각보다는 학습자의 시각에서 작품의 내용, 주제, 형상화의 방법 등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도록 지도하며, 작품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해석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도록 지도한다.
- 학습자가 작품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대화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각 열기

활동 안내

창의적인 형식으로 표현된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긴밀성에 공감해 보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지도 방법

제시된 작품이 가진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시를 읽고 느낀 감상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게 한다.

- 다음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어 보자.

고무신

장순하

눈보라 비껴 나는
전(全) — 군(群) — 가(街) — 도(道)

퍼뜩 차창(車窓)으로 스쳐가는 인정아!

외딴집 섬돌에 놓인

하 나
들
세 켤 레



제재 개관

- 갈래: 현대 시조(구별 배행 시조)
- 성격: 시각적, 실험적, 입체적
- 제재: 섬돌 위에 놓인 고무신
- 주제: 소박한 시골의 따스한 인정
- 특징:
 - ① 시각적인 심상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줌.
 - ② 시조의 형식을 파격적으로 벗어남.

작가 소개

장순하(1928~2022)
시인. 전라북도 정읍 출생. 시와 시조를 두루 창작하였으며, 시조의 틀 안에서 자유로운 형식 실험을 감행하여 현대 시조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자형의 변화 및 글자의 배열과 위치 실험으로 시적 효과를 누리고, 시각적인 방법을 시조에 응용하는 등 시조 현대화를 위해 앞장섰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고무신>에 대한 작품 해제와 개관을 담은 글이다. 작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창의적인 형식으로 표현된 현대시이다. 형식적인 기법이 독특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긴밀성에 쉽게 공감해 볼 수 있다.

(1) <고무신>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배열하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외딴집 섬돌에 놓인 하나, 둘, 세 켤레

예시 답안 이전의 배열과 비교하여 고무신이 놓인 섬돌의 이미지가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2) <고무신>을 읽고 느낀 바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예시 답안**
- 섬돌에 놓인 신발을 네모 상자에 넣어 '하나, 둘, 세 켤레'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니, 세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
 - 화자가 추운 겨울의 풍경 속에서 고무신 세 켤레가 올려져 있는 섬돌을 발견하고 있는데, 춥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가족이 있다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자료실

● <고무신> 읽기

이 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평시조이다. 초장에서는 외딴집의 가족을 위협하는 시련과 위협으로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 중장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삭막함과 대비되는 따뜻한 인정이 묻어나는 한 풍경의 발견에 대한 감탄이 표현되고 있다. 종장에서는 따뜻한 인정이 배어 있는 풍경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태주의적 기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서로 크기가 다른 신발들을 나란히 제시하면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환기하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네모의 형상을 통해 외부적 시련에 저항하는 가족의 단합과 유대감이 표현되고 있다. 이 시는 산업화되는 삭막한 외부 현실을 깨끗이 버려내는 가족의 위대한 힘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https://terms.naver.com>)

● 고정희, <고백-편지 6>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
전
되
었
었
다

이 작품은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열두 작품 가운데 하나로, '너'에 대한 그리움을 전깃줄에 감전된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감전은 전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는 일로, 감전이 되면 전기가 통했다는 느낌을 받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너'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리움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4~8행의 배열에 파격을 줌으로써 이 강렬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고정희, 《지리산의 봄》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형태시와 관련하여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문학의 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이를 활용하여 단원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제시할 수 있다.

● 문학의 구조

문학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모여서 어떤 미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여기서 어떤 내용과 형식이 미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되는 것을 문학의 구조라 한다.

문학의 구조는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미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되는 하나의 예술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구조라는 개념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문학의 구조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 그 구성 요소가 내적인 규칙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그 용도에 따라 배열하고 조직한다. 단순히 그 자재들을 뒤섞어 놓는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편의 시를 쓰는데, 문장 몇 토막을 적당히 섞어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시라는 양식이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서 언어를 조직하여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문학의 구조는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에 의해 전체성을 확립한다. 문학의 구조는 이러한 통일성과 전체성의 원리를 통하여 해명될 수 있다. 한 편의 소설을 놓고, 그 인물이 어떠한지, 배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이야기의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소설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다. 소설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소설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전체의 이야기를 위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합되어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각 부분들이 전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어떤 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의 형태적인 특성과 리듬을 지적하고, 그 시에서 활용된 비유의 방법이나 상징적 수법을 밝혀내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낸다고 해서 시의 구조가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 구조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작품 속에 통합되어 완결된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해명함으로써, 그 특성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 권영민, 《문학의 이해》

읽의 마당

내용 연구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품'이라고도 한다.

문학 작품은 하나의 언어 예술이다. 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 의식으로 구현되고, 이러한 주제 의식은 문학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



자신의 관점에서 기존의 해석과~새로운 사유에 나아갈 수도 있다.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작품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독자는 작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읽어야 한다.

☆ 핵심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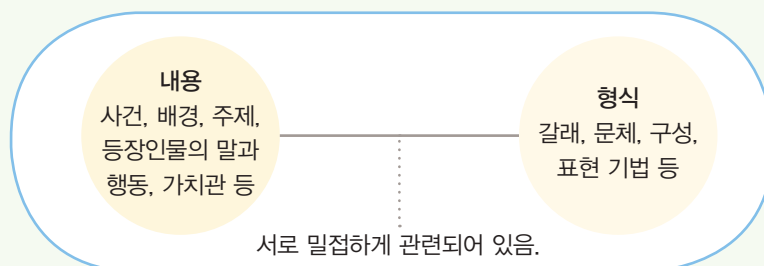
●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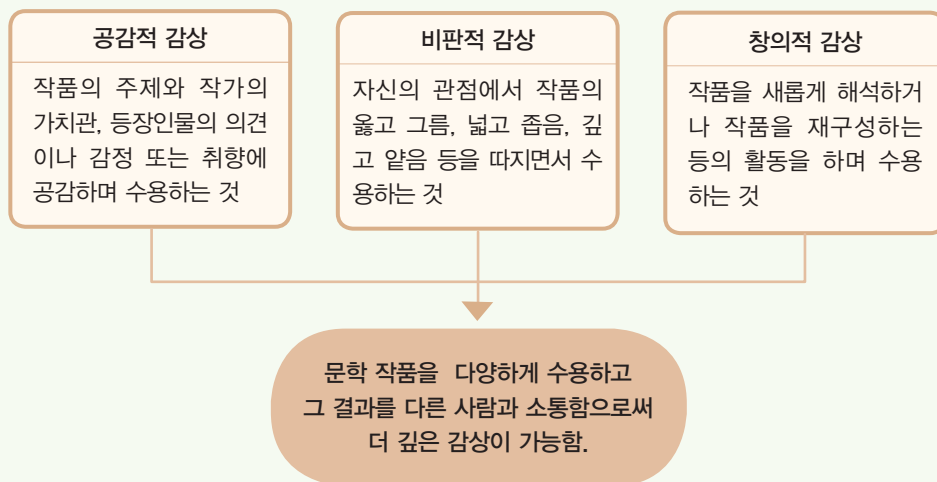
+

문학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



● 문학 작품의 다양한 감상



1 선운사에서

■ 작품 선정의 취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언어 예술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시의 형식상의 특징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 제재 개관

이 작품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응시켜, 그것에서 깨닫게 되는 인간사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별을 경험한 화자가 선운사의 낙화를 보며, 자신의 사랑과 이별을 되돌아보고 그것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절제된 언어로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문학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낭만적, 애상적
제재	꽃
주제	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
특징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함. ②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병치하여 의미를 강화함. ③ 시간을 나타내는 '잠간, 순간'과 '한참'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함.

■ 구성 한눈에 보기

1연	낙화의 순간성과 허무감 인식
2연	이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순간성에 대한 소망
3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4연	사랑하던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

■ 지도 방법

작품의 장면을 떠올리며
낭송하기

화자의 인식, 화자의
상황과 바람 파악하기

시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이해하기

- ① 시의 전개와 내용을 이해하게 하되, 만남과 이별이라는 구성을 파악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② 화자에 대해 파악하고, 핵심 시어인 '꽃'이 피고 지는 것의 의미를 추론해 보게 한다.
- ③ 시의 구조를 파악하고, 작품의 형식이 어떠한 면에서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 ④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게 하고, 작품을 수용할 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 작가 소개



최영미(1961~)

시인. 서울 출생.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시, 남녀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성찰하는 시 등을 많이 썼다. 시집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 《돼지들에게》, 《이미 뜨거운 것들》 등이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최영미 시인의 시 세계와 내용을 설명한 글이다. 시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에서〉의 구조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한 글이다. 학습자들이 〈산유화〉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선운사에서〉의 주제 의식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게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자료실

● 최영미 시인의 시 세계

첫 시집인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1980년대의 현실과 삶에 대한 전면적이며 충격적인 고발과 부정에 시 정신이 집중된다. 그러므로 시인 자신의 자전적이고 또한 내면의 고백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 시집 《꿈의 페달을 밟고》는 시적 경향 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현실 지향성을 드러내면서 개인의 내적 욕망의 문제에 좀더 치밀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천착해 들어가는 정제된 언어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시 세계는 아마도 1990년대 식이라 말해지는 해체와 부정과 환멸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허무적 해체정신의 새로운 변화 내지 자기 모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시집에서 초기 시의 도발적이고 생경한 언어의 표현이 점차 사념과 내성의 성과를 차분하게 시적 언어로 포착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시집으로 《돼지들에게》, 《도착하지 않은 삶》, 산문집으로 《시대의 우울》,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 될 사람에게》, 《화가의 우연한 시선》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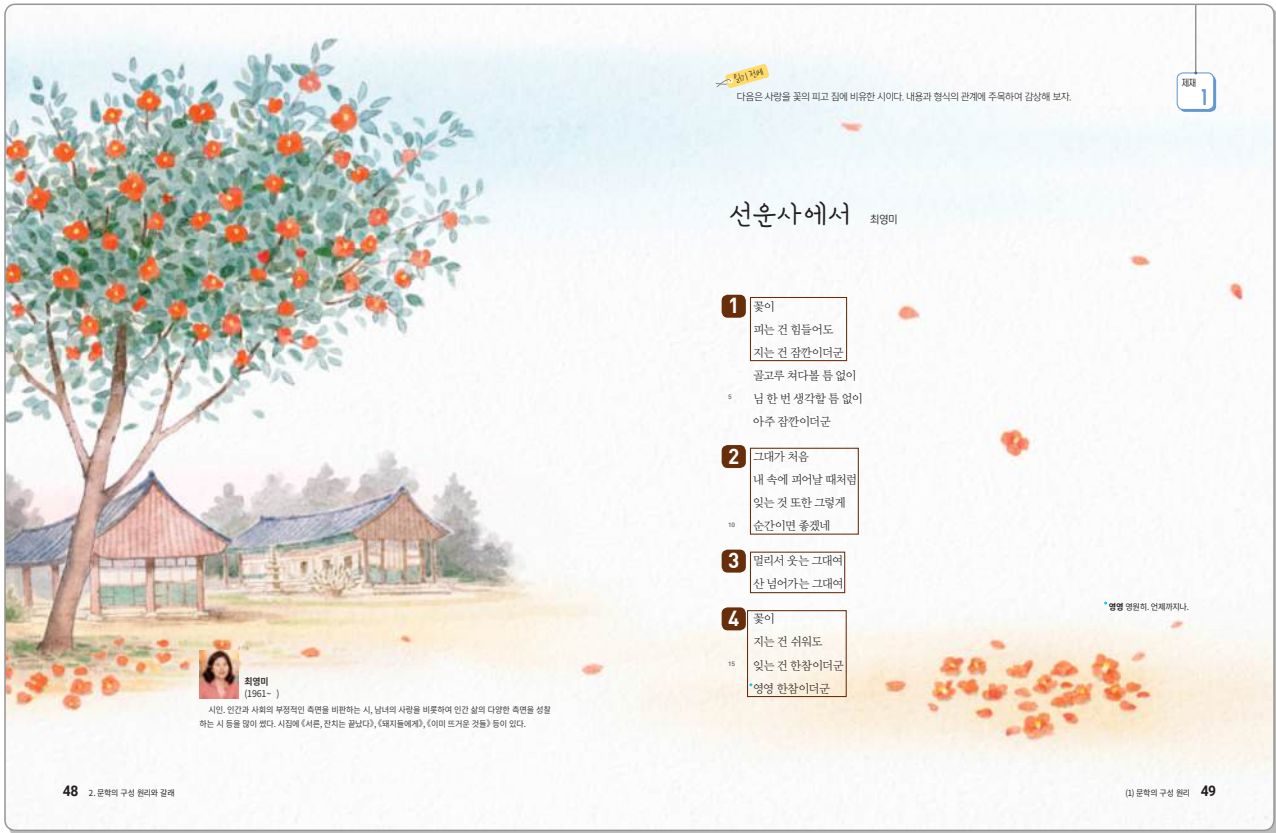
-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 대사전》

● 〈선운사에서〉 해설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찰나의 순간과 우리 삶의 유사성을 연계시키고 있다. 결국 이 시는 꽃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대자연 앞에서는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들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시인은 청자인 '그대'를 대상으로 상대를 부르는 돈호법과 '-더군'과 같이 회상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직시한 세계에 대한 관조의 느낌을 시로 재현해 내고 있다.

시인이 느낀 꽃이 피고 지는 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사소함을 통하여 내밀한 생의 이면을 읽어내는 작업과 유사하다. 시인은 꽃이 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포착함으로써 우리 삶 전반을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대면한다. 시인은 결별의 아픔을 꽃이 피고 지는 찰나의 깨달음을 통해 내면에 승화시켜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결별이 갖고 있는 생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며 시인의 생을 성숙시키는 자양분으로 변한다.

- 한국 향토 문화 전자 대전(<https://www.grandculture.net>)



읽기 전에

지도 방법

꽃이 피고 지는 것과 사랑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하고, 자연물에 빗대어 인생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닌 효과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 다음은 사랑을 꽃의 피고 짐에 비유한 시이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인지하여 〈선운사에서〉를 감상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본문 연구

1연 | 낙화의 순간성과 허무감 인식

화자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상기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꽃이 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1 꽃이 / 피는 건 힘들어도 / 지는 건 잠깐이더군

종결 어미 '-더군'은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화자는 이별을 경험한 후 꽃의 피고 지는 의미에 대해 새로이 깨닫고 있다. 특히 꽃이 지는 것과 임과 이별하는 것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있다.

2연 | 이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순간성에 대한 소망

화자가 이별 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랑의 시작을 꽃이 피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2 그대가 처음 ~ 순간이면 좋겠네

화자는 사랑의 시작이 꽃이 피는 것처럼 ‘순간’이었던 것과 같이 사랑했던 이를 잊는 것 또한 ‘순간’이기를 소망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는 상황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3연 |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가는 형상을 떠올리고 있다.

3 멀리서 웃는 그대여 / 산 넘어가는 그대여

그대는 화자가 이별한 대상이면서 화자가 아직 잊지 못한 대상으로, 화자는 그대를 부르고 있다. ‘멀리서 웃는’과 ‘산 넘어가는’은 그대를 수식하는 말로, 그대와 화자의 거리감을 보여 준다.

4연 | 사랑하던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을 꽃이 지는 것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4 꽃이 / 지는 건 쉬워도 / 잊는 건 한참이더군 / 영영 한참이더군

화자는 꽃이 지는 건 쉽지만 사랑하는 이를 잊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꽃이 지는 건 순간이지만 사랑하는 이를 잊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한참’이라는 표현의 반복과 ‘영영’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다.

☆ 핵심 강의

● ‘꽃’과 ‘인간사’의 대응 구조

꽃이 피고 지는 과정	→ 유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
꽃은 힘들게 피지만, 지는 건 순간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어려워도 이별을 하는 것은 순간이다.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이별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별 뒤의 고통은 길다.

● ‘~이더군’, ‘틈 없이’, ‘~는 그대여’의 반복 효과

- 운율을 형성함.
-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안정시킴.
- 감정을 절제하는 듯한 효과를 줌.
- 사랑과 이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냄.
-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학습 활동

활동 안내

시의 구성 요소 중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화자의 인식 및 화자의 상황과 바람 등을 정리해 보게 하여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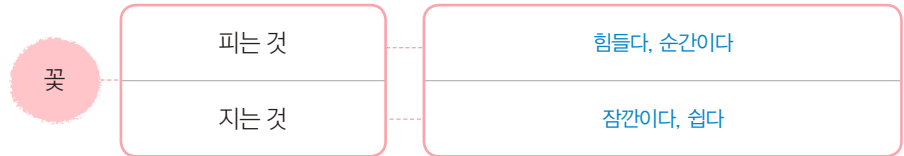
지도 방법

- ① '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피는 것과 지는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게 한다.
- ② 시구를 근거로 삼아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바람을 정리하게 한다.

1 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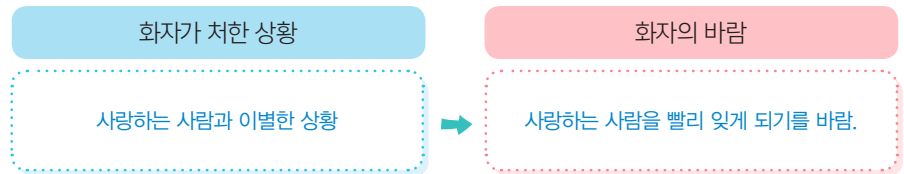
(1) '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2) 화자가 처한 상황과 바람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활동 안내

반복되는 표현들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어떤 형식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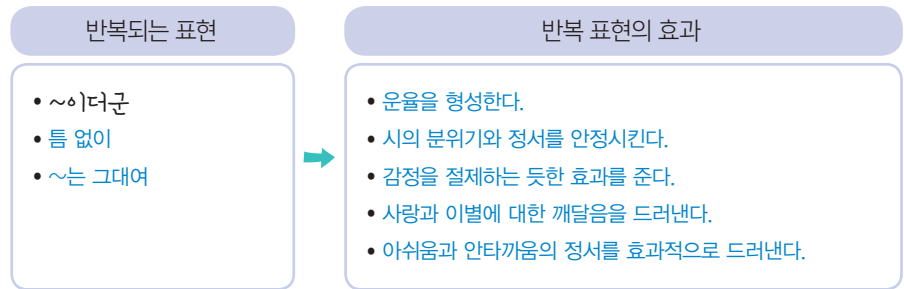
지도 방법

- ①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 내용과 연관 지어 그 효과를 적게 한다.
- ② 1연과 4연에서 대비되는 표현을 찾고 시의 주제와 연관 지어 표현의 효과를 적게 한다.

2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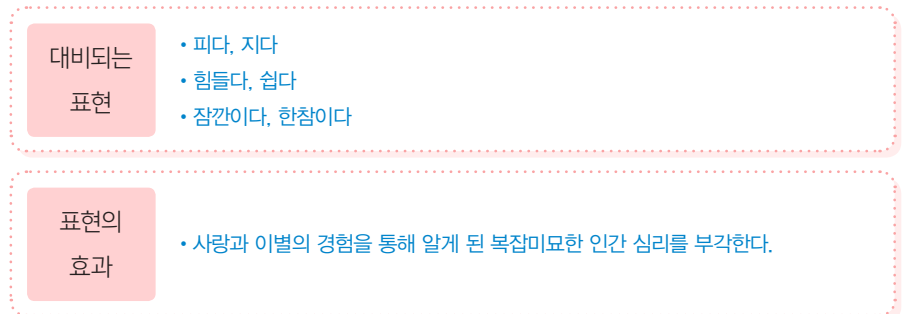
(1) 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 그 효과를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2) 1연과 4연에서 대비되는 표현을 찾고, 이 같은 표현의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활동 안내**

두 작품을 비교하여 내용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두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의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비교해 보도록 지도한다.
- ② <먼 후일>의 형식적 특징을 찾아보고, 형식적 특징이 주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파악하게 하여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③ 앞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깊게 이해한 뒤, 비평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제재 개관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민요적, 애상적
- 제재: 떠난 임
- 주제: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 특징:
 - ①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② 반어적 진술을 통해 그리움을 강조함.
 - ③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④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남.

작가 소개

김소월(1902~1934)
시인. 평안북도 구성 출생. 본명은 정식(廷澁). 김억의 영향으로 문단에 등단하였고, 1922년에 <개벽>에 <진달래꽃>을 발표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토속적인 한과 정서를 그대로 담아낸 민요적인 서정시를 창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작에 <산유화(山有花)>, <접동새> 등이 있고, 시집에 <진달래꽃>, <소월 시집> 등이 있다.

3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선운사에서>와 비교하며 아래 활동을 해 보자.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잇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잇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잇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잇고
먼 후일 그때에 '잇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1)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의 화자가 '그대(당신)'를 잇는 것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

예시 답안 <먼 후일>의 화자는 당신을 먼 후일에야 잇겠다고 하지만, 잇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운사에서>의 화자는 그대를 금방 잇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 모둠원들과 다음 활동을 중심으로 <먼 후일>에 대해 비평 활동을 해 보자.

예시 답안

- 이 작품의 형식적 요소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①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난다.
- 이 작품의 주제와 형식의 연관성은 어떠할까? '잇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결코 잇을 수 없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3) (1)과 (2)를 바탕으로 하여,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에 대한 한 줄 평을 써 보자.

예시 답안

<먼 후일>

'잇었노라'는 '잇지 못했노라'의 반복

<선운사에서>

사랑의 시작은 순간, 잇는 데는 한참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김소월의 〈먼 후일〉에 대한 해제를 담은 글이다.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서구풍 시의 유행 속에서 순 우리말과 운율을 살린 시를 썼던 김소월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자료 더하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김소월의 시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먼 후일〉 해제

1925년에 간행된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되었다. 〈못 잊어〉와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애써 잊으려는 안타까움이 서린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 무척 그리다가, 그리고 '믿기지 않아서' 중국에는 잊겠지만 그것은 오늘도 어제도 아니요, '먼 훗날' 즉 죽은 후에나 잊게 되리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랑의 의리(義理)를 다짐하고 있다. 야속한 입을 그리는 애한(哀恨)이 담긴 시로서 1920년, 즉 그가 오산중학(五山中學)에 다닐 때 《학생계(學生界)》에 발표한 작품이다.

-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 친숙한 리듬과 언어를 사용한 김소월

김소월이 처음 시를 발표한 것은 1920년 《창조》라는 동인지를 통해서였다. 《창조》는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문학 잡지였고,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글을 실었다. 비단 이 잡지뿐 아니라, 1920년 당시에 새로운 시를 쓰고 문학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서양의 근대 문학을 접한 이들이었다.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서 김소월에게 시를 가르친 김억도 마찬가지다. 김억은 한국에 처음으로 프랑스와 러시아의 시들을 번역, 소개한 시인이었다.

일본을 통해 접한 서양 시의 영향이 크다 보니, 일본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어휘와 어투가 남발하고 구체성을 결여한 상징주의풍의 문장이 유행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김소월이 등장한 건 이러한 문화 풍토 속에서였다. 그는 정주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닌 정주 토박이였다. 그가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십대 후반 무렵, 그는 일본에 가 본 적도 없었고 서울의 문화적 분위기를 직접 체험한 적도 없었다. 그를 시의 세계로 인도한 건 스승인 김억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가 상당수 발표되는 1922년 무렵, 당대의 시인과 문학 평론가들은 김소월의 시가 보여 주는 리듬과 언어에 찬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무엇이 그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 그리고 8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소월의 시가 매력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소월의 많은 시들은 7·5조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다. 7·5조는 원래 일본 시가의 율조다. 한국에서 7·5조가 유행하게 된 것은 창가가 유입되고 유행하면서부터이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7·5조 창가로는 “우렁차게 토하는 / 기적 소리에 / 남대문을 등지고 / 떠나 나가서”로 시작되는 최남선의 〈경부철도가〉가 있다. 당시 한국에서 7·5조 창가는 학교 교가나 찬송가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김소월의 7·5조 시들은 외면적으로 창가와 똑같은 형태를 띠지만, 정조나 분위기에서 비슷한 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리 집 뒷산에는 풀이 푸르고
숲 사이의 시냇물, 모래 바닥은
파아란 풀 그림자, 떠서 흘러요

그리운 우리 님은 어디 계신고,
날마다 피어나는 우리 님 생각.
날마다 뒷산에 홀로 앉아서
날마다 풀을 따서 물에 던져요

- 〈풀 따기〉중에서

이 시는 7·5조의 글자 수를 거의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또 어떤 가락을 따라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일본에서 수입된 창가형 리듬이 아니라 옛 한국 시가들이 보여 주는 3음보의 전통 율조다. 맑고 투명한 감성과 친숙한 어휘들, ‘님’에 대한 그리움은 이 시를 민족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읽게 만든다.

〈풀따기〉와 같은 시들이 외형상으로 창가를 연상시킨다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김소월의 시들은 적절한 행갈이와 변형을 통해 7·5조 율격을 창의적이면서도 친숙한 리듬으로 재창조해 낸 것들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零邊)의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진달래꽃〉 중에서

한 행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7·5조가 이 시에서는 두 행으로 처리되었다. 또 “영변에 약산” 부분은 글자 수가 적어서, 천천히 읽게 된다. 〈진달래꽃〉은 〈풀따기〉와 같은 리듬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의 처리가 달라지고 글자 수가 변형됨으로써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감정을 충분히 실은 리듬감을 독자에게 전해 준다.

- 이남호, 《상실감을 달래 주는 겨레의 노래 김소월의 시》

선운사에서



• 내가 주는 별점: ☆☆☆☆☆

• 한 줄 감상평: _____ 

QR 코드

〈선운사에서〉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선운사에서〉는 ❶ 꽃을 통해 사랑의 속성에 대해 말하는 시이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전라북도 고창군 도솔산 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절 선운사이다. 꽃의 피고 짐을 사랑의 시작과 끝에 비유함으로써 사랑의 속성을 잘 드러내었고, 꽃이 쉽게 지는 것에 대비함으로써 그 사랑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❷ 대비적 형식의 진술, 같은 말의 반복 표현 등의 형식 요소가 '사랑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뒤'라는 내용과 잘 어울려 좋은 시가 되었다.

읽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서정주(1915~2000)
시인, 전라북도 고창 출생. 초기 시는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 악마적이며 원색적인 시풍을 보여 주었고, 1942년부터 친일 작품들을 발표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인간의 운명적 업고(業苦)에 대한 인식이 영겁의 생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화사〉, 〈자화상〉, 〈귀축도〉 등을 통해 불교 사상과 자기 성찰 등을 표현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사랑의 힘〉

최영미

사랑이 없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말하는 시이다. "사랑이 아니라면"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여, 사랑에 대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사랑이 아니라면
겨울은 뿌리째 겨울
꽃은 시들 새도 없이 말라 죽고
아이들은 옷을 벗지 못한다

배경이 유사한 작품

〈선운사 동구〉

서정주

선운사 동백꽃을 다룬 많은 현대시의 첫 머리에 서 있는 시이다. 때가 일러 아직 피지 않은 선운사 동백꽃은 보지 못하고, 그 대신 육자배기 노래를 들으며 작년의 동백꽃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각결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작품 감상 연구

❶ 꽃을 통해 사랑의 속성에 대해 말하는 시이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응하여, 사랑의 시작은 한순간이지만 이별의 고통이 길다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❷ 대비적 형식의 진술, 같은 말의 반복 표현 등의 형식 요소가 ~ 내용과 잘 어울려 좋은 시가 되었다.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비되어 있으며, 동시에 ‘잠깐’과 ‘한참’이라는 시간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고통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더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는 그대여’의 반복을 통해 이별한 이의 애절한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 동백꽃이 핀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글이다. 선운사 동백꽃을 설명할 때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실

● 선운사 동백꽃

보길도와 강진의 동백꽃은 3월 말이면 다 질 정도로 일찍 피지만, 선운사 동백꽃은 동백나무 자생지의 북방 한계선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4월 말이 되어야 절정을 이루며,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선운사 동백연(冬柏燕)도 이 무렵에 열린다. 동백꽃은 반쯤 저 갈 때가 보기 좋다. 떨어진 동백꽃이 검붉게 빛바랜 채 깔려 있는데 밝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이파리 사이사이로 아직도 붉고 싱싱한 동백꽃 송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 점점이 붉은 악센트를 가한 한 폭의 명화를 연상케 한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다면 가히 환상적이다.

그러나 동백꽃이 지는 모습 자체는 차라리 잔인스럽다. 꽃잎이 흩날리며 시들어가는 것이 꽃들의 생리겠지만 동백꽃은 송이째 부러지며 쓰러진다. 마치 비정한 칼 끝에 목이 베여 나가는 것만 같다.

-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자료 더하기



천연기념물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절 뒤쪽 산 아래쪽에 30미터 폭의 띠 모양으로 펼쳐진 동백나무 숲이다. 선운사 누리집의 <선운사 소개>에서는 “붉은 꽃송이를 피워 내는 선운사 동백꽃의 고아한 자태는 시인·묵객들의 예찬과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였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 동백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사진이다. 선운사 동백꽃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에서>의 내용을 활용한 노랫말이다. 학습자에게 노래를 들려준다면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노랫말이 된 시



멀리서 웃는 그대여
잇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잇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선운사에서>는 여러 작곡가의 곡을 만나 노래가 되기도 하였다. 이건용, 김대성, 안치환 등의 작곡가가 이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나와 있다. 곡에 어울리도록 시의 내용과 형식을 조금 바꾼 경우도 있다.

- 최영미 시, 안치환 작곡, <선운사에서>에서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글이다.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료실

●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을 그리다

선운산의 동백숲은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선운산가>의 주인공인 ‘망부(望夫)의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죽어서 그 넋이 동백꽃으로 피었다고 한다.

《고려사》 <악지(樂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선운산가>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있다. “장사(長沙) 사람이 정역(征役)에 나갔는데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부른 노래”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선운산(禪雲山), 선(禪)을 선(仙)으로도 쓴다. 현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고려사》 <악지>에, “<선운산곡(禪雲山曲)>이 있는데 백제 때에 장사(長沙) 사람이 싸움에 나갔다가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이 산에 올라가 바라보며 부른 노래이다.” 하였다.

집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을 읊은 점에서는 <정읍사(井邑詞)>와 같다. 다만 <정읍사>는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인데 비해서 <선운산가>는 국방 경비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이다. 그 애절한 노래가 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1910년 이흥구가 지은 기행 가사인 <선운사 풍경가>에서는 그 정경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천지개벽 하온 후에 선운산고(禪雲山高) 하였으니
고려사 악지에 선운산곡(禪雲山曲) 재재(載在)하고
백제시 장사인이 정역원방(征役遠方) 하올 적의
과기불반(過期不返) 하라이면 기처사지(其妻思之) 하난 마음
등시산이(登是山而) 망가(望歌)터니

지금은 선운사 입구에 ‘선운산가비(禪雲山歌碑)’만 서 있다. 그 비석에는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에서>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이 시는 1968년 서정주가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을 배경으로 지은 현대시로 다섯 번째 시집 《동천》에 수록되어 있다. 시인은 이 작품을 즐겨 써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었으며, 일부는 현재 ‘미당시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 국가유산청,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2 유자소전



QR 코드 <유자소전> 줄거리 애니메이션

자료 활용 학습할 제재의 전체적인 줄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작품 구조를 인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작품 선정의 취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언어 예술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여러 개의 삽화가 들어 있는 점, 전통적인 전(傳) 양식이라는 점 등의 형식적 특징을 지녔으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이 작품에는 중심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어 이에 공감할 수도, 다른 관점에서 비판해 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에 대한 짧은 비평문을 써 보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데 적합하다.

■ 제재 개관

이 작품은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실존 인물 유재필(유자)의 일생을 다룬 것으로,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특유의 인간미를 보여 주었던 유자의 여러 삽화를 담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유자가 한 운수 회사의 노선 상무로 일하던 시절,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타고난 너스레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갈래	단편 소설, 세대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사실적, 비판적
제재	유자(유재필)의 일생
주제	유자의 훌륭한 인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實名) 소설임. ② 한국 문학의 전통적 갈래인 '전(傳)'의 형식을 취함. ③ 다양한 삽화를 통해 소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④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냄.

■ 구성 한눈에 보기

이 구성은 교과서 수록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
2	<p>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②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특유의 너스레와 께를 발휘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장례를 도움.

■ 전체 줄거리

1941년에 태어난 유자는 어린 시절부터 너스레 좋은 입담과 불임성, 처세술을 발휘하며 눈길을 끌었다. 군대에서도 점술인 행세를 하며 ‘도사’라는 별명을 얻고 운전을 배우며 편안한 생활을 한다. 제대 후에는 한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기사 노릇을 하던 중 총수의 사치스런 생활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못하여 결국 그 기업의 노선 상무로 좌천된다. 그 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난처한 일들을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며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 준다. 아픈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던 유자는 뒤늦게 큰 병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와 교류하던 많은 문인들이 모두 진심으로 그의 삶을 깊이 애도한다.

■ 지도 방법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작품 읽기

인물의 성품과 작품의
형식상 특징 파악하기

감상을 나누고,
짧은 비평문 쓰기

- ① 서술자가 소개하고 있는 인물의 일화를 통해 인물의 성품,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작품과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공감할 만하고 또 비판할 만한지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전(傳) 양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짧은 비평문을 써 봄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비평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작가 소개



이문구(1941~2003)

소설가. 충청남도 보령 출생. 6·25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작가는 지방에서 상경하여 견어물 좌판과 행상, 잡역부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동료 문인들의 구명 운동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한 시인의 모습을 보고 글쓰기를 생애의 업으로 삼는다. 이후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김동리를 스승으로 삼는데, 그의 추천으로 《현대 문학》에 <다갈라 불망비>와 <백결>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근대화에 맞서 농촌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소설을 썼다. 대표작인 《관촌수필》과 《우리 동네》를 통해 도시와 농촌, 현재와 과거의 삶이 복합적으로 얽힌 당대의 근대성을 전면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이야기체와 근대 소설의 양식이 혼용되어 있으며, 농촌 공동체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 후 <산 너머 남촌>, <유자소전>,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등을 통해 문학적인 영역으로 시선을 돌린다. ‘농촌/도시’의 구도가 ‘자연/문명’으로 확장되면서 자아와 세계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는 소설을 창작하였다.

읽기 전에

지도 방법

전(傳) 형식의 특징을 설명한 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형식의 작품을 썼을지 추측해 보게 한다.

○ 다음은 전(傳)의 형식을 빌려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린 소설이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전(傳) 형식에 유의하고,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인지하여 <유자소전>을 감상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본문 연구

1 | 교과서 54쪽 1행~55쪽 27행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

유자, 즉 유재필은 ‘나’의 친구로 1941년에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했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일생을 살며 어진 인품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감명과 울림을 주었다.

1 | 교과서 54쪽 3~4행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 예사 허름승이는 아니었다.

유자가 그 일생을 통해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긴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2 | 교과서 55쪽 6~15행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 이력이 난 터이었다.

앞에서 언급된 유자가 지닌 ‘죽대’와 ‘주견’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자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으스대는 행동, 옹고 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 등을 그릇된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교과서 55쪽 8~10행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 소설인 《삼국지연의》를 일컫는다. 《삼국지연의》는 유비, 관우, 장비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의리가 강조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조조는 다소 용렬(庸劣)한 인물로 그려지며 그들과 대립하기 때문에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읽게 된다. 이 부분은 그러한 상황에 빚대어 유자가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매우 미워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 교과서 55쪽 12~15행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이 부분에서 ‘흑백’은 ‘옹고 그름’을 뜻한다. 그러므로 유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딱 부러지게 옹고 그름을 분별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과년한 딸을 시집보내며 생긴 경제적 이득을 밀천으로 돈벌이를 나서는 데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구두쇠를 보듯이 멸시하였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자의 성격과 인물됨

-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고, 또래 사이에서 두드러짐.
- 불우한 환경에서도 일찍 성숙함.
- 심성이 밝고 깔끔하며,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함.
- 성품이 곧고 굳으며, 뜻대와 주견이 있음.

읽기 중 활동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

활동 안내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여 그의 가치관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교과서 55쪽에 유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격하였는지 나열되어 있다. 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유자는 어떤 행동을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보면서 유자의 가치관과 품성을 알아보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으스대는 사람,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5 교과서 55쪽 20~23행 이른바 ~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이다.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송대(宋代)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범중엄(范仲淹)의 시 〈악양루기(岳陽樓記)〉의 한 구절로, 바람직한 관리·지도자상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유자는 그 어진 인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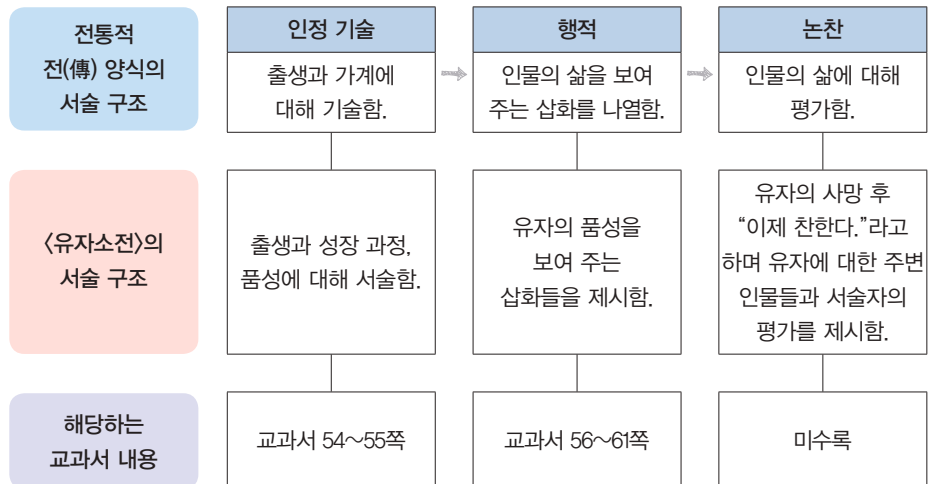
6 교과서 55쪽 26~27행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俞子)였다.

‘가(哥)’는 성씨 뒤에 붙어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자(子)’는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어 ‘높임을 받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서술자는 친구를 두고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말하면서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 핵심 강의

전(傳) 양식을 계승한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은 서술자의 친구인 유자의 일대기를 다루며 전통적 전(傳) 양식을 충실하게 계승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유자소전>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서술자의 논찬 이제 찬한다. 유명이 갈렸건만 아직도 그대를 찾음이여 오롯이 더불어 산 진한 삶이었음이네.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고 시가 되어 남음이여 그 정신 아름답고 향기로웠음이네. 아아 사십 중반에 만년이 되었음이여 남보다 앞서 살고 앞서 떠났음 이로다. 붓을 놓으며 다시금 눈물 젖음이여 그림고 기리는 마음 가이없어라.

● <유자소전>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 두 서술

판소리 사설의 특징	효과	<유자소전>의 서술 예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사건, 인물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의 평가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함. •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독자와 함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 허름송이는 아니었다.(교과서 54쪽 3행~4행) •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교과서 55쪽 16행~17행) •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교과서 55쪽 23행)
만연체 문장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장황하게 표현한 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의 서술에 몰입하게 함. • 인물과 상황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는 어려서부터 ~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교과서 54쪽 6행~11행) •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 소홀함이 없었다.(교과서 55쪽 6행~10행) • 또한 남의 아픔이 ~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교과서 55쪽 17행~23행) 등
대구 표현 비슷한 둘 이상의 글귀를 짝지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의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함. •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교과서 55쪽 3~4행) • 스스로 갖추어진 죽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건(교과서 55쪽 4행) •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교과서 55쪽 6행) 등

● 유자(유재필)의 일생

출생~학창 시절	1941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대천에서 성장함. 성숙한 유년 시절을 보냄.
군 입대 시절	특유의 처세술로 '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운전을 배우며 편안하게 보냄.
군 제대 후	재벌 총수의 운전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노선 상무 및 과장, 종합 병원 원무 실장 등을 지내며 인간의 도리를 실천함.
죽은 후	문인들과 교류하며 친분을 쌓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문인들이 유자를 찬(讚)하며 애도함.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유자소전>이 계승한 우리 문학의 전통적 면모를 제시한 글이다.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전통적 서사를 계승한 <유자소전>

이 작품은 제목대로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이다.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온 점이나,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하게 한 점, 희극적 상황의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인 서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자라는 인물의 다소 전근대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사치심과 이기심에 젖어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자세를 비판하는 방식은 웃음 속에 현실을 풍자하는 가면극과 매우 흡사하다.

2-① | 교과서 56쪽 9행~58쪽 7행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 ①: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기업의 노선 상무로 좌천된 유자는 자신이 속한 기업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후속 처리를 맡는다. 그런데 임시로 고용된 스페어 운전수들의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자는 자신의 용돈으로 그들을 돕곤 하였다.

7 | 교과서 56쪽 9~10행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교과서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문장의 앞 문단에서 유자는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고 위험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비난하는데, 이 문장에도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했던 유자는 운전 윤리에 대해서도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8 | 교과서 56쪽 10~11행 가해자가 그룹 내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유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라고 해서 기존의 주관과 원칙을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쫓대가 있고 사리 분별이 바른 유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 | 교과서 56쪽 23~24행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스페어 운전수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자신의 돈을 써서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임시로 고용한 운전수들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비(私備)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매정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 주고 있다.

2-② | 교과서 58쪽 8행~61쪽 22행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 ②: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특유의 너살과 께를 발휘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장례를 도움.

유자는 사고 처리반이 된 뒤에 처음에는 유가족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유가족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돕는 방법으로 대처하여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10 | 교과서 58쪽 12~14행 사고를 낸 회사에서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유가족을 찾아가 유자가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고 그 울분을 풀 대상을 찾던 중, 사고를 낸 운전수의 소속 회사 사람인 유자가 사고 처리를 하러 가면 그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이 많았고, 이 때문에 유자는 봉변을 당하곤 하였다.

11 | 교과서 58쪽 21~26행 너야말루 군사 정변이 나서 ~떨어져 밝힌 단춧값을 보태 주데?

유자는 어린 시절 확성기 수리를 도우며 야당의 정치 유세를 따라다녔다. 이 인연으로 유자는 정치 식객은 아니면서도 ‘비서관’이란 대외용 명함을 지니고 한동안 야당 정치인의 자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자 조사 대상으로 끌려갔는데 털어 봤자 나올 것이 없는 몸이었기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유자는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무소불위한 공권력하에서도 화를 피했던 자신이 잘못된 것도 없이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읽기 중 활동 ●

📖 ‘유자’가 이와 같은 탄식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활동 안내 유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유자는 탄식하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진술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사했던 과거(교과서에는 생략된 내용)와 자신의 집안 내력을 언급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유자가 하는 말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움을 주며 유자의 심리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 유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유가족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억울함 때문에 이와 같이 탄식했을 것이다.
• 폭언을 듣고 목살을 잡고 언어맞아도 유자는 어디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자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이런 탄식을 했을 것이다.

12 | 교과서 59쪽 7~8행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유자는 유가족을 방문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면서도 봉변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 낸다. ‘선수를 친다’는 것은 유자가 먼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책임을 언급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13 | 교과서 59쪽 12행~16행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종교에 따라 다른 장례 문화가 있으나 유자는 어디를 가든 영정 사진 앞에서 두 번의 절을 하였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우는 척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홍물을 떨면서 유가족의 시선을 끌어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도 했다.

●홍물(을) 떨다 음흉한 속셈으로 집짓 의문한 짓을 하다.

14 교과서 59쪽 24행~28행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유자는 사망자와의 인연 때문에 빈소를 찾은 사람이 아니다. 유자가 빈소에 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유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유가족과 다소 가까워진 다음,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듣고서야 정체를 밝힌다.

15 교과서 61쪽 1~2행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유자가 명함을 내밌으로써 유자의 소속과 방문 목적이 드러났음에도, 서로 술상을 함께 한 뒤라서 유가족들이 유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초기와 달리 유자가 빈소에서 더 이상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교과서 61쪽 9~22행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유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더 주기 위해 침놓는 법, 풍수지리, 수맥을 배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핵심 강의

● <유자소전>의 공감적 · 비판적 · 창의적 감상의 예

■ '유자'의 인물됨

- ① 말재주가 좋고 비범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
- ② 스스로 갖추어진 죽대와 나뭇잎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함.
- 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 ④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대처함.

공감적 감상의 예

서술자의 평에 공감하여 유자가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고 평가함.

비판적 감상의 예

유자의 업무 처리 방식은 정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함.

창의적 감상의 예

친구가 겪은 이야기를 <유자소전>과 유사한 형식으로 씀.

● <유자소전>에 쓰인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

방언

- '-지유', '-힐규', '-여' 등의 어미
- '제우', '찌웃그리다' 등의 어휘

비속어

'자빠지구', '죄일 늬덜' 등

-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획득함.
- 유자의 인정이 많고 순박한 면모를 드러냄.
-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 줌.
- 유자에게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음.
-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 줌.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이시영 시인이 유재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유자소전>의 심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유재필의 삶과 품성을 노래한 시 <유재필 씨>

비가 구죽죽이 내린 날, 유재필 씨의 시신은 영구차에 실려 답십리 삼성병원 영안실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호상 이문구 씨가 따랐습니다. 번뜩이는 익살과 놀라운 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설 속 주인공이 되었지만 자신은 이 지상에 한 편의 소설도 시도 남기지 않은 채 새파란 아내와 자식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은 또한 벳 채광석의 일백 일 탈상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일백 일 전 오늘 유재필 씨는 채광석 장례의 지관이 되어 이 산 저 산을 뒤풀어 터를 잡고 돌집에 내려와서는 ‘시인 채광석의 묘’라고 새긴 돌값을 깎았습니다. 돌값을 깎고 내려와선 양수리 한강 변에서 장어를 사 먹었던가요. 햇빛에 그늘은 새까만 얼굴과 단단한 어깨, 넘치는 재담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길지 않은 생애의 대부분의 직업이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고 처리반 주임이었으니까요. 죽음은 어쩌면 그와 가장 친숙한 길동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지요, 그는 우리들을 잠시 놀라게 하려고 이웃 마실에 간 것만 같습니다.

- 이시영, <유재필 씨>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이문구 소설에 나타나는 고유어와 상징어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유자소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휘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이문구 소설어에 나타난 고유어와 상징어

이문구 소설에 나타나는 고유어의 성격은 순수한 우리말과 충남 방언을 비롯한 여러 방언권에 나타나는 독특한 어휘, 나아가 토속적인 상징어와 비속어, 그리고 이문구가 사용한 개인어 등을 통틀어 활용한 외래어와 변별되는 어휘들로 구성된 순우리말이다. 몇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문구 소설에서는 충남 방언을 비롯하여 여러 방언권의 토속적 지역어, 나아가 상징어와 비속어를 찾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문구 소설의 대화에서 사용된 어휘들의 양상은 비속어와 방언의 선용, 그리고 개인어의 활용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들에게 낯설고, 때론 어색한 말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운 우리말의 정감을 살려 주지만,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신자인 독자에게 묘한 언어의 매력을 던져 주고 있다.

이문구가 만들어 쓴 개인어 가운데 ‘말’에 관한 것을 예로 들면 ‘말값, 말겨름, 말농사, 말늦, 말마중, 말마투리, 말매듭, 말백, 말맛, 말바람, 말반찬, 말푸대, 말휘깡’ 등이 있다. 나아가 ‘거였다, 계집농사, 귀농사, 들면날면, 뜯살이, 뜯이름, 달잎, 푹푹성, 마당식구, 밀마음, 별쫓떨다, 뼈뺌, 접개다, 허여허였다’ 등도 이문구 소설에서 만들어 쓴 조어들이다.

이러한 이문구 소설에서 사용한 개인어, 나아가 비속어의 활용과 정감이 가는 우리말(가풀막, 개뚝매미, 거스름, 거추없다, -깁, 꽃빛, 버딩, 도리기, 봄붙이, 비닭이, 뒤슬뒤슬하다, 말쉬바위, -사리, 살강, 응이, 종주먹, -할래 등)의 선용은 보령 지역어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산업화로 잊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담화 기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중략>

이문구 소설에서는 우리말 상징어의 선용이 두드러져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나타난다. 이들 상징어는 기왕에 우리말에 쓰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문구가 만들어 활용한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상징어의 적극적 활용은 소설 묘사에 있어서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구체적 표현과 결부된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이문구 소설에서 상징어의 활용은 어휘 선택의 다양성과 어휘 구사의 풍부함, 나아가 인물 묘사의 구체화를 실현하는 표현 양상이 될 것이다. <중략>

이문구 소설에는 상징어의 활용이 유난히 많다. 우선 ‘웃음’에 관한 상징어만 예를 들어보면 ‘간들간들, 낄낄/꼴꼴, 신들신들, 실금실금, 사불사불, 치룩치룩’ 등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이문구 소설에서 어휘 활용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생동감과 현실성을 살려 독자와의 교감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어휘의 활용이 요설체를 이루는 이문구 소설 문체의 일면이기도 하다.

-한영목, <이문구 소설어와 충남 방언>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유자소전>이 담긴 소설집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의 신문 기사다. 실명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소설집이 발표되었을 때의 세간의 반응 등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 ‘유자’를 “온갖 세파를 붙임성과 의리로 헤쳐 나가다 죽은 고향 친구”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문구 연작 소설집 《유자소전》

이문구 씨의 소설은 재미있다. <관촌 수필>, <우리 동네>, <매월당 김시습> 등 1966년 문단에 나온 이래 이 씨가 발표한 10권 가량의 작품들은 넉넉한 세상 보기와 구수한 이야기거리로 밤 새워 읽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쉽게 쉽게 책장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깔깔하고 쫄깃쫄깃한, 혹은 전아한 우리 고유의 말·문체가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씨 소설의 맛을 한껏 보여 주는 신작 소설집 《유자소전》이 최근 출간됐다. 본격 소설집으로는 10년 만에 내놓은 이 책에는 이 씨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실명으로 다룬 단편 10편이 연작 형태로 들어 있다.

“조실부모해 유달리 외로움을 타다 보니 제 주위엔 혈육의 정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실명 인물 소재를 썼습니다.”

온갖 세파를 붙임성과 의리로 헤쳐 나가다 죽은 고향 친구, 무위도식과 가투 방황으로 저물어 간 정치꾼들, 공사판만 전전하다 칠순에 접어든 노가다 십장, 평생 농사로 지새다 끝내 목매단 촌로 등 이 씨가 다룬 인물들은 그의 신산했던 삶만큼이나 다양하다. 붙임성 있는 고향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정치 건달이며 고집불통의 머슴, 막돼먹은 십장들도 그의 소설에서는 혈육의 정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따뜻하게 그려진다. 그건 이 씨가 지닌 따뜻한 세상 보기·사람 보기의 버릇과 함께 그 특유의 문체에 기인된다.

“제법 시골에서는 잘살던 집, 6·25 전쟁으로 가족들이 풍비박산 나자 큰 사랑채엔 전쟁 과부 아주머니들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춘향전>, <옥단춘전> 등 우리 고전 소설들을 밤마다 읽어 드렸지요. 우리말의 호흡·가락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낯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분들도 다 알아듣고 웃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는 또 내 최초의 독서이고 문학과와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문체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왔다. 고전 소설의 가락·해학에 끊임없이 생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 구어·토속어를 집어넣는다.

- <지인들 실명으로 다뤄 화제, 이문구 연작 소설집 《유자소전》>, 《중앙일보》(1993년 3월 8일)

학습 활동

활동 안내

작품의 중심인물인 '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인물의 성품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형식의 특성에 따라 인물의 세부 정보, 인물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을 파악하며 읽게 한다.
- ② 특정 사건에 대응하는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품을 짐작하게 한다.

1 이 작품의 중심인물인 '유자'에 대해 살펴보자.

(1) 다음을 정리하면서 '유자'가 어떤 인물인지 확인해 보자.

예시 답안

00그룹 00은수



노선 상무 유재필

- 태어난 해: 1941년
- 태어난 곳: 홍성군 광천
- 자란 곳: 보령군 대천
- 성장 배경: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

(2) 다음 삽화에서 짐작할 수 있는 '유자'의 성품을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사고를 낸 운전수의 집에 갔을 때

⇒

업무상으로 만난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와주는 데서 유자의 선한 성품을 알 수 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의 빈소에 갔을 때

⇒

- 진짜 조문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나오지 않는 눈물까지 나는 척했던 너스레로 보아 유자의 태연스러운 성품을 알 수 있다.
-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배우는 모습에서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활동 안내

전(傳)의 형식상 특징을 고려하여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인물의 행적'과 '필자의 평가'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게 한다.
- ② 작품 전체를 읽고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작품 마지막의 찬(讚)에 주목하도록 지도한다.

2 다음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형식상 특징을 알아보자.

'전(傳)'이란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전통 서사 양식의 하나로, 인물의 행적을 적고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덧붙인 글이다.

(1) 이 작품에서 '전(傳)'의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은 어디인지 찾아보자.

예시 답안

(2) 작가가 '전(傳)'의 형식을 활용하여 이 작품을 쓴 의도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3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모둠원들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평 활동을 해 보자.

활동 안내

모둠원들 간에 감상을 나누며 공감적·비판적 감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작품 내용에서 공감할 만한 것과 비판할 만한 것을 찾아 그 이유와 함께 적게 한다.
- ② 적은 것을 토대로 모둠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한다.
- ③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억지로 공감과 비판으로 행동을 구분하려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화하면서 유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지도한다.

(1) '유자'의 행동이나 성품 가운데 공감할 만한 것과 비판할 만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공감할 만한 것	비판할 만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유자의 가치관 •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교통사고의 처리를 원만하게 해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남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 • 교통사고 뒤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 • 장례식에서 유자의 행동을 보고 유자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유가족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뒤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2) 앞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하여 <유자소전>에 대한 짧은 비평문을 써 보자.

예시 답안

유자는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업무를 해내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며,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능청맞게 행동하기도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점에서 그는 공감의 대상이면서도 비판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3) 비평문을 모둠 안에서 돌려 읽은 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구분	평가 기준	별점
내용	작품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
	생각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형식	글의 구성이 짜임새를 갖추고 있으며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
	전달하려는 내용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되었는가?	☆☆☆☆☆

유자소전



• 내가 주는 별점: ☆☆☆☆☆

• 한 줄 감상평: _____

QR 코드

〈유자소전〉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유자소전〉은 실존했던 인물인 주인공 유재필의 일대기를 통해 **1** 우리 사회의 한 병폐인 물질만능주의와 몰인정한 세태를 비판한 소설이다. 작가는 한문 산문의 전(傳) 양식을 계승하여 인물의 평생을 다룬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작품이다. 공자, 맹자, 주자와 같이 성에 자(子)를 붙여 크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전통을 이어 주인공을 ‘유자’라 일컫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서술자는 주인공의 남다른 품성과 삶을 높이 평가하여 우러른다. **2** 그 맞은편에는 이기심, 몰인정, 물질주의에 갇힌 사람들을 놓아 ‘유자’의 긍정적 측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하였다. 충남 보령 지역의 방언을 많이 사용하였다.

읽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성석제(1960~)
 소설가. 경상북도 상주 출생. 1986년 《문학 사상》에 〈우리 닮는 사람〉 외 4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본격적으로 소설 창작을 시작한 것은 1995년 《문학 동네》에 쓴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인데, 이 작품 속에 각주를 도입하는 등 낯설고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였다. 이후 특유의 재담과 재치 넘치는 문장을 선보였다. 소설집에 《새가 되었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노래》 등이 있고, 장편 소설에 〈왕을 찾아서〉, 〈단 한 번의 연애〉 등이 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공산도월〉

이문구

〈관촌 수필〉 연작 가운데 다섯 번째 소설이다. 성실하게 살다 젊은 나이에 덧없이 죽은 석공 신현석의 삶을 연민과 통분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있다.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웃과 남을 위해 몸을 버릴 수 있었던, 진실로 어질고 가목한 하나의 구원한 인간상이 내 정신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룬 작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바보형 인물’인 황만근의 삶을 해학적인 문체로 그려 낸 소설이다.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주인공 황만근을 예찬하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작품 감상 연구

❶ 우리 사회의 한 병폐인 물질만능주의와 몰인정한 세태를 비판한 소설이다.

〈유자소전〉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개인 종합 병원의 원무 실장으로 일하던 유자는 가두시위에서 부상당한 노동자들이 병원에 찾아오자 그들을 입원시킬 수 없다는 원장과 대립하게 된다. 입원비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를 병원에 들일 수 없다는 원장에게 맞서, 유자는 ‘책임지겠다’고 하며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다 나은 환자들을 탈출시키는 일까지 마무리를 한 후 사표를 낸다. 서술자는 이 일화를 소개하며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❷ 그 맞은편에 이기심, 몰인정, 물질주의에 갇힌 사람들을 놓아 ‘유자’의 긍정적 측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하였다.

〈유자소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이 사례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재벌 총수이다. 유자는 재벌 총수 밑에서 운전수로 일했었는데, 총수는 사람 몸값을 훌쩍 뛰어넘는 비싼 물고기들을 자택 연못에 키우고, 이 물고기들이 죽게 되자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또 황금 불상을 집 안에 모셔 놓고는 직원들에게 이를 청소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이런 총수의 태도는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인물에게는 정작 몰인정하다고 할 수 있다. 유자는 그런 총수를 끊임없이 에둘러 비판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왜 재벌 총수보다 유자가 나은 인간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왜 유자와 같은 인물이 드문지를 설명한 글이다. 학습자들과 유자의 인품에 대해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실

● ‘유자’의 인간적 면모

노선 상무의 일이라는 게 회사 직원이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여기서 유재필의 인간적 면모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되 성의를 다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재필의 일 처리 방식은 대단히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이다. 그는 경제 논리로 피해자와 협상하는 게 아니다. 유재필은 피해자들을 인정으로 포용하며 정직으로 받아들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만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각별한 예의와 관심을 표명하는 유재필의 행위는 근대인의 그것이 아니다. 관용과 포용의 미덕이 육화된 전근대인의 행위다. 작가가 유재필에게서 보는 건 근대인의 초상이 아니라 전근대인의 초상인 것이다.

— 양진오, 〈인간의 발견, 인간의 애환〉

자료명	관련 성취 기준/작품(작가)
1 구조 이론: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구조	성취 기준 [12문학01-06]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2 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	성취 기준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3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후기	제재 ① 선운사에서(최영미)
4 전(傳)과 소설의 관련 양상-이문구 소설을 중심으로	제재 ② 유자소전(이문구)

1 구조 이론: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구조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문학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가르치는 방법과 의의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구조 이론에서 온 것임을 이해하고, 문학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조 이론은 문학의 형식 및 구조에 대한 관심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구조 이론의 대표적인 형태로 러시아 형식주의, 신비평, 구조주의 비평 등을 들 수 있는데,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해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문화 연구나 학제 간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이론은 문학을 언어적 형식 또는 언어적 구조로 보고 작품에 내재한 문학의 속성, 즉 ‘문학다움(literariness)’을 밝히고 평가하는 비평적 관점이다. 문학 작품을 그 자체로 미적인 자율성의 세계라고 보는 관점이다. 즉 작품을 유기적 구조로 보고, 작가나 시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 이해한다.

이 이론에 따른 비평의 방법은 문학적 언어의 형식적 특성을 구체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시 텍스트에 나타난 비유, 역설, 반어 등의 수사학적 특질을 발견하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운율의 특징과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 플롯이나 시점, 화자 그리고 문체 등에 나타난 서사적 형식 혹은 구조적 특징 검토하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시나 소설 모두 텍스트의 표면뿐만 아니라 의미의 심층 구조를 찾아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분석에 핵심적인 방법은 의미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

구조 이론에 따라 <무진기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진기행>의 구조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는 순수와 속물의 이항 대립 구조가 발견된다. 즉 공간이나 시간 차원에서 그러한 대립 구조가 있고, 또 인물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확연히 나타난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소재도 그러한 면모를 잘 보여 주는데, 특히 편지와 전보의 차이가 그러하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무진 ↔ 서울, 과거(현재) ↔ 현재(과거), 여행 ↔ 일상, 박 ↔ 조, 편지 ↔ 전보

아울러 길의 내적 형식, 즉 여로형 서사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무진이 고향이던 윤희중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문제 상황을 피하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인 무진에 가는데, 그곳에서 하인숙을 만나 삶의 깨달음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는 서사 구조가 특징적이다. 즉 회귀 형식에 따른 여로형의 서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무진→) 서울 → 무진 → 서울

다음으로 <무진기행>의 문체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 문체의 대립 구조도 특기할 만한데, 서두에 보이는 이 소설의 문체는 윤희중의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문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작품의 앞부분에 나오는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결말 부분을 보면,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 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주인공의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읽어 낼 수 있다. 물론 결말에 나타난 주인공의 모습과 문체가 위선적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서두와 확연히 다른 문체를 통해 이 작품이 문체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서두 ←————→ 결말
(수동적 효과, 감성적 태도) ↔ (능동적 효과, 합리적 태도)

이상의 구조 이론의 방법론에 따라 <무진기행>의 주제를 추론하면, 감성적 세계 인식에서 합리적인 세계 인식으로의 이행 과정 및 성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추론하는 활동을 위한 한 가지 수업 방법을 설명하면, 우선 교사는 작품에 대한 정독 이후, 학습자에게 구조 이론의 주요 이론과 특성을 설명한다. 그런 후 학습자가 작품을 다시 읽게 하고 의미 관계의 대립항을 찾도록 해야 한다. 작품의 형식적 특질을 정리한 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론적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형식과 구조의 특징이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바, 이로써 문학 이론 교육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덧붙여 다른 작품에도 해당 이론을 적용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이론 교육의 소임이 완수될 수 있다.

- 정재찬 외, 《문학 교육 개론 1: 이론편》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글이다. 텍스트의 세계와 읽기 주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공감적 수용과 비판적 수용을 단절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흐름과 맞물려 읽기 논의에서도 텍스트 자체보다는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스키마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읽기 이론이 제시한 모형이나 읽기에서 독자의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중략>

사실 독자의 관심사를 살리면서 동시에 작품을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독서는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는 단지 비판도 수동적인 수용도 아닌, '비판'을 포괄하면서 그것을 넘어선 '상호 작용'에 가까운 것이다. 리코어(Ricoeur)가 텍스트에 주체의 유한한 관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자신을 드러내고 텍스트로부터 보다 심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구성해 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텍스트 이해라고 주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평가 기준을 뒤흔들어 놓는 체험에 귀 기울이며 자기가 지금까지 공고하게 지켜 왔던 가치의 기준을 겸허하게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과정에도 당연히 능동적인 '비판'의 계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으로 텍스트를 회의하는 과정이 비판적 이해에 중요함은 물론이러니와 텍스트가 열어 보이는 새로운 세계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줄 아는 분별력 역시 중요하다. 문학 이해는 텍스트의 세계와 읽기 주체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본질적으로 '올림'의 독서로 규정한 논의는 이를 잘 표명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 내의 세계가 일차적 언어 정보로 독자에게 수용되면서 동시에 독자의 삶의 세계와 조응하는,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상징의 층위로 의미가 재생되는 그러한 기제가 바로 올림의 기제인 것이다. 여기서는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이 경계 없이 교섭하고, 허구와 사실이 상상력 속에서 서로 교차하여, 문학적 진실을 빚어내게 하며, 감정 이입과 이격이 감상의 회로 속에서 병존하기도 한다.

- 박인기, 《문학 교육 과정의 구조와 이론》

텍스트가 주는 올림이 긍정적인 면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든 독서 주체에게 작용을 가한다는 측면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 작용의 결과 텍스트의 세계와 독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전망들이 사상(事象)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의 방향으로 융합된다는 특징이야말로 이상적인 문학 이해의 과정을 잘 설명한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활동인 토론에서, 토론을 마친 뒤 원래 입장을 바꾸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상관없이, 토론의 결과로 토론 당사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견해를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상황과 유사하다.

가다머(Gadamer)가 대화와 토론은 그 자체로 이성의 진보를 촉진한다고 본 것도 문학 이해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과 논의의 맥을 같이 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긍정이나 부정이나, 수용이나 거부냐라는 양자택일의 협소한 지평을 넘어서, 독서 주체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과 그러한 상호 작용을 통한 주체의 성장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작품 이해 능력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작품을 일종의 '타자'로서 존중하면서 작품과 능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 우한용 외, 《실용과 실천의 문학 교육》

3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후기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에서>의 작가인 최영미 시인이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초판에 쓴 글이다. <선운사에서>가 이별 후의 솔직한 심정을 덩덤하게 풀어낸 작품임을 고려할 때, 사랑을 비롯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작은 책이 누군가에게 바쳐져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바치고 싶다.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밖으로 내놓을지 몰라 한참을 더듬거려야 했다. 그러다보니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길게 썼노라고 하면 이 너절한 시편들에 대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싸워 본 자만이 좌절할 수 있고 절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대체 내게 그 말을 조금이라도 입에 올릴 건덕지가 있는 건가고 여러 차례 반문해 보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온몸으로 실천하진 않았지만 온몸으로 고민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시대의 격랑에 휩쓸려 만신창이가 된 심신으로, 다가오는 봄을 속절없이 맞아야만 하는 이도 있으리라. 내 시도 그런 대책 없음에서 나온 게 아닌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수렁에 대해, 내 위를 밟고 간 봄들, 바퀴 자국조차 없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 팔자에 대해 운명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날 꿈쩍 못 하게 하는 이 더럽도록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게 애써 차린 화려한 감정의 밥상을 지금 마주 대하자니 얼마간 도로 물리고픈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고통은 이 시들처럼 줄을 맞춰 오지 않고, 아직도 나는 시(詩)에게로 가는 길을 모르므로.

지상에서의 사랑이 어디까지 아름답고 추할 수 있는지 다 보여 주고 떠난 그를 잊을 수 없다. 그동안 몰래 키워 온 내 새끼들, 고독와 욕망과 죄여, 너희들도 이제 내 곁을 떠나 세상 속에 섞이기를, 춥고 어두운 거리를 헤맬 때 내게 친절히 대해 준 모든 이들과 원고 정리를 도와준 분들에게 두루 감사드린다.

-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4 전(傳)과 소설의 관련 양상 - 이문구 소설을 중심으로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조선 시대 전(傳) 양식의 특징과 이문구의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한 글이다. 전(傳) 양식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이문구는 대다수의 한국 작가들이 서구적 문학관에 따라 소설을 상상하고 작품을 쓰고 있을 때 한국적 소설의 특성과 현대적 계승의 가능성을 모색해 온 독특한 작가이다. 그는 소설을 서구의 ‘노블’이 아니라 전통적 ‘소설(小說)’의 관점에서 창작하여 ‘수필(隨筆), 전(傳), 유사(遺事), 만필(漫筆)’ 등 전통 서사의 하위 양식의 현대적 변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중략>

2. 전(傳) 양식의 변천과 소설화 양상

전(傳)은 입전 인물의 인간적 가치와 미덕을 특별한 예화를 통해 부각시키되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서사 양식으로, 대체로 ‘인정 기술(人定記述) - 행적부 - 논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인정 기술은 입전 인물의 가계·신분·성명·거주지와 관련된 서술을 말하고, 행적부는 인물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뜻하며, 논찬은 주관적 의론문(議論文)의 성격을 띤다. 전(私傳)은 공적 장르로서의 ‘사전(史傳)’과 달리 “그 선행과 미덕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신분 때문에 혹은 그 불우한 처지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인멸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연민’ 혹은 ‘보상’의 장르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전의 서술 형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여러 개의 일화를 나열하여 주인공의 인간상과 개성을 부각시키는 ‘삽화적 유형’이다. 이 일화는 다소 산만하고 비유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이 인물의 미덕을 입

증하는 데 기여하는 내적 인과 관계를 유지한다. 이와 달리 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유기적 유형’도 있다. 이 유형은 장면과 장면, 사건과 사건이 인과성 및 시간적 계기성에 따라 연결되고, 인물의 개성은 이야기를 통해 포착되며, 인물과 환경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빚어질 경우 소설에 접근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전이 다루는 인물 유형에 급격하고 뚜렷한 변화가 포착되고 허구적 요소 또한 증가한다. 영웅·위인과 충신·열사는 여전히 전의 주요 대상 인물이지만, 거지(〈광문자전(廣文者傳)〉)·농민(〈양사룡전(梁四龍傳)〉), 기생(〈심홍소전(沈紅小傳)〉), 상인(〈가수재전(賈秀才傳)〉), 사기꾼(〈이홍전(李泓傳)〉) 등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다루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흥미적 요소가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이 기본적으로 사실 재현에 충실한 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전에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하는 계기는 설화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작가의 상상력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작품에서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섞여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충신열사의 인격적 고매함을 다루기 때문에 그 문체가 대체로 “엄숙 장중하고 숭고하며 간직(簡直)”한 특징을 보이던 전이 “경쾌 발랄, 비리(鄙俚), 섬려 곡진(纖麗曲盡), 감각적, 풍자적 문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흥미롭다. 이러한 문체는 “야담이나 한문 소설의 문체와 상통하거나, 적어도 대단히 근접”한 것으로, 조선 후기 유행하던 ‘패사 소품체’의 영향 탓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체의 변화는 “하층민에 대한 관심, 활발한 설화 수용을 통한 하층의 언어와 발상법의 섭취, 허구적 상상력의 개입, 흥미 추구, 인물 개성의 부각 등 이 시기 전(傳)이 보인 제반 변모의 언어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 후기의 전은 점차 소설화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박희병이 제안한 ‘전계 소설(傳系小說)’은 “전(傳)의 전통 속에서 창작되었지만 장르 운동으로 인해 전보다는 소설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갖게 된 작품”으로 작품의 갈등 구조, 인물 구성 방식, 기치 구현 방식, 서술 시점, 상상력, 플롯 등 여러 측면에서 소설적 서술 원리가 서사의 골간을 이룬다. 〈중략〉

3. 이문구 전계 소설의 특징

이문구는 동년대 ‘한글세대’ 작가와 달리 서구 문학이 아니라 “껌테기가 울긋불긋한 이야기책”, 즉 ‘전’과 전통적 의미의 ‘소설(小說)’을 자신의 문학적 원천으로 삼는다. 그의 등단 추천작인 〈백결〉을 비롯해 〈이풍헌〉, 〈김탁보전〉 등 초기작에서부터 그 편모를 보이기 시작해 《관촌 수필》, 〈변 사또의 약력〉, 〈강동 만필〉, 〈명천 유사〉, 〈유자소전〉에 이르기까지 이문구 소설의 핵심적 서사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로 전 양식의 변용이다. 전 양식이 한 인물의 됃됨이와 덕성을 여러 일화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의 글쓰기라면, 〈백결〉의 주인공은 신라 시대의 ‘백결’이 아니라 혼혈아를 데려다 키우는 ‘조춘달’ 영감인 데다 그의 따뜻한 심성보다 주변 인물의 사기꾼적 처신이 초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전 양식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이풍헌〉 역시 ‘이풍헌’의 인간적 미덕보다 억지 양자로 들인 ‘한삼이’의 강인한 생명력이 강조되고 있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 전통적 전 양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김탁보전〉은 제목부터 전통적 전 양식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서사의 중심도 김탁보와 관련한 이야기로 시종하고 있지만, 그가 무식하고 몰염치한 데다 비겁한 술주정뱅이로 성격화된 것은 조선 후기 〈광문자전〉이나 〈이홍전〉 또는 식민지 시대 김유정 소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런 점에서 〈백결〉, 〈이풍헌〉, 〈김탁보전〉 등은 이문구 전계 소설의 두 유형의 특성을 예시적으로 보여 준다. 그 하나는 사표(師表)로서의 입전 인물의 따뜻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예

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루한 기생충적 인물의 동물적 생존력이 강조되는 경우이다. <백결>, <관촌 수필>, <변 사또의 약력>, <유자소전>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풍헌>, <김탁보전>, <강동 만필> 연작 등은 후자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문구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은 거개가 노동자, 농민 등 신분적으로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따뜻하고 순박한 심성을 지닌 이들이다. 인간의 심성이 근본적으로 착하고 순수하다고 믿는 작가의 관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관촌 수필>은 이문구 전계 소설의 방향과 특질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유자소전>은 전 양식의 서술 원칙과 특질을 가장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인정 기술로 시작하여 그의 평생 행적을 일화 중심으로 나열한 뒤 주변 사람과 작가 자신의 논찬으로 종결된다. 이런 정통적 전 양식의 재현은 이문구 소설에서도 특별한 예외에 속하는데, 실제로 작가가 ‘유재필’을 회고하는 어조는 대단히 경건하고 엄숙하여 외경의 감정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문구 특유의 해학과 익살이 곁들여져 자칫 경직되거나 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俞裁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중략>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은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독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인용이 다소 길어졌지만, 이문구 전계 소설의 특질을 이 부분은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전통적 전 양식이 객관적 시점으로 쓰여졌다면 이문구 소설은 대체로 일인칭 화자의 주관적 시점으로 서술된다. 다시 말해 윗글에서 ‘유재필’의 인격적 품성과 재능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이해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성격 제시는 화자의 직접적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인물의 특이한 언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자가 친구를 ‘유가(俞哥)’가 아닌 ‘유자(俞子)’라 성인 대접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가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라는 점에 있다. 인정 많고 이타적이며 희생정신과 의협심이 강한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은 이문구 전계 소설을 지배하는 일관된 가치로 ‘웅점이’(<행운유수>)와 ‘신석공’(<공산토월>)에게서 가장 선명한 개성으로 부각되고, ‘최 서방’(<명천 유사>)과 ‘변 사또’(<변 사또의 약력>)의 숨겨진 덕성도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작가가 ‘유자(俞子)’라 존칭하여 부르는 ‘유재필’의 사람됨은 그가 어느 재벌 그룹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그룹에 속한 모든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노선상무’가 된 이후의 행적에서 단연 빛난다. 그는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부정한 승리, 부당한 패배가 있을 수 없도록” 노력하면서도, 형편이 딱한

스페어 운전수 가족에게는 사비로 쌀과 연탄은 물론 굴비 두름 같은 밑반찬까지 들어 주는 인정과 의리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고를 처리하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여러 업무와 지식을 소상히 익혀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과 솜씨를 발휘한다. 그는 자동차 사고 뒷처리와 관련된 여러 계층의 인물들, 이를테면 검·경찰과 법원, 병원, 보험 회사, 장의사와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어디를 가나 교통순경이 먼저 경례를 붙이고, 경찰서마다 말이 통하는 이”가 있고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너나들이를 하고 지내는 의사가 있고 원무 실장”이 있어 실질적 도움을 주며 비석 공장 같은 데서도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석수”를 만날 정도로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베풀며 지낸다. 것처럼 원만한 인격과 뛰어난 일처리 솜씨를 지닌 그가 만년 과장으로 굳어진 까닭은 한때 좌익에 참여했다 처형당한 선고(先考)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다. 하지만 ‘유자’는 부친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모실 때 “현고 남조선노동당 홍성군당위원장 신위”라 당당히 밝힌다.

작가는 그의 생애를 “고독하고 고단한 삶”으로 요약한 뒤 “술과 독서와 그리고 남에 대한 봉사의 즐거움으로써 시름을 잊고 애달픔을 삭였다”고 술회하는데, 이러한 진술의 이면에는 ‘유자’와 처지가 너무도 비슷한 자신에 대한 연민과 동류의식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화자와 ‘유자’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까닭이 그가 사회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소신이 분명한 어른이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4. 나가며

이문구가 ‘만필, 수필, 전’ 등과 같은 고전적 서사 양식을 선호한 까닭은 인물 이야기가 서사의 기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농촌 공동체 사회에서와 다르게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의 정보와 지식을 즉각적으로 입수하는 게 가능해진 산업화 시대에 ‘가공의 현실’보다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교훈을 전달하려는 발상의 전환은 대단히 시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문구 소설은 서구 소설(novel)과 한국 서사(소설, 전)의 특질이 조화를 이뤄 만들어 낸 새로운 양식의 실험이어서 우리 소설의 방향을 시사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영우, <전(傳)과 소설의 관련 양상-이문구 소설을 중심으로>

정리와 점검

정리하기

활동 안내

문제에 ○X로 답하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정답에 따라 색칠을 하고 나면 판다 모양이 나타나도록 구성하였다.

지도 방법

개별 활동, 짝 활동, 모둠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가능하다.

-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오역스(○, X)문제를 풀어 보고, ○에 해당하는 문제 번호를 오른쪽 표에서 찾아 모두 색칠해 보자.

예시 답안

번호	문제	○ X
1	내용과 형식이 어울리지 않으면 작품의 완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2	문학 작품의 내용에는 주제, 사건, 배경, 구성, 문체 등이 포함된다.	X
3	<선운사에서>는 사랑의 속성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
4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이 중심이므로 형식에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X
5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이지 비판이나 새로운 해석이 아니다.	X
6	<유자소전>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남다른 품성을 지닌 주인공을 기리는 작품이다.	○

※ 색칠을 하고 나서 그 모양이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확인해 보자.

2	3	6	6	4	2	4	5	4	2	4	6	6	3	2
1	6	6	6	1	5	6	1	6	5	1	3	3	3	1
1	1	3	1	3	3	3	6	1	3	3	1	3	1	1
1	3	1	3	5	2	2	5	4	4	2	3	1	3	1
6	6	3	2	4	2	4	4	2	5	5	2	3	6	6
3	1	2	2	3	3	5	2	5	3	3	2	2	1	3
6	3	5	6	1	1	4	5	2	1	1	6	5	6	6
1	5	4	3	6	1	2	5	4	6	6	1	5	2	3
3	5	2	3	5	6	2	4	4	3	2	1	5	2	1
3	4	5	1	4	6	4	5	4	6	5	1	2	4	3
1	2	4	1	3	3	5	6	5	6	3	1	4	5	6
6	4	2	4	5	2	1	3	1	4	4	5	4	2	6
6	6	5	5	4	2	4	5	4	2	4	4	2	3	1
4	6	3	3	2	2	2	5	2	2	2	3	6	6	2
5	5	2	3	3	6	1	6	6	3	1	1	5	4	5

• 동물: 판다



인상 깊게 읽은 구절

예시 답안 생략



더 알고보고 싶은 점

예시 답안 생략

점검하기

활동 안내

학습자 스스로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점검 내용에 따라 이후의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자신의 학습 이해도를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라고 판단한 학습자의 경우, '읽의 마당'과 함께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점검하기

• 내용과 형식을 함께 살피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교과서 46~63쪽

• 문학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태도로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다. (😊😐😞) → 교과서 54~63쪽

•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교과서 46~63쪽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학습 목표

-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
-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의 갈래는 문학을 내용과 형식의 일정한 기준, 즉 문학 작품의 특성을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문학의 갈래를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표현 양식에 따라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눌 수 있다. 문학 갈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 작가와 독자,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사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 소단원 지도 방향과 유의점

이 단원은 문학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적극적으로 감상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문학의 주요 작품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고, 나아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경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각각의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작가, 독자, 사회·문화적 배경, 문학사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각 열기

활동 안내

각 선물이 전달되는 맥락을 정해 보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지도 방법

- ① 이미지로 제시된 각 선물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좋을지 구체적 맥락을 스스로 설정해 보도록 지도한다.
- ②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게 한 뒤, 이를 문학 감상의 다양한 맥락과 관련지어 마무리한다.


◎ 다음 선물들을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언제, 누구에게 선물하면 좋을지 말해 보자.



- 예시 답안** • 생일인 친구를 축하하는 상황에서 케이크를 선물해 주면 좋겠어.
• 시험을 앞둔 선배를 응원하는 상황에서 찹쌀떡을 선물해 주면 좋겠어.

읽의 마당

내용 연구


 **문학의 기본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로 구분할 수 있다.**

서정 갈래는 고대부터 노래의 형태로 발생하여 노래로 발전해 온 갈래로 ‘노래하기’가 본질이다. 현대시는 낭송 또는 묵독의 방식으로 감상되고 있지만, 서정 갈래의 본질은 여전히 ‘노래하기’에 있다고 보는 시인과 연구자가 많다.

서사 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하기’가 본질이다. 서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서술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서사 갈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극 갈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현재적으로 보여 준다는 ‘보여 주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극 갈래는 연극,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의 대본이면서 문학 작품이다.

교술 갈래는 개인의 실제 체험을 다루고 경험한 사실을 서술, 전달하는 ‘알려 주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와 작품 속 자아가 일치하며 자아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 작품이 창작된 때나 수용될 때의 ~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과 문학 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문학에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생산과 수용이 그것이다. 생산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작가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 생산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이는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에게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작가 주체의 선택·배제 과정을 거쳐 텍스트 생산에 작용한다. 수용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독자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 수용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독자가 문학 텍스트와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독자 주체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 의해 선택·배제되어 텍스트 수용에 작용한다.

☆ 핵심 강의

● 문학의 기본 갈래와 역사적 갈래

문학의 기본 갈래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 갈래

예 서정, 서사, 극, 교술

문학의 역사적 갈래

민족과 시대에 따라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문학 작품 갈래

예 향가, 고려 속요, 시조 등

● 서정 갈래의 특성

- ①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 ② 비유와 상징 등을 이용하여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 ③ 운율 등을 활용하여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노래하기’의 갈래

● 서사 갈래의 특성

- ①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전달한다.
- ②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도 작가의 상상이 더해진 허구의 이야기이다.
- ③ 소설의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기'의 갈래

● 극 갈래의 특성

- ① 서술자가 없다.
- ②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 ③ 사건을 현재적으로 표현한다.

'보여 주기'의 갈래

● 교술 갈래의 특성

- ① 개인의 실제 체험을 다루고 경험한 사실을 서술, 전달한다.
- ② 작가와 작품 속 자아가 일치한다.
- ③ 자아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

'알려 주기'의 갈래

● 문학의 주요 맥락



① 작가 맥락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 또는 작가가 생산한 문학 전체 등과 문학 작품의 관계

㉞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작가의 일본 유학 생활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② 독자 맥락
독자의 취향이나 가치관 또는 독자가 처한 상황 등과 문학 작품의 관계

㉞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표현에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③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 작품이 창작된 때나 수용될 때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문학 작품과 이루는 관계

㉞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어둠'은 일제 강점기였던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것이다.



④ 문학사적 맥락
문학사와 문학 작품의 관계

㉞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일제 강점기의 '저항시'로 평가된다.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문학의 갈래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문학의 갈래에 대한 심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문학의 갈래

• 문학 양식과 큰 갈래

문학의 양식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능성에 대한 문예학적 명칭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서정적’, ‘서사적’, ‘극적’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된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법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고, 역사 철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서정은 주관적인 것, 서사는 객관적인 것, 희곡은 주관과 객관이 합일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읊조린다든지, 등장인물의 행위를 통해 보여 준다든지, 이야기를 말해 준다든지 하는 일종의 제시 방법이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문학 양식으로 서의 서정적 양식·서사적 양식·극적 양식이 각각의 표현 범주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술적인 형태와 그 제시 방법의 면에서 본다면, 서정적인 것에는 사건이 없지만 서사적인 것이나 극적인 것에는 사건이 있고, 극적인 것은 무대에서 공연되지만 서정적인 것이나 서사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기준 등이 첨가된다. 또한 수필 같은 종류의 문학이 이 셋 중 어느 것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난점이 지적되기도 하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 형태를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기 힘든 경우도 없지 않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은 갈래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온 문학을 세 가지 큰 갈래로 묶어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 문학 장르와 작은 갈래

문학에서 서정 양식, 서사 양식, 극 양식이라는 세 가지 큰 갈래는 각 시대와 여러 문화에 걸쳐 가장 보편적이며 지속적인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 사회·문화적 범위가 매우 넓다. 이들 문학 양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하위 역사적 장르로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 문학사에 등장한다. 문학 양식의 하위 부류에 해당하는 장르는 문학의 사회·문화적 또는 역사적 실체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작은 갈래의 문학 형태를 말한다. 문학의 장르는 그 소재와 형식의 구성 방법에 따라 각각의 특징이 규정된다. 이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변화하며,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그 형태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사회사적인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문학의 하위 장르의 개념과 속성은 보편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그 장르가 존재하였던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해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학의 하위 장르의 범주와 그것들이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양상은 문학사 연구에서 특정 시대의 문학적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요소다.

문학의 작은 갈래는 특정한 나라나 시대의 문학을 바탕으로 한 개별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작은 갈래에 속하는 여러 가지 문학 형태는 특정 언어를 매체로 하여 특정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구체적인 문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본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문학의 큰 갈래로 묶이게 된다.

- 권영민, 《문학의 이해》

1 향수

■ 작품 선정의 취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정 갈래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이미지의 사용과 후렴구의 반복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어 서정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객지에서 생활하는 작가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문학의 작가 맥락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재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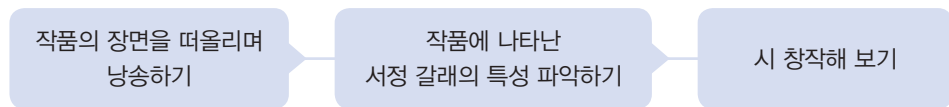
이 작품은 작가가 1923년 3월에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
제재	고향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②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를 보임. ③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구사함.

■ 구성 한눈에 보기

1연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
2연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
3연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5연	단란한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

■ 지도 방법



- ① 작품의 전개와 내용을 이해하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파악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② 운율 요소와 표현상 특징을 이해하고, 서정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 ③ 작가 연보를 보며 작가 맥락을 참고하여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개인의 경험을 떠올리며 서정 갈래의 특성에 맞게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작가 소개



정지용 (1902~1950)

시인. 충청북도 옥천 출생. 순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시를 많이 썼다. 한국 현대 서정시의 대표 시인이다. 시집에 《정지용 시집》, 《백록담》 등이 있다. 정지용은 1930년대에 이미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당시의 시단(詩壇)을 대표했던 시인이었다. 김기림은 “한국의 현대시가 지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의 시는 크게 세 시기로 특징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첫 번째 시기는 1926년부터 1933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미지를 중시하면서도 향토적 정서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을 개척하였다. 특히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다듬은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향수〉가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두 번째 시기는 《가톨릭 청년》의 편집 고문으로 활동했던 1933년부터 1935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여러 편의 종교적인 시들을 발표하였다. 〈그의 반〉, 〈불사조〉, 〈다른 하늘〉 등이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36년 이후로, 이 시기에 전통적인 미학에 바탕을 둔 자연시들을 발표하였다. 〈장수산〉, 〈백록담〉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자연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하여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산수시(山水詩)라고 불리기도 한다.

-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정지용 시인이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지용 시인의 시 세계에서 두드러지는 면을 설명한 글이다.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자료실

● 시인 중의 시인 정지용

한국 현대시 사상 기념비적인 시인 중의 한 사람인 정지용은 1930년대 문학의 주요 흐름 어느 곳이나 그늘을 드리우면서도 역량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정 집단 속에 잘 꿰어 맞춰지지 않는 시인이다. 그의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향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중국과 만주를 오가며 익힌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약상을 경영하며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느닷없이 밀어닥친 흉수로 가세가 기울면서 정지용은 옥천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때 4년 가까이 산천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몸으로 겪은 고향의 갖가지 풍습은 감수성 짙은 그의 소년기에 깊이 각인되어 문학에 대한 꿈으로 익어간다. 정지용은 1918년 4월 휘문고보에 입학하는데, 당시만 해도 웬만큼 부유한 집이 아니고서는 서울 유학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뛰어난 재기를 눈여겨본 가까운 친지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서울 유학이 실현된 것이다. 〈중략〉

정지용은 휘문고보를 졸업한 뒤 1923년 4월 장학생으로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예과에 들어간다. 1926년 유학생 회지 《학조》 창간호에 그는 〈카페 프란스〉, 〈슬픈 인상화〉, 〈파충류 동물〉을 비롯해 시조와 동요 등을 발표, 다양한 문학의 가능성을 시험한다. 〈중략〉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 화가

다음은 객지에서 생활하는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서정 갈래의 특성과 이 시가 놓인 맥락을 살피며 감상해 보자.

향수 鄉愁 정지용

1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해설피: 새 풀 무렵 햇빛이 온가나 약한 모양을 의미하는 방언(울릉).
*식근: 식근(물건의 사리가 된)의 변형.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2 질화료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길 배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3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물설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4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길 같은
잠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애틀 것도 없는
사철 밭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5 하늘에는 '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밭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효릿한 불빛에 들어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1902-1950)

시인. 손우리광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시, 자연을 탐구한 시,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적인 시 등을 많이 썼다. 시집에 《창지용 시집》, 《백옥담》 등이 있다.

읽기 전에

지도 방법

- ① 학습자들에게 서정 갈래에 대해 알고 있는 특성을 말해 보게 한다.
- ②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작품을 썼을지 추측하게 한다.
- ③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 시어나 시구를 찾아보게 한다.

◎ 다음은 객지에서 생활하는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서정 갈래의 특성과 이 시가 놓인 맥락을 살피며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향수〉를 감상하면서 서정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작가 맥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본문 연구

1연 |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

화자는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 기억 속의 고향은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고 실개천이 흐르고 황소가 울음을 우는 곳이다.

1 넓은 벌 동쪽 끝으로~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 작품은 각 연이 '-곳'으로 끝나고 있는데, 1연에서는 청각(황소의 울음)을 금빛으로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고 있다.

2연 |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

화자는 겨울밤 고향의 풍경과 늙은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2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은 시간의 경과로 밤이 깊어가는 것을 보여 준다.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바람 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3연 |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화자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3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파아란’은 운율적 효과를 주기 위해 기존의 문법적 질서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시적 허용에 해당된다. ‘파아란 하늘빛’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화자가 유년 시절 가졌던 꿈, 이상, 소망에 대한 동경을 뜻한다. 또한 ‘함부로 쓴 화살’을 찾는 행위는 꿈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으로 유년기의 순박한 꿈과 소망을 뜻한다.

4연 |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화자는 어린 누이와 소박한 시골 아낙네의 모습을 한 아내를 떠올리고 있다.

4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발물결 같은~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전설 바다’는 신비한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비유한 말이다. 누이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아내는 꾸밈없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철 밭 벗고 노동하는 모습이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라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5연 | 단란한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

화자는 고향 마을의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5 **서리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서리까마귀’는 계절이 가을임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초라한 지붕’과 ‘흐릿한 불빛’을 통해 가난한 고향 마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풍족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연	대상	배경	화자의 정서
1연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넓은 벌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
2연	늙으신 아버지	겨울밤, 방 안	밤바람 소리 들려오던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 지에 대한 그리움
3연	내 마음 (어린 시절의 '나')	풀섬 (풀숲)	순수하고 맑은 동심을 지녔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4연	어린 누이와 아내	들판	소박하고 정겨운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
5연	가족들	늦가을, 방 안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

● <향수>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와 효과

감각적 심상	표현	효과
시각적 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개천 • 얼룩빼기 황소 • 파아란 하늘빛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 석근 별 • 흐릿한 불빛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함. •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킴.
청각적 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 •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 도란도란거리는 	
촉각적 심상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빛 게으른 울음(청각의 시각화) •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청각의 시각화) 	

● 후렴구의 기능

후렴구	기능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과 연을 구분함. •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함. •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시키고, 강조함.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항수〉 속 시어 중 충청도 방언에 해당하는 표현이 주제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한 글이다. 작품의 시어에 대한 심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의 의미

이 시의 첫 연에 “얼룩빼기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얼룩빼기 황소’를 젖소처럼 검고 흰 모습으로 연상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이 구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해설피’라는 말이다. 김재홍 교수가 펴낸 《시어 사전》에 바로 이 단어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그 뜻을 “해가 질 무렵”이라고 적어 놓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지용(情意的)인 부사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구슬프게’라든지 ‘별 뜻 없이’ 등의 의미로 보는 경우이다.

‘해설피’라는 말은 ‘해가 질 무렵’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충청도 지방에서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있다. 저녁 무렵에 외출하려고 한다든지, 발이나 눈에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해설핏한테 어디 가느냐?” 또는 “해설핏한테 내일 하지.”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해설핏하다’는 말은 ‘해+설핏하다’로 보아야 한다. 《국어대사전》에는 ‘설핏하다’가 ‘해의 밝은 빛이 약하다.’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해설피’는 ‘해가 설핏하다’는 말을 놓고 정지용이 새로이 만들어 낸 조어일 가능성도 있고, 이 같은 합성어가 실제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설피’의 의미를 시간적인 부사어로 보면, 다음에 연결된 ‘금빛’이라는 말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연상된다. 해 질 무렵의 저녁노을 속에서 황소가 길게 울음을 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의 다른 시 작품 가운데 ‘설핏하다’는 시어를 사용한 사례가 하나 있다. 다음 시의 마지막 연에 나오는 ‘산그림자도 설핏하면’이라는 구절이다. 해가 지기 시작하여 산그림자가 어둑해지는 순간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 시구를 함께 보면 ‘해설피’의 근원을 헤아리는 데에 도움이 될 듯싶다.

골짜에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누리가 소란히 쌓이기도 하고,

꽃도
귀양사는 곳,

절터더랬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그림자도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정지용, 〈구성동(九城洞)〉

-권영민, 〈정지용의 〈항수〉-‘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의 경우〉

활동 안내

작품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중심으로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②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각 연이 후렴구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함께 지도한다.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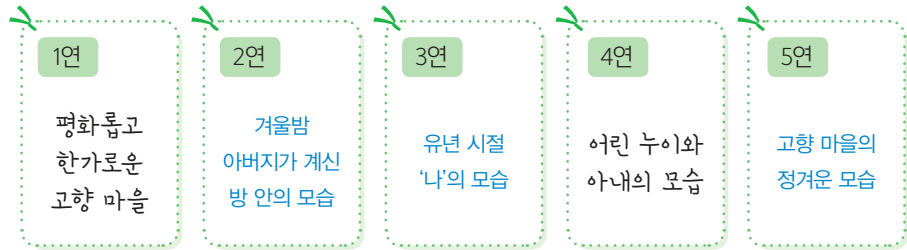
시의 구성 요소 가운데 운율을 만드는 요소를 파악하고, 시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표현 효과를 정리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운율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므로 시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작가는 시어 단위로 크게는 통사 구조 및 행과 연 단위로 확장하여 찾도록 지도한다.
- ②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떤 형식을 통해 시의 내용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지도한다.
- ③ 이를 통해 서정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1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QR 코드 정지용 연보

자료 활용 이 자료는 1910년대부터 1950년대 이후까지 작가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작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이 작품을 감상하며 서정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이 작품을 소리 내어 읽고, 운율을 만드는 요소를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 매 연의 마지막에 '곳'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고, ~는 곳'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가 반복되는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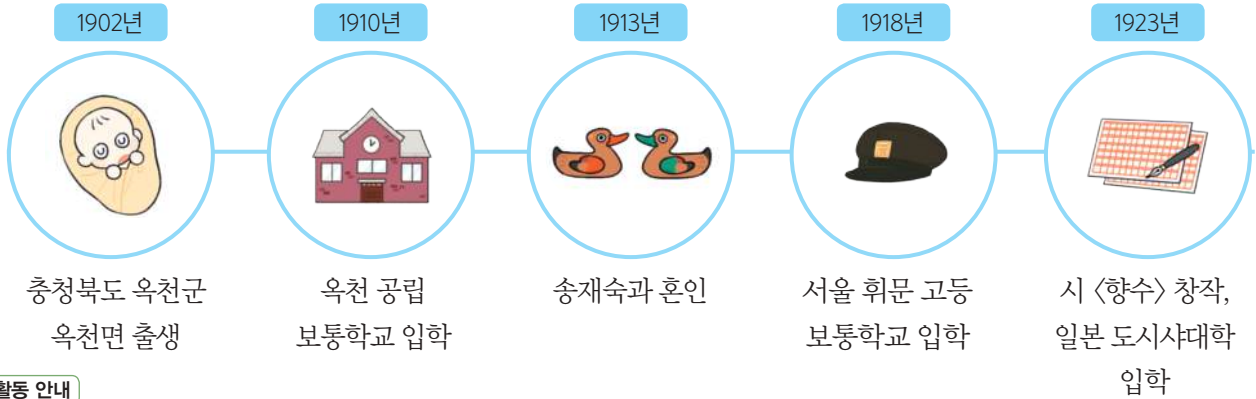
(2) 다음 구절들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표현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3 다음은 이 작품을 창작한 1923년까지 작가의 연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활동 안내

작가의 연보라는 작가 맥락을 통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연보를 본 뒤 작품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해 보도록 지도한다.
- 연보와 관련하여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이유를 추측해 보도록 지도한다.

활동 안내

학습자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담긴 사연을 중심으로 시를 지어 보며 그리웠던 순간을 추억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찍은 사진인지 구체적 맥락을 떠올려 보도록 지도한다.
- 연과 행을 나누어, 서정 갈래의 다양한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를 지어 보도록 지도한다.

(1) 연보 가운데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작가는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을 떠나 1918년 서울에서 휘문 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했고 1923년에는 일본 도시샤대학에 입학한 것에서,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2)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에 작가가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고,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짐작하여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작가는 오랜 타지 생활로 오랫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고향을 떠올리며 <향수>를 창작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것이다.

4 어린 시절의 사진 하나를 찾아, 그 사진에 담긴 사연을 중심 내용으로 시 한 편을 지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어린 시절의 사진

사진을 보고 지은 시

향수



• 내가 주는 별점: ☆☆☆☆☆

• 한 줄 감상평: _____ 

QR 코드

〈향수〉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향수〉는 월간 종합 잡지인 《조선지광》(1927년 3월 호)에 발표되었는데, 작가는 4년 전인 1923년 3월에 완성했다는 사실을 작품 끝에 밝혀 놓았다. ❶ 작가가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에 진학한 것은 1923년 4월이므로, 〈향수〉는 그 직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사는 고향을 떠나 혼자 객지에서 생활하는 외로운 청년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❷ 여러 가지 형식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간 일반이 공유하는 것인데, 이 같은 보편성이 이 작품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시가 되게 한다.

역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이시영(1949~)
시인. 전라남도 구례 출생.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월간 문학》 신인 작품 공모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에 《만월》, 《바람 속으로》, 《길은 멀다 친구여》, 《무늬》 등이 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옛이야기 구절〉

정지용

열네 살 때부터 집을 떠나 살던 화자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가족에게 고달픈 객지 생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의 시이다. 아버지, 어린 누이, 아내 등 〈향수〉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모두 등장한다.

기름불은 깜박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대던 어린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웃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태도가 유사한 작품

〈고향 생각〉

이시영

전라남도 구례 출신의 작가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전문 4행의 짧은 시이다. 아름다운 고향의 봄 정경을 떠올리며 “그런 고향 다시는 없으리”라고 맺어 간절한 향수를 드러내었다.

봄이 오면
자운영 장다리꽃 피고
탱자꽃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고향 다시는 없으리

**작품 감상 연구**

1 작가가 일본 교토의 도시사대학에 진학한 것은 1923년 4월이므로, <향수>는 그 직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고향 옥전은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가난하지만 애뜻하고 아름다운 유년의 기억이 살아 있는 곳이다. 작가는 학업을 위해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으므로 이 작품을 창작했을 당시에 작가의 마음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근대에서 비롯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2 여러 가지 형식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작가는 고향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토속적 시어의 사용, 후렴구의 반복 등 여러 가지 수사적 장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향수>의 고향은 작가의 개인적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초적 감성을 자극하는 보편적 대상이 되어 이 시를 명시로 느끼게 한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고향'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실

● 1920~1930년대 모더니스트 시인들에게 고향의 의미

우리 시단에서 영원을 상실한 근대의 운명을 지닌 1920~1930년대 모더니스트 시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원초적 대상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고향'이다. 식민지 시대에 고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가령 고향 상실을 국권 상실의 상징적 의미로 읽는가 하면, 타향에 대한 대타적 의미라든가 일탈된 근대적 자아의 자기 확신 수단으로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난 유이민들의 슬픈 체험이나 근대화된 일본의 도시로 진출한 유학생들의 향수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략>

1930년대 우리 시단에서 고향은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되어 의미 부여되었다. 가령, 고향을 상실의 대상으로 본 운동주나 비판과 반성적 사유로 인식한 오장환, 그리고 피폐의 대상으로 본 이용악, 영원한 합일과 그에 따른 신비적 대상으로 파악한 백석 등이 그 본보기들이다. 이들 외에도 김기림이라든가 박용철 등 많은 시인이 고향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들의 고향 의식은 상실에 따른 내밀한 욕구의 표현이거나 혹은 현실의 의미망 속에서 생성된 부정적 시각의 표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대의 불안이나 여기서 파생된 분열을 제어하는 자기 확신의 수단으로 고향이 차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다.

- 송기한, <정치용의 <향수>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엮어 읽을 작품'에 제시된 <옛이야기 구절>을 <향수>와 관련지어 설명한 글이다. <향수>에 대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옛이야기 구절> 해석

<옛이야기 구절>은 마치 정지용에게서 김소월의 작품을 보는 듯 하다. '집 떠나가 배운 노래'며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이라고 한 표현이, 노래와 사실 같은 구전에 의지한 진술이라는 측면에서 닮았다. 그리고 '고달팠다'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이야기가 '슬프'고 '어머니의 눈물'을 강조한 것은 정지용답지 못하게 감상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자신의 타향살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족과 친지와 '동네 사람들'의 풍경을, '큰 독 안에 실린 슬픈 물같이 속살대는 이 시골 밤'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감각 묘사 측면에서 성공적이다. <중략>

반면 앞선 <향수>는 <옛이야기 구절>의 '슬픔'이나 '고달픔'과는 다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개인과 가족 공동체 간의 유대가 보장된 자족적인 충만감으로 가득 찬 세계", 즉 '유토피아'로 그려 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나중 작품들, 즉 이 <옛이야기 구절> 같은 경우 고향 상실의 '디스토피아'로 나아가는 경향이라며, 두 작품이 다르다고 보는 편이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2년의 짧은 시간적 간격 때문인지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아, 본 연구자는 그 점에 주목하고, '이미지 겹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중략>

종합하면, 이 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 혹은 제목의 <옛이야기 구절>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상호 텍스트인 <향수>와 더불어 놓고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설'과 '지출대는 옛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 시의 정황상 마을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옛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도, 결국 시적 화자 '나'와 가족, 친지,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주고받는 '이야기'의 주체란, 고향을 떠나 '나'가 혼자 어찌 살고 있는가, 고향에 같이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고향에서 그 옛날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구전된 이야기'가 지닌 '공동체적 독창성'이다.

그 이야기는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이며 "고달프게" 살다 보니 "노래"로 배웠다고 언급하며,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간 이야기"라고 밝힌다. 이 마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적 화자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며, 고향을 떠나 서울이든 일본이든 타향살이하며 슬픔을 지닌 '모두'를 뜻한다. '이야기'란 이렇게 '지출대'고 '속살대'는 구전을 통해 사적인 것을 넘어 공동체적인 '노래'의 경지에 이른다. <향수>와 <옛이야기 구절> 두 편의 시에서 '묘사적 이미지'는 일차적으로 고향의 모습이며, 결국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밤새워 '꿈'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적인 '육망'에 대해 의인화된 '비유적 이미지'이기도 하다.

- 정원술, <어린 누이의 귀밑머리는 왜 '전설(傳說)' 바다의 밤물결인가?>

자료 더하기



도시샤대학의 정지용 시비



일본 교토의 도시샤[同志社]대학에는 이 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정지용과 그의 후배인 윤동주를 기리는 시비가 나란히 서 있다. 정지용 시비에는 도시샤대학에서 멀지 않은 가모가와[鴨川] 강가의 쓸쓸한 풍경 속에 선 청년의 외로움과 시름을 노래한 시 〈압천〉이 한글과 일본어로 새겨져 있다.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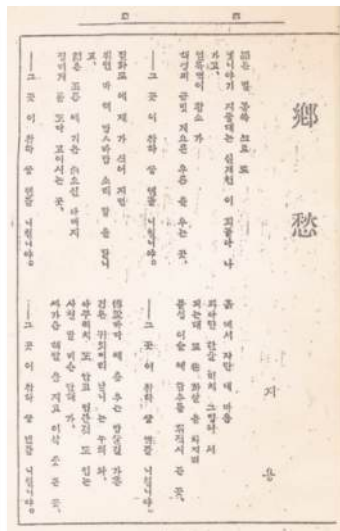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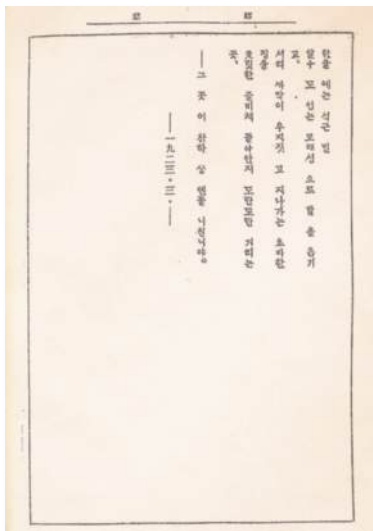
이 자료는 시인 정지용이 유학했던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에 있는 정지용 시비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는 작가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1922년 11월에 창간한 종합 월간지 《조선지광》에 실린 〈향수〉를 소개하는 내용과 사진이다. 당시에 글을 적는 세로쓰기 방식과 지금의 맞춤법과는 다른 표기 방식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조선지광》에 실린 〈향수〉



정지용은 1927년에서 1930년에 걸쳐,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향수〉와 〈유리창〉을 비롯하여 모두 22편의 작품을 《조선지광》에 발표하였다. 《조선지광》에 실린 〈향수〉를 보면, 지금의 맞춤법과는 표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탈고한 연월을 당시 흔히 쓰던 일본 연호가 아니라 서기로 적은 점도 눈길을 끈다.

2 장마



QR 코드 <장마> 줄거리 애니메이션

자료 활용 학습할 제재의 전체적인 줄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작품 구조를 인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작품 선정의 취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사 갈래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인물, 사건, 배경, 시점 등이 뚜렷하고 서사의 중심에 갈등이 놓여 있어 서사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우리 전통의 민속 신앙이 작품 구성 요소로 기능하므로 문학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재 개관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각을 통해 한 집안에서 발생한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념의 대립을 보이는 인물은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로, 이들은 좌우의 이념을 대표하는 각자의 아들 때문에 대립하게 된다. 이 둘의 화해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이념으로 생긴 대립 상황은 민족의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이 어린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 하면서 이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정신적으로 미숙했던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갈래	중편 소설, 전후 소설	성격	상징적, 토속적, 사실적
배경	• 시간: 6·25 전쟁 중 여름 장마 기간 • 공간: 어느 시골 마을		
제재	6·25 전쟁, 구렁이,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주제	이념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한 가족 내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특징	① 민속 신앙을 바탕으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 함. ② 어린 화자를 등장시켜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을 효과적으로 보여 줌.		

■ 구성 한눈에 보기

교과서 수록 부분

발단	6·25 전쟁의 발발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아들이 각각 인민군과 국군으로 전쟁에 나가고, 외가 식구들이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며 모두 함께 살게 됨.
전개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공산당을 저주하고 이때부터 두 할머니의 갈등이 시작됨.
위기	할머니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함.
절정 1	삼촌이 온다는 날에 삼촌 대신 나타난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가 기절함.
절정 2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 무사히 보냄.
결말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두 할머니는 화해하고, 며칠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

■ 전체 줄거리

서술자인 ‘나(동만)’의 집에는 외가 식구(외할머니와 작은이모)가 피난 와서 같이 살고 있다. 그러던 중 국군 장교인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날아드는데, 이 비보를 계기로 외할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 공산당을 저주하는 외할머니와 빨치산이 되어 집을 떠난 아들을 걱정하는 할머니 사이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갈수록 커지게 된 것이다.

빨치산이 되어 산속으로 숨어든 아들(‘나(동만)’의 삼촌)을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점쟁이는 ‘무슨 날 무슨 시’에 돌아온다는 말을 한다. 할머니는 집안 식구들을 들볶아 삼촌 맛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점쟁이가 말한 그 시간에 삼촌을 오지 않고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다. 이를 본 할머니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만다.

이때 외할머니가 나서서 구렁이를 달래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떠나 보낸다.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사돈인 외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로써 두 노인은 서로에 대한 미움을 거두며 화해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다. 며칠 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정말 지루한 장마’가 끝난다.

■ 지도 방법

작품의 주요 사건
파악하기

작품에 나타난
서사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 이해하기

- ① 인물 간 갈등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인물, 사건,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동족상잔과 이념의 대립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작가 소개



윤흥길(1942~)

소설가. 전라북도 정읍 출생.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회색 먼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3년에 발표한 〈장마〉를 통해서이다.

1970년대 후반 들어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 계급의 소외와 갈등의 문제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을 통해 파행적인 산업화가 초래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인공이 소시민 의식에서 탈피하여 노동 현장에 투신하고 좌절하면서 새로운 자기 각성을 이루는 과정을 그려 현대 사회의 정신적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완장》과 같은 장편 소설을 통해 권력의 생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풍자와 해학의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편 〈에미〉는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여인의 수난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남편의 폭력과 전쟁의 폭력을 샴머니즘화 된 미륵 신앙으로 이겨 내고 감싸 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절도 있는 문체로 왜곡된 역사 현실과 삶의 부조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설집에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장마》, 《에미》, 《완장》, 《똥대도 아니 달고》 등이 있다.

-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읽기 전에

지도 방법

- ①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갈등 등 서사 갈래의 특성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6·25 전쟁, 민속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며 읽도록 지도한다.

◎ 다음은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서사 갈래의 특성과 이 작품이 놓인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장마>를 감상하면서 서사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본문 연구

절정 1 | 교과서 75쪽 1행~76쪽 7행 **삼촌이 온다는 날에 삼촌 대신 나타난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가 기절함.**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온다고 한 시간에 삼촌 대신 구렁이가 나타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충격을 받은 할머니가 졸도한다.

읽기 중 활동

📖 ‘우리’가 밥을 먹다가 동작을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 안내 점쟁이의 점괘와 관련한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점쟁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삼촌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점쟁이가 말한 삼촌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가족들이 긴장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위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집 밖에서는 함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1 교과서 75쪽 14~24행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갑자기 출현한 구렁이를 보고 공포를 느낀 ‘나’는 작대기를 들고 다른 아이들처럼 구렁이를 때리려고 한다. 이는 ‘나’, 즉 ‘동만’이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는 어린 소년임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2 교과서 75쪽 24행~76쪽 7행 **그러자 역센 힘으로~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구렁이를 목격한 할머니가 마루 위에서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때리려는 ‘나’를 제지한다. 기다리던 삼촌 대신 구렁이가 나타난 것에 할머니가 받은 충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절정 2 | 교과서 76쪽 8행~80쪽 27행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 무사히 보냄.**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실제로 삼촌이 몸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 믿고 성심성의껏 달래어 가게 한다.

3 교과서 76쪽 11행~77쪽 13행 **그 바람에 일단 ~ 외할머니의 고향은 서릿발 같았다.**

외할머니가 침착하게 대응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한다. 외할머니의 침착한 성격과 강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며, 졸도한 할머니 대신 집안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읽기 중 활동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 안내 작품 전체의 내용 맥락과 관련하여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전 내용에서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한 구렁이가 감나무에 올라갔고, 아이들이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을 구렁이를 향해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구렁이도 흥분하여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데, 구렁이가 외할머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구렁이가 '나(동만)'의 외할머니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다가 별일이 없자 안도해서 한숨을 내신 것이다.

4 교과서 77쪽 13행~78쪽 3행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간다. 이는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 즉 '나'의 삼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다.

읽기 중 활동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마치 산 사람처럼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 안내 외할머니가 믿고 있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구렁이의 의미를 생각하는 활동이다. 교과서 87쪽에 제시된 '민속 신앙에서의 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외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죽은 '나(동만)'의 삼촌이 몸을 바꾸어 구렁이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5 교과서 78쪽 12~14행 **“자네 보다시피 ~ 어서어서 자네 가야 할 디로 가소.”**

외할머니는 구렁이에게 죽은 사람이 갈 곳은 저승이므로 집안 걱정 말고 떠나라고 타이른다. 외할머니가 믿고 있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구렁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교과서 80쪽 19행 **“쉬어! 쉬어!”**

구렁이가 어머니('나(동만)'의 할머니)와 집안에 대한 미련과 걱정을 떨치고 제 갈 길을 얼른 가기를 바라는 외할머니의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읽기 중 활동

 '성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활동 안내 문맥의 내용을 살피,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교과서 74쪽에 제시된 '인물 관계도'를 살피고, '성님'이 삼촌의 형이자 '나(동만)'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삼촌의 형, 곧 '나(동만)'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결말 | 교과서 80쪽 28행~82쪽 23행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두 할머니는 화해하고, 며칠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

두 할머니가 갈등을 겪고 화해하여 갈등이 해소된다. 그리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는 내용과 함께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종결될 것임을 제시한다.

● 읽기 중 활동 ●

📖 할머니가 안심했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내리깐 까닭은 무엇일까?

활동 안내 두 할머니가 믿고 있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구령이의 의미와 구령이가 떠났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여,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두 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갔나?”라는 할머니의 말은 원한을 품고 죽은 삼촌이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무사히 떠났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죽은 아들이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무사히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 교과서 82쪽 1~6행 **할머니가 손을 ~“사분땀 티주 노릇을 툅툅이 하고 있을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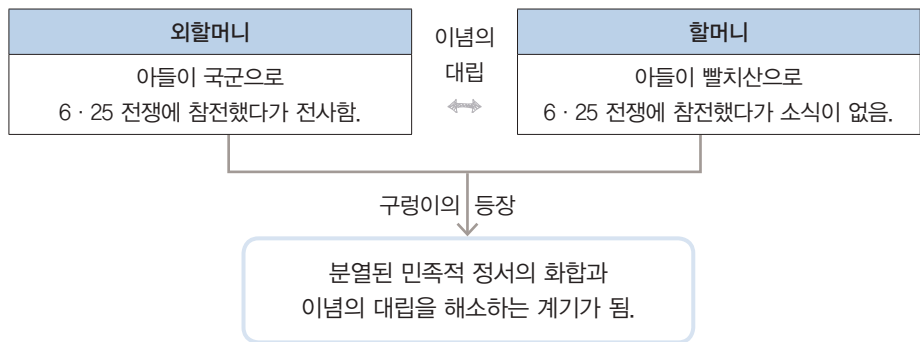
죽은 삼촌이 저승으로 잘 갔으리라는 것, 티주가 되어 집을 지켜 주리라는 것 등의 믿음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민속 신앙은 두 할머니가 이념의 문제를 넘어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공통적인 기반으로,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에 해당한다.

☆ 핵심 강의

● <장마>의 시점

어린 소년인 '나'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중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을 소년의 눈에 비친 대로 드러냄. 소설 속 사건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줌.
어른이 된 '나'의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의 일을 어른의 눈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하여 드러냄. 한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보다 깊은 독서를 가능하게 함.
두 서술자의 공존과 입체적 소설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 소년 서술자와 성인 서술자가 공존하는 서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효과가 나타남. 겉에 드러난 현상에 대한 표면적 관찰과 그 안쪽에 대한 심층적 해석이 겹치는 입체적 소설 세계가 이루어짐.

● 이념의 대립과 화해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어린 소년의 시점과 과거를 돌아보는 성인 서술자의 시점이 복합된 독특한 시점의 효과를 설명한 글이다. 시점이 바뀌는 〈장마〉에 대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윤희길 문학의 특성을 개괄한 비평문이다. 작가의 문학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특성에 대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1인칭 복합 시점

1인칭 소년 화자는 세계 해석에 대한 순진무구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선입견 없는 시선을 마련한다. 동시에 그는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 상황의 비극성과 폭력성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초콜릿으로 동만을 유혹했던 형사의 농간은, 세계 곳곳에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무차별적인 폭력성과, 눈앞의 초콜릿이 욕망의 전부였던 어린 소년의 순진무구한 내면을 대비해서 보여 준다.

윤희길처럼 유년기에 전쟁을 체험했던 작가들은 자신들이 전쟁 당시에 가졌던 순진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기억을 통해서 고통의 상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치료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과거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가의 기억 속에서 내면화·주체화하고 더 나아가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유소년 시점을 도입함으로써 분단의 근본 원인이나 극복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 주지 못한다는 약점 역시 갖게 된다.

- 김동식,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 치유의 가능성 찾기 윤희길의 〈장마〉〉

● 윤희길 문학의 특성

왕성한 작가 활동과 병행하여 그의 제재 역시 상당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령 〈황혼의 집〉, 〈기억 속의 들꽃〉 같은 작품에서는 작자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분히 서정적인 톤으로 회상하고 있다. 〈집〉, 〈장마〉,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등도 어린 시절의 일을 서정적인 톤으로 회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린 목격자의 시선을 통하여 참담했던 시대 상황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당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사실적으로 천착해 가고 있는 작품도 있다. 가령, 오늘날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의 문제를 다룬 〈순은의 넋〉, 그리고 자식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의 문제를 다룬 〈옛날의 금잔디〉 등이 그것이다. 폭력배의 생태 내지 그 후일담을 다루고 있는 〈비늘〉, 이산가족의 참담한 생태를 다루고 있는 〈무제〉 등도 이 계열에 드는 작품이라 하겠다. 당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다분히 회화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얼굴에서 잃은 체면을 영똥하게 발에서 되찾고 자기를 쓰는 병적 자존심의 소유자의 행적을 다분히 회화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등을 비롯하여 제식 훈련의 변천 과정을 진술하면서 다름 아닌 당대 군사 정권의 획일주의적 군사 문화를 풍자하고 있는 〈제식 훈련 변천 약사〉, 〈날개 또는 수갑〉, 그리고 완장 하나 두르고 거들먹거리는 한 시골뜨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현실 속에 완강히 뿌리박혀 있는 독재주의적 잔재를 풍자하고 있는 〈완장〉 등이 그것이다. 도시 소시민의 생태를 회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말로만 중산층〉, 〈달국 씨 일가의 피죄죄한 나날들〉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시골 농가에 상황을 설정하여 그 가족들의 삶의 궤적을 차분하게 그리고 있는 〈밭아도 아리랑〉 같은 작품도 있다.

- 천이두, 〈회해 지향성의 문학〉

학습 활동

활동 안내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찾아 정리하는 활동이다. 외할머니와 같은 인물의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정리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지도 방법

할머니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정리하며 작품을 읽게 하고, 구령이가 등장한 이후부터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지도한다.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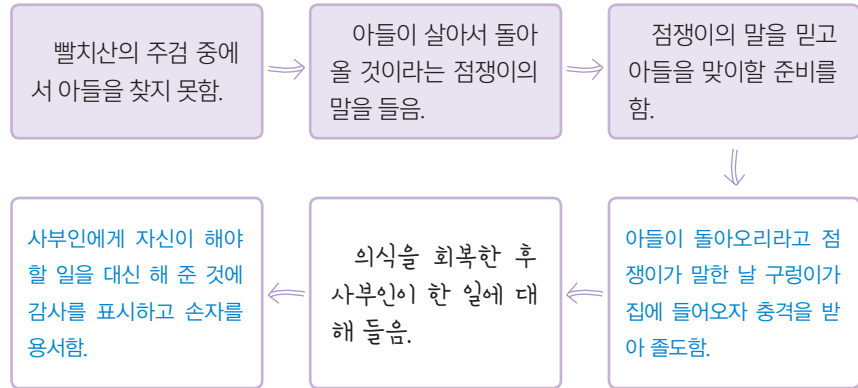
서사 갈래의 특성이 나타나는 갈등의 발생과 해소, 시점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을 찾고, 그 원인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② 서술자의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을 찾고,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 ③ 이를 통해 서사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1 다음은 이 작품의 '할머니'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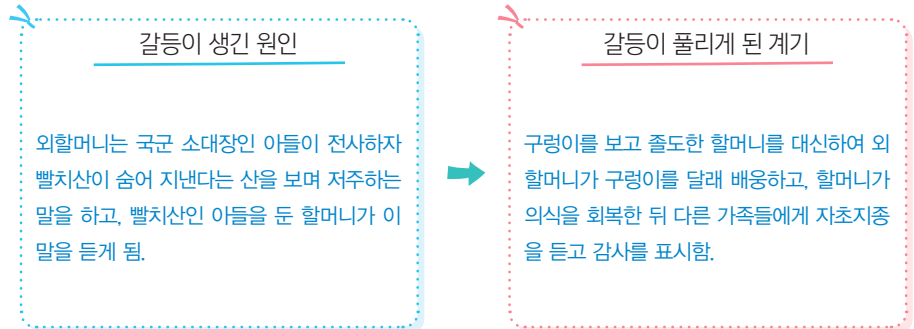
예시 답안



2 이 작품을 감상하며 서사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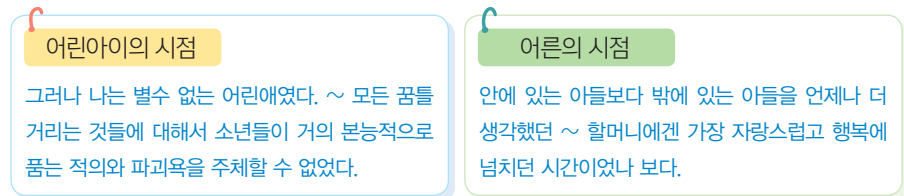
(1)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긴 원인과 그 갈등이 풀리게 된 계기를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2) 다음은 이 작품의 시점을 나는 것이다. 서술자의 시점이 잘 드러난 부분을 한 군데씩 찾아 써 보자.

예시 답안



(3) (2)와 같은 시점 변화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어린이의 시점에서는 이념 대립의 문제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할머니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으며, 어른이 된 '나'의 시점에서는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념 대립의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활동 안내

제목이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의 제목인 '장마'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장마'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사전적 의미가 상징하는 내용을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 ② '장마가 끝났다.'는 의미가 상징하는 내용을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 ③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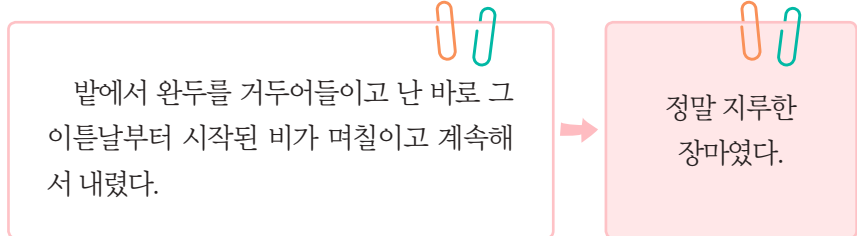
활동 안내

비평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구렁이'를 대하는 두 할머니의 태도를 통해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난 구렁이'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것과 6·25 전쟁의 비극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다음은 이 작품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1) '장마'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하면서,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갈등과 대립의 해소 가능성과 더불어 6·25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4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의 한 부분이다. 이를 참고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 작품을 이해해 보자.

〈장마〉는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극을 가족의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있으며, 치유(화해) 가능성을 모성(母性)과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빨치산이 되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집 안에 밤새도록 불을 켜 두는 친할머니의 모습에서, 감나무 위의 구렁이를 죽은 자의 넋이라고 여기며 일종의 천도(薦度) 의식을 거행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념적 대립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성적 본능을 발견한다.

- 김동식,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 치유의 가능성 찾기〉에서

(1) 다음 빈칸을 채워 이 작품에서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구렁이'는 (삼촌)의 현신으로 우리 전통의 (무속 신앙)과/와 관련이 있음.
- '구렁이'는 전쟁으로 생긴 (상처와 비극)을/를 상징함.

(2)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고, 이러한 태도가 전쟁의 비극을 치유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사람처럼 대하는데 이는 무속적 믿음과 모성애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극복하고 이념으로 갈라진 민족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

장마



• 내가 주는 별점: ☆☆☆☆☆

• 한 줄 감상평: _____ 

QR 코드

〈장마〉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장마〉는 1973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로, ❶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픔을 증언하는 작가의 많은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을 잃는 사돈 사이인 두 할머니를 통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며 그 슬픔은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내었다.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은 장마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구성은 두 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라는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❷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는 남북 간 적대의 역사를 넘어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를 환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읽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김원일(1942~) 소설가. 경상남도 김해 진영 출생. 일제 강점기와 분단의 역사를 다룬 작품,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파헤친 작품 등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작에 〈어둠의 혼〉, 〈도요새에 관한 명상〉, 〈환멸을 찾아서〉 등이 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묘지 근처〉

윤홍길

자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갇힌 주인공의 심리를 잘 그린 단편 소설이다. 그 두려움은 전쟁의 폭력적 속성을 그 어떤 말이나 사건보다도 뚜렷이 드러내 보여 준다.

“염라대왕 아니라 염라대왕 할아버라도 우리 병권이한테는 손을 대들 못 허 니께, 절대적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되니 개 그리 알거라야!”

시점이 유사한 작품

〈어둠의 혼〉

김원일

작가의 고향인 경상남도 진영을 배경으로 소년 서술자의 일인칭 시점에서 광복 이후의 좌우 갈등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제목이 보여 주듯, 슬픔에 짓눌린 소년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그 느낌은,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작품 감상 연구

❶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픔을 증언하는 작가의 많은 작품

윤홍길은 1942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 작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6·25 전쟁의 상처를 다루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기억 속의 들꽃>은 전쟁 중에 강인하게 살아가는 ‘명선’이라는 여자아이를 통해 전쟁으로 삭막해진 사람들의 모습과 전쟁의 참혹성을 밝히고 있다. <에미>에서는 ‘어머니’를 통해 모성의 힘으로 전쟁의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❷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는~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머니의 아들이자 ‘나(동만)’의 삼촌은 빨치산이고, 외할머니의 아들이자 ‘나’의 외삼촌은 국군 소대장이다. 즉 할머니는 북한의 이념을, 외할머니는 남한의 이념을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은 남북한 사이의 적대와 대립의 관계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와 용서는 남북한 분단의 현실을 뛰어넘는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두 진영을 대표하는 할머니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실천적 지향성을 담은 통일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장마>에 등장하는 두 할머니의 화해가 지니는 의미를 설명한 글이다. 각각 아들을 잃은 두 할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구렁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화해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실

● 두 할머니의 정서적 화해

주술적인 언어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감동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적대 감정이 외할머니의 주술적 언어를 들은 다음에 사라질 수 있었다. 또 외할머니가 구렁이 앞에서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나 이념의 싸움 때문에 두 노파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서는 토속적인 동질성을 띠고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처럼 이들이 정서적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적 체험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란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체험하기는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구렁이를 상대하는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사돈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한풀이를 대신하고 나선 것이다. 그 점에서 할머니는 논리를 떠난 정서적 화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 김치수,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장마>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단을 다룬 소설을 많이 쓴 이유를 밝힌 작가의 말이다. 작가의 말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작가의 직접 체험과 전쟁 · 분단 소설**

이제는 그만 써야죠, 내 어린 시절 체험 중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절대로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고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동어 반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우리 외가는 전쟁 때문에 손이 끊기고 완전히 멸절돼 버렸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외삼촌은 육군 소대장으로 전사를 했고, 막내 이모는 앞에서 말한 대로 청상이 되었다가 결국 폐결핵으로 불행하게 세상을 떴고, 외조부모는 절망 속에서 생을 마치셨지요. 우리 외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쟁의 여파나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문제, 분단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룬 작품을 많이 써 온 겁니다.

- 윤홍길 · 정효웅, <감성의 언어, 날 선 붓끝으로 우리의 한 시대를 파헤치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뱀과 관련된 신화, 종교, 민속 신앙에 대해 설명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활용하여 뱀이 지닌 상징성과 신성성을 구렁이와 연결하여 학습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 **구렁이업 신앙의 인식 기저**

뱀은 전 세계의 신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민족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뱀을 매우 특별한 동물로 관념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민족이 뱀을 풍농신으로 생각한 것 역시 이러한 범주 속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중략>

뱀은 생태상, 그리고 성격상 신성성을 가질 만한 여러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알에서 탄생, 수차에 걸친 허물 벗기, 동면, 물과의 상관성, 남성적 상징 등등. 달 동물적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는 뱀은 그래서 많은 종교나 또는 신화 체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뱀이 가지는 다양한 심볼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풍요와 재생, 그리고 불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뱀을 풍농신, 부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사고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뱀을 풍농신으로 관념했고 또한 저승 적패지(赤牌旨)를 가져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본 것은 바로 세계 여러 민족이 본 뱀에 대한 인식의 범주, 즉 풍요와 재생 및 불사라는 그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도 뱀이 갖고 있는 여러 생태적 요인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뱀을 성스러운 존재로 관념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현실적으로 뱀은 무섭고도 위협하여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는 부정적 측면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뱀을 불사의 존재, 또는 풍농신으로 인식했던 우리 민족의 사고는 풍요 및 불사의 측면과 관련해서 뱀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 보편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 민족 역시 신화적 원초적 사고를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 민속 학회 엮음, <무속 신앙>

자료 더하기

× + - < >
친구를 대신하여 쓴 소설 <장마>
↻ + ☰ ≡

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장마>는 친구인 시인 정양이 쓰고자 했으나 쓰지 못했던 어린 시절 경험을 대신 쓴 소설이라 한다.



▶ 정양 시인

“전에 말했던 그 소설 어떻게 돼 가는 거지?”

“어려워. 내 얘기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못 쓸 것 같다.”

“너 그럼 나한테 그 이야기 팔아라. 나한테 말하면 아마 괜찮은 소설이 될 거다.”

이리하여 나는 사냥에서 돌아온 형으로부터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산 야곱과도 같이 친구한테서 소설의 소재를 사게 되었다.

쓰는 동안 나는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몇 차례나 집필을 중단해 가며 기분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친구의 이야기, 친구 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닌 바로 내 이야기, 내 아버지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실상 그것은 내 친구 개인의 슬픔이나 아픔이라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의 슬픔이요 아픔인 까닭이었다.

마침내 탈고가 됐을 때 나는 통금이 임박한 시간에 친구 집을 찾아가 원고 뭉치를 던지고 돌아왔다.

- 윤희길, <분단의 역사 위에 내리는 장맛비>에서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가가 <장마>를 쓰게 된 계기와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다. 작가가 친구의 이야기였던 이 작품을 쓰면서 느낀 슬픔과 아픔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업’의 일종인 족제비 사진이다. 이 작품에서 ‘구렁이’를 대하는 두 할머니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 - < >
민속 신앙에서의 업
↻ + ☰ ≡



▶ 업 가운데 하나인 족제비

우리 민속 신앙에서는 한 집안의 살림을 보살펴 준다고 믿는 동물이나 사람을 ‘업’이라 하는데, 구렁이를 비롯해 족제비, 두꺼비 등이 있다. 업이 나가면 집안의 복이 나간다고 믿었기에 성심껏 받들었다. <장마>에 등장하는 구렁이를 두고 외할머니가 ‘사분덕 터주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3 통곡할 만한 자리

■ 작품 선정의 취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술 갈래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청나라를 여행한 뒤 쓴 한문 수필로, 글쓰기가 여행에서 느끼고 생각한 내용을 개성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작가 맥락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문학사적 맥락에서 작품이 지닌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재 개관

이 작품은 라오둥 벌판을 묘사한 여행기로는 최고작으로 손꼽힐 만큼 참신한 발상과 비유적 표현이 뛰어나다.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는 라오둥 벌판에 이르러 드넓은 세계를 만난 기쁨을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감 나게 표현했다. 특히 천하의 장관인 광야를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하면서 그 까닭을 나름의 독특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어서 <호곡장론(好哭場論)>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린다.

갈래	한문 수필, 중수필, 기행 수필
성격	체험적, 논리적, 설득적, 사색적, 교훈적
제재	광활한 라오둥 벌판
주제	① 광활한 라오둥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②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감격
특징	① 묻고 답하는 구성 방식을 취함. ② 작가의 창의적 발상이 돋보임. ③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하여 설득력을 높임.

■ 구성 한눈에 보기

기	작가가 라오둥 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함.	
승	문	정 진사가 작가에게 울고 싶어 하는 까닭을 물음.
	답	사람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七情)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함.
전	문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느냐고 물음.
	답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정신이 시원하여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고 답함.
결	라오둥의 광활한 풍경을 묘사하고, 통곡할 만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지도 방법

작품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작품에 나타난
교술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문학사적 맥락과
독자 맥락에서 작품 이해하기

- ① 작가의 경험과 주장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② 작가의 주장과 표현을 바탕으로 작가 맥락을 고려하여 교술 갈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작품에 대한 비평문과 김정희의 <요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가 소개



박지원(1737~1805)

문학가, 실학과 학자. 자는 중미(仲美). 호는 연암(燕巖). 명문 양반가 출신으로 약관의 나이에 문명을 떨침으로서 장래 나라의 문운(文運)을 잡을 인물로 촉망 받았다. 그러나 타락한 정치 현실과 속물적 사회 풍기를 혐오하여 과거 시험을 통한 출세를 진작 포기하고, 창조적 글쓰기와 학문에 몰두하였다. 재야의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당파와 신분을 초월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선비 곧 지식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일생 동안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였다. 그의 산문은 중세적 사유 의식을 떨쳐 버리는 참신한 작품이 대부분으로, 그를 민족 문학사의 최고의 경지에 끌어올렸다.

특히 44세(1780년)에 중국을 여행하고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는 당시 문단에 큰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고전에 값하는 기념비적 저술이 되었다. 50세에 음직으로 벼슬에 나아가 이후 안의 현감, 면천 군수, 양양 부사 등을 역임하며, 주체적 벼슬아치 혹은 부모 같은 목민관으로서의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

-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1》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학문에 관한 작가의 사상을 설명한 글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학문에 관한 연암 박지원의 사상

학문하는 방법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아야 한다. 종이라도 나보다 한 글자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에게 배워야 한다. <중략>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진 곳에서 편협한 기질을 타고난 데다, 중국 땅을 밟아 보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른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네 부류도 그 명목만 겨우 있을 뿐이지, 이용후생의 도구에 이르러서는 날로 곤궁해지고 있다. 그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학문을 모르는 탓이다. <중략>

저들은 참으로 머리를 깎고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오랑캐들이다. 그러나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 이래 한·당·송·명(漢唐宋明)의 중국이 어찌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은·주 삼대 이래 한·당·송·명의 후손이 어찌 아니라, 참으로 법이 좋고 제도가 훌륭하다면, 오랑캐에게 나아가서라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리가원·허경진 옮김, 《연암 박지원 산문집》

읽기 전에

지도 방법

학습자들에게 교술 갈래에 대해 알고 있는 특성을 말해 보게 한다.

◎ 다음은 작가가 **랴오둥 별판에 도착하여 사방이 툭 터진 곳을 바라본 감격을 표현한 한문 수필이다. 교술 갈래의 특징과 이 수필이 놓인 맥락을 살피며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통곡할 만한 자리>를 감상하면서 교술 갈래의 특성, 문학의 작가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 핵심 강의

●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징

교술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 특정한 형식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음.
- 작가 자신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다른 문학 갈래보다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남.
- 작가의 개성에 따라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인생에 대한 성찰, 사회·역사에 관한 인식, 자연에 대한 감상 등 다양한 제재를 주제로 삼을 수 있음.
- 기행문, 감상문, 일기, 편지 등이 교술 갈래에 해당함.

본문 연구

기 | 교과서 88쪽 1행~89쪽 2행 작가가 **랴오둥 별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함.**

1780년 7월 8일 일기의 앞부분이다. 박지원 일행이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 랴오둥 별판에 도착했을 때, 작가의 눈에 들어온 별판에 대한 인상을 기록하였다.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로 강렬한 대지의 풍경을 보고 작가는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 읽기 중 활동

📖 작가가 랴오둥 별판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동 안내 작품을 읽고 작가가 바라본 랴오둥 별판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는 활동이다. 랴오둥 별판의 지도나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산기슭에서 빠져나와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 눈앞이 어질어질했다는 앞뒤 구절을 참고하여 랴오둥 별판의 이미지와 그곳을 처음 목격하게 된 작가의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 아무것도 없는 별판에서 하늘과 땅만 보이는 광경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 넓고 광활한 별판을 보면서 그 위에 있는 인간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1 교과서 88쪽 6행 “백탑(白塔)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앞서가던 하인 태복이 라오둥 별판의 상징인 백탑을 발견하고, 일행에게 드디어 백탑이 보인다고 고하는 장면이다. ‘백탑(白塔)’은 중국에서 벽돌로 쌓아 외벽을 하얗게 칠한 불탑을 부르는 이름이다. ‘현신(現身)’이란, 글자 그대로 몸을 드러냈다는 뜻이다. 이 말들 듣고 작가 일행은 백탑과 라오둥 별판을 보기 위해 말을 급히 몰아 나간다. ‘안광이 어질어질하다’는 표현에서 산기슭에 있다가 사방이 툭 터진 별판이 한눈에 들어왔을 때의 시각적인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실

● 라오둥의 백탑

라오둥의 백탑은 중국 라오닝성 라오양시에 있는 8각 13층의 흰색 탑이다. ‘광우사(廣祐寺) 백탑’이라고도 한다. 한 면이 약 7m이고 높이는 70m가 조금 넘는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요동 백탑기〉에서, 이 탑이 당 태종(6세기)때 지어졌다거나 또는 그보다 훨씬 전인 한나라 때 요동에 살던 신선의 흔적이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 믿을 수는 없다고 기록했다. 1922년 인근에서 발굴된 비석을 통해 금나라(12세기) 때 지어진 탑임이 밝혀졌다고 한다.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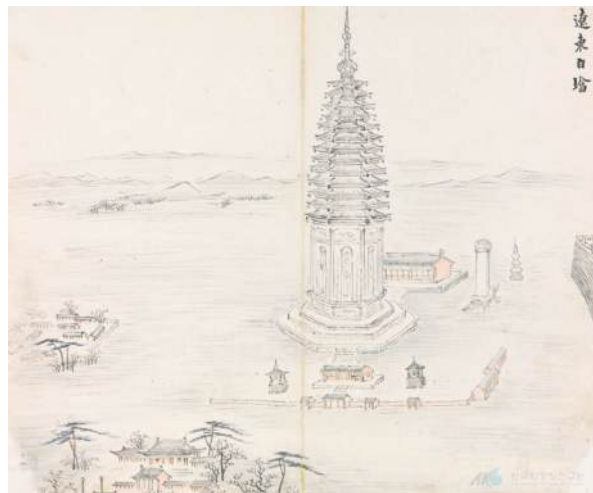
이 자료는 《열하일기》의 다른 부분에 실려 있는 〈요동 백탑기〉에서 작가가 백탑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조선 시대 화원이 그린 그림과 현대의 사진을 보여 주면 이 탑과 이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열하일기》 중 〈요동 백탑기〉 부분

관제묘를 나와 채 반 리를 못 가서 백탑이 있다. 여덟 면으로 된 백색의 이 탑은 13층으로 높이가 70길이나 된다고 한다. 〈중략〉

요동이 왼쪽으로 푸른 바다를 끼고 앞으로는 큰 들판에 접해 있어 거리끼고 막히는 것 없이 천 리가 아득하므로, 백탑은 바로 요동 별판 삼분의 일의 형세를 차지한 셈이다. 탑 꼭대기에는 구리로 된 북을 세 개 설치하고, 매 층의 추녀 모서리마다 물바가지 크기의 풍경을 달아 놓아서 바람이 불면 풍경 소리가 요동 별판을 진동한다.

-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1》



● 이의양, <요동 백탑>

승 | 교과서 89쪽 3행~90쪽 6행 • 문: 정 진사가 작가에게 울고 싶어 하는 까닭을 물음.
 • 답: 사람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七情)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함.

작가가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라고 하자 정 진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작가가 대답하면서 작품의 내용이 전개된다. 정 진사는 두 개의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 작가가 대답한 내용의 요지는 사람들은 슬플 때만 운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인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모두 그 감정이 지극해지면 울음이 나게 된다는 것이다.

2 교과서 90쪽 1~3행 **칠정에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진실한 통곡 소리는 왜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할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습자들이 생각해 보게 할만한 구절이다. 통곡 소리는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천지간에 우레’와 같다고 했다. 그렇게 갑자기 터져 나오는 큰 소리를 아무 데서나 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조선을 벗어나 마주한 광활한 별판을 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긴다는 것도 그 이유와 연관이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정 진사의 반응을 보더라도 ‘통곡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과서 90쪽 3~6행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의는 한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다. <치안책(治安策)>이라는 상소의 앞부분에 “신이 형세를 살펴보건대, 통곡할 일이 한 가지요, 눈물 흘릴 일이 두 가지요, 길게 탄식할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글이 아주 유명하여 후대에 가의는 나라를 걱정하여 통곡했던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가의가 한 나라에서 통곡하여 문제의 융성한 시대가 있었다’(태조실록)거나 ‘옛적 가의가 한 문제의 번영하여 가는 시대에서도 통곡하고자 함은, 가의가 어찌 고의로 통곡하여 임금의 과실을 드러내려고 함이오리까. 진실로 관계되는 바가 통곡하는 것보다 심함이 있는 때 문입니다’(세종실록)와 같은 언급이 보인다.

남들이 나라가 태평하다고 하는 시기에도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가의의 통곡은 ‘지극하고 진실한’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꿰뚫어 본 지혜의 소리였으므로,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런 통곡 소리는 그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이가 있을 때를 만나야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가의의 고사가 언급된 구절과 가의의 통곡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 가의(賈誼)의 통곡



가의(기원전 200~기원전 168)는 중국 한(漢)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중국 한 문제(文帝) 때 당시 사회의 폐단을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의 공신 세력에게 모함을 받아 변방으로 좌천되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의는 다시 등용되는 기회를 얻었고, 이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대표적인 상소 중의 하나가 <통곡할 만한 자리>에 언급된 <치안책(治安策)>이다. 하지만 가의는 뜻을 채 펼치지 못하고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 가의의 간언은 당대에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문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진(秦)나라에서 이어진 폐단을 고치고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그의 주장은 오래지 않아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 핵심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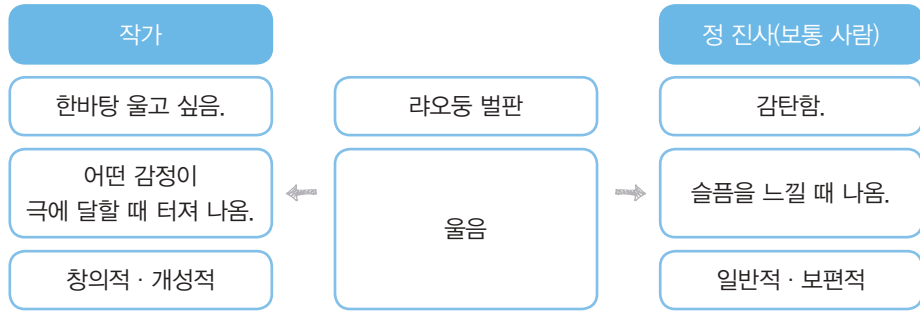
● 사람들이 생각하는 울음과 작가가 생각하는 통곡

사람들이 생각하는 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없는 눈물 • 슬픔에서 유발되는 눈물
작가가 생각하는 통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울음소리 • 칠정이 모두 극에 달하면 나오는 울음 •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 • 천지간의 우레와 같은 소리 • 웃음소리와 다를 것 없는 절실한 소리

이 작품은 《열하일기》 7월 8일 일기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가가 지은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이 《열하일기》 중에서도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한 구절을 따서 ‘호곡장(好哭場)’ 또는 ‘호곡장론(好哭場論)’이라고 부른다.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의 제목을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였다. 작품의 원문에는 ‘통곡(慟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곡하기 좋은 장소[好哭場]’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소리를 높여 슬피 읊.’이라는 ‘통곡’의 사전적 의미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통곡할 만한 자리>에 드러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 <통곡할 만한 자리>의 독특한 발상과 참신한 표현

작가는 천하의 장관을 보고 한바탕 울어 볼 만하다고 표현하면서 기존의 인식과 다른 발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울음은 보통 슬플 때 나오는 것인데 작가는 드넓은 랴오둥의 장관을 보고 울어 볼 만하다고 표현하여 주변 사람에게 의문을 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인간은 희로애락애오욕의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오는 것이니, 폭발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은 웃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여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기존의 관념을 뒤엎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특한 발상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울음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발상의 전환이 드러남. • 랴오둥 별판을 보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감탄하지 않고 통곡하겠다고 함. • 갓난아이가 우는 이유를 넓은 세상에 나온 기쁨과 즐거움 때문이라고 함.
참신한 표현	발상을 전환하고, 대상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비유를 통해 표현함.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동시에 공감을 일으킴.

전 | 교과서 90쪽 7행~91쪽 4행 • 문: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나냐고 물음.

• 답: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정신이 시원하여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서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고 답함.

정 진사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작가의 답을 담고 있다. 작가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운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작가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갓난아이가 우는 이유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와 상반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4 교과서 91쪽 1~3행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작가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운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랴오둥 별판을 본 작가가 마치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은 감격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 교과서 91쪽 5행~91쪽 11행 **랴오동의 광활한 풍경을 묘사하고, 통곡할 만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갓난아이와 같이 한바탕 운다고 할 때 적당한 장소로 동해를 바라볼 수 있는 금강산 비로봉과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사장을 들고, 랴오동 별판의 광경을 묘사하며 통곡하기 좋은 자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읽기 중 활동 ●

 '금강산 비로봉, 장연 금모래 사장, 랴오동 별판'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동 안내 작가가 생각하는 '한바탕 울어 볼 만한 곳'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해당 장소들의 사진을 참고하고, 이 작품에서 관련된 구절을 찾아 이러한 장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 넓은 곳

• 시야가 툭 터진 곳

• 하늘 끝과 땅끝이 붙은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보이는 곳

5 교과서 91쪽 10~11행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창창(蒼蒼)하다'는 앞길이 멀어서 아득하다 또는 앞길이 까마득하게 멀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랴오동 별판이 광활하여 지평선까지 눈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비와 구름만 오갈 뿐 오직 아득하기만 하다는 의미이다.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통곡할 만한 자리>가 실린 《열하일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통곡할 만한 자리>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열린 마음으로 드넓은 세계를 보라

조선조 1780년(정조 4)에 박지원은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외교 사절단에 참가하여 중국을 다녀올 수 있었다. 그 해 음력 5월 말 한양을 출발해서 압록강을 건넌 뒤 요동(遼東) 별판을 거쳐, 8월 초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건륭제의 특명이 내려, 만리장성 너머 열하(熱河)까지 갔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약 한 달 동안 머문 뒤 그해 10월 말에 귀국했다. 당시 박지원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한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가 바로 《열하일기(熱河日記)》다.

열하는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하북성(河北省) 동북부, 난하(灤河)의 지류인 무열하(武烈河) 서쪽에 있다. 열하라는 지명은 무열하 주변에 온천들이 많아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 데에서 유래했다. 건륭제의 이곳에다 '피서산장(避暑山莊)'이라는 거대한 별궁을 짓고 거의 매년 행차하여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열하를 북경에 버금가는 정치적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청나라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의 치세 중에 열하는 황제를 알현하러 모여든 몽골·티베트·위구르 등의 외교 사절들로 붐볐다. 박지원을 포함한 일행은 열하를 방문한 최초의 조선 외교 사절이었다. 그래서 그는 열하에서 보고 들은 진귀한 견문을 자신의 여행기에 집중적으로 서술했을 뿐 아니라, 그 제목까지도 특별히 '열하일기'라 지었던 것이다.

- 김명호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1》

활동 안내

교술 갈래는 작가 자신이 겪은 일과 느끼고 생각한 점을 기술하는 갈래이므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의 경험과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작가의 경험, 작가의 생각과 주장이라는 요소를 인식하면 더 효과적으로 교술 갈래의 작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지도한다.

1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교술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이 작품에 서술된 작가의 경험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본 것	백담, 라오동 별판 등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이다. • 라오동 별판은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2) 작가와 정 진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작가의 주장을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정 진사	시야가 툭 터진 곳에서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	사람은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기 때문이지.
정 진사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합니까?
'나'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될 것이네.

활동 안내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작가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제시된 자료만 확인하기보다는, 발문과 관련된 부분을 교과서에서 확인한 다음 답안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작가가 라오동 별판을 보고 느낀 심정을 갓난아이의 울음에 빗대어 표현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박지원은 조선이 청나라를 통해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을 이루기를 바랐다. 《열하일기》는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직접 보고 탐구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관습과 가치관에 얽매어 있는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 앞서서 변해 가고 있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박지원의 열망이 담겨 있다.

예시 답안 작가는 갓난아이가 태중의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고 있다가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된다고 했다. 이런 표현으로 추측하면 작가는 당시의 조선이 좁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라오동 별판을 보고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실감이 나서, 억눌렀던 마음을 토해 내는 갓난아이 같은 울음이 나올 만하다고 했을 것이다.

**활동 안내**

작품의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와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제시된 자료에서 당시 대다수 연행록과 차별되는 점을 찾게 한다.
- ② 문답 형식이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한다.
- ③ 후대 독자인 추사 김정희의 평가를 참고하여 작품의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작가 소개

김정희(1786~1857)
조선 후기의 문신, 서예가, 실학자. 호는 추사, 완당. 1809년(순조 9)에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에 가서 그곳 학자들과 교류했는데, <요야>는 이때 지은 한시이다. 학문의 여러 분야에 통달했으나, 말년에는 제주도에 유배를 가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추사체를 완성했으며, 그림으로 <세한도>를 남겼다.

예시 답안 독자는 처음에는 작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작가에게 질문하는 정 진사의 입장에 공감하며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이후 작가의 주장에 주목하여 글을 읽게 되므로 문답 형식이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 답안 슬픔만이 울음을 자아내지 않는다더니 / 그 발상 참 신기하기도 해라 / 어떤 감정이 든 지극하면 울음이 나오니 / 통곡 소리와 웃음소리가 같다고 보았다네

3 다음 글을 읽고, <통곡할 만한 자리>를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해 보자.

대다수의 연행록은 라오동 별판의 드넓은 장관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인상을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할 때 <통곡할 만한 자리>는 라오동 별판을 처음 본 감격과 글쓴이의 주장을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창의적 발상,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참신한 비유, 적절한 형식 등을 통해 도도하게 토로하는바, 이전의 연행록 일반과는 구별되는 새로움과 문학성을 지녔다.

- (1)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창의적 발상: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칠정이 모두 울음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발상
- 그렇게 생각한 이유: 칠정이 모두 울음을 유발한다는 발상이 새롭기 때문이다.
-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인물의 행동과 말, 라오동 별판의 풍경을 눈으로 보이는 듯 구체적·사실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 (2) 이 글의 문답 형식이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짝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 (3) 다음은 추사 김정희가 1809년 라오동 별판에 직접 가 보고 박지원의 글을 떠올리며 지은 시의 일부이다. 김정희는 <통곡할 만한 자리>의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여 평가하였는지 말해 보자.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더니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아이가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다네

예시 답안 라오동 별판이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는 비유적 표현과 라오동 별판을 보고 우는 것을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아이가 / 세상 나와 우는 것'이라고 한 비유적 표현에 주목하였다.

- 김정희, <요야(遼野)>에서

- (4) (1)~(3)을 바탕으로 하여, <통곡할 만한 자리>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담은 짧은 시를 지어 보자.

통곡할 만한 자리



• 내가 주는 별점: ☆☆☆☆☆

• 한 줄 감상평: _____

QR 코드

〈통곡할 만한 자리〉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통곡할 만한 자리〉는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수록된 한문 산문이다. ❶ 《열하일기》는 1780년 정조가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할 때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간 작가가 여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여행기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한양에서 출발한 지 두 달여 만에 라오둥 벌판에 도착하여 느낀 감격을 담아낸 글로, 〈호곡장(好哭場)〉 또는 〈호곡장론(好哭場論)〉이라고도 한다. ❷ 시야가 특 터진 곳을 만났으니 한바탕 통곡함으로써 억눌린 감정을 씻어 낼 만하다는 특별한 감상을 ‘질문과 답’의 형식에 담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읽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신유한(1681~1752)
조선 후기의 문장가. 1719년(숙종 45) 제술관(製述官)으로서 통신사 홍치종을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유록〉을 창작하였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광문자전〉

박지원

작가의 문집 《연암집》 중 《방경각외전》에 수록된 한문 단편 가운데 하나이다. 광문자는 걸인이지만 어진 성품을 지녀 많은 이가 그와 벗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아침에 노래를 부르며 시장에 들어 갔다가 저녁이 되면 어느 부귀한 집의 처마 밑에서 자니, 한양성에는 팔만 호(戶)가 있어 내가 매일 거처를 바꾼다 해도 수명이 끝날 때까지 다 돌아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 시대의 다른 기행문

〈해유록〉

신유한

조선 숙종 때 작가가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오면서 그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조선 시대 중국 기행문의 대표작이 《열하일기》라면 〈해유록〉은 일본 기행문의 대표작이다.

만 길 높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하늘을 버티고 있으니 등그스름한 비녀봉도 같고 이마 위로는 백옥같이 희어 티끌 한 점 없으며 허리 아래는 초목은 있어도 무성하지는 못하여 바라보기에 민승민승하였다.



작품 감상 연구

1 《열하일기》는 1780년 정조가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 기록한 여행기이다.

〈통곡할 만한 자리〉를 포함하는 여행기이자 수필집인 《열하일기》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통곡할 만한 자리〉에 나타난 여정은 작가 일행이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백담과 라오둥 벌판을 마주치는 부분이다.

2 시야가 특 터진 곳을 만났으니 한바탕 ~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질문과 답’의 형식은 고전 산문에서 종종 작가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자신의 독특한 감상과 견해를 이러한 문답 형식에 담아내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교과서에 수록된 〈통곡할 만한 자리〉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일부를 발췌해서 학습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작가는 연행길에서 겪은 다양한 일화들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온갖 고생을 함께한 두 하인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동시에 기행 문학으로서 모습을 잘 보여 주므로, 교술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겸인 양반집에서 집안을 맡아 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 반당 중국에 가던 사신이 자비(自費)로 더리고 가던 종자.
- 등자 말을 타고 앉아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물건.

자료실

● 〈7월 초 8일 갑신일〉 일기의 뒷부분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 진사, •겸인(僉人) 이학령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변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열 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 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담을 구경하니 그 제조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 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따로 백담에 대해 적은 〈백담기(白塔記)〉가 뒤편에 있다.

다시 요양의 성으로 돌아오니 많은 수레와 말이 시끄럽고 구경꾼도 도처에 떼를 이루고 있다. 술집 누각의 붉은 난간이 큰길에 높이 빠져나와 있는데, 금빛 글씨로 쓴 깃발이 바람에 나부낀다. 깃발에 쓰여 있기를,

이 집의 명성을 들은 자는 응당 말을 멈출 것이고,
술 향기를 찾는 사람은 장차 수레를 세우리라.
聞名應駐馬 尋香且停車

라고 되어 있어, 나도 한 잔 마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워싸고 있는 구경꾼들이 더욱 불어나 어깨를 서로 비비댄다. 평소에 듣기로, 이런 곳에는 간악한 놈들이 아주 많아, 처음 여행 오는 사람들이 구경에 마음을 빼앗겨 잘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물건을 잃는다고 한다. 왕년에 한 사행이 여러 명의 건달들을 •반당(伴僮)으로 데려갔는데, 아랫사람, 윗사람 수십 명이 모두 처음 가는 길이라 의복이니 말안장이니 하는 기구들을 자못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미고 요양에 들어가서는 유람을 하는 사이에 안장을 잃어버린 사람, •등자(籠子)를 잃은 사람 등등 낭패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장복이 갑자기 안장을 머리에 이고 허리에는 등자 한 쌍을 차고 앞에서 시립(侍立)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내가 웃으며,

“어째서 두 눈은 가리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랐더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돌아와 태자하(太子河)에 이르니, 강물이 장마로 크게 불어 배 없이는 건너갈 수 없었다. 강을 따라 아래위를 오르내리며 서성거리고 있자니, 잠시 뒤에 갈대 억대숲에서 콩깍지 만한 고깃배가 빠져나오고, 또 조그만 배 한 척이 물가 모래톱에 숨어 있었다. 장복과 태복을 시켜 일제히 소리를 지르게 하여 배를 불렀다.

한 쌍의 어부는 배 양쪽 끝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앉았다. 버드나무 그늘이 짙게 우거지고 석양의 햇빛은 금빛으로 물들었으며 잠자리는 물에 점을 찍고 제비는 물결을 차건만, 못 들은 척 천 번 만 번 불려도 종시 돌아보지 않는다. 한참을 물가 모래사장에서 있으니 더운 기운은 후끈후끈 찌고 입술은 타들어 가며 머리엔 땀이 나고 속은 끓주려 허기가 저서, 내 평생 놀고 구경하기 좋아하다가 오늘에야 된통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정 진사 등 여럿이서 서로 놀려 대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막혔으며, 아래위 사람들이 끓주리고 피곤하니 통곡하는 것 외에는 별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참고 억누르며 울지 않습니까?”

하고는 서로들 크게 웃는다. 내가

“저 어부가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하지 않으니 그놈의 심보를 알겠네. 비록 저놈이 어부로 은거했던 육노망(陸魯望) 같은 점잖은 사람일지라도 응당 한주먹 날려 거꾸러지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했다. 태복이 더욱 초조해서,

“지금 별판에 태양이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데, 산이나 있는 곳 같으면 벌써 캄캄해졌을 겁니다.”

라고 한다. 태복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일곱 차례나 연행을 하여 모든 일에 능숙했다.

잠시 뒤에 어부가 낚시를 마치고 물고기 다래끼를 거두고 나서 짧은 삿대로 버드나무 그늘로 저어 오니, 대여섯 척의 작은 배들이 고깃배 오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다투어 고깃배보다 먼저 도착해서는 높은 값을 요구하였다.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도록 기다리게 한 뒤에야 비로소 와서 건너게 하니, 그 정상(情狀)이 가히 추악하다.

-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1》

• 태자하 요양 사내를 흘려가는 강.

• 육노망 중국 당나라 때의 학자이며 시인인 '육구몽'을 의미한다. '노망'은 '육구몽'의 자이다.

자료 더하기

× + - < > 《열하일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여정 ↻ + ☰ ≡



박지원은 사신 일행과 함께 1780년 5월 말 한양에서 출발해 8월 1일 연경(지금의 베이징)에 도착했다. 《열하일기》는 압록강을 건너는 6월 24일에서, 열하로부터 다시 연경으로 돌아오는 8월 20일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박지원은 연경에서 한 달가량 머문 뒤 10월 말에 한양으로 돌아왔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가 일행이 한양을 떠나 연경(지금의 베이징)에 도착하는 여정을 밝힌 내용이다. 이 작품이 속한 《열하일기》에 나타나는 전체 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청나라 연경에 도착한 사신 행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작가 일행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 - < > <연행도>에 나타난 사신 행렬의 모습 ↻ + ☰ ≡



이 그림은 18세기 후반 청나라 연경에 도착한 사신 행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우측 제목 부분이 누락되어 <연행도>의 제작 시기와 목적, 화가 등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사신의 글 1폭과 사행 과정을 담은 그림 13폭을 포함한 총 14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행에 참여했던 관리와 문인들이 사행을 기념하고 기록으로 자세히 남기고자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8세기 후반 연경에 도착한 사신 행렬의 모습을 그린 <연행도>

4 봉산 탈춤

■ 작품 선정의 취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극 갈래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극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민속극이자 가면극으로, 일곱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장은 독립적으로 전개되며 양반의 횡포와 위선에 대한 풍자, 남성의 가부장적 횡포에 대한 비판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생동감 있는 언어 사용,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 무대 장치가 따로 없이 공터에서 공연하는 점 등 당시 민속극의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극 갈래의 특성과 여러 가지 문학적 맥락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재 개관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황해도 일대의 주요 읍이나 장터인 황주, 봉산, 서흥, 평산 등지에서 성행하다가 황해도 전 지역으로 퍼진 민속극이자 가면극인 <봉산 탈춤>이다. 그중에서 양반춤 과장은 <봉산 탈춤>의 여섯 번째 과장에 해당한다.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말뚝이가 관객, 악공과 한패가 되어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희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과장에서 말뚝이는 익살과 과장, 열거와 대조, 양반의 어법을 흉내 내며 뜻을 뒤집는 반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양반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러한 재담은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추는 대목(춤 대목)을 경계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재담은 서로 인과 관계가 없이 독립적이어서 순서가 바뀌거나 삭제 되어도 전체 의미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옴니버스식 구성은 <봉산 탈춤>의 다른 과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갈래	민속극, 가면극(탈춤) 대본
성격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비판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조선 후기(18세기 무렵) • 공간: 황해도 봉산
제재	양반과 말뚝이, 취발이의 대화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음. ② 익살, 과장, 언어유희 등을 사용해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함. ③ 재담마다 한데 어울려 추는 춤과 음악으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됨. ④ 서민 계층이 쓰는 비속어와 양반 계층이 쓰는 한자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임.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강하게 나타남. ② 대표적인 민속극으로 서민 의식이 엿보임.

■ 구성 한눈에 보기

발단	인물들의 등장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함.
전개 1	말뚝이의 재담	말뚝이가 양반 소개, 담배 금지 등의 재담을 통해 양반을 조롱함.
전개 2	양반들의 허세 폭로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해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냄.
전환	취발이 잡아들이기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전령으로 취발이를 잡아들이고 심문함.
결말	인물들의 퇴장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퇴장함.

■ 지도 방법

등장인물의 모습,
재담 구조 파악하기작품에 나타난
극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작품 관련 정보 탐색하고
발표 자료 만들어 보기

- ① 형상화된 모습을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반복이나 파자를 이용한 언어유희와 같은 재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현대 연극과는 다른 한국 탈춤 특유의 개방성과 즉흥성, 관객과 등장인물의 수평적 관계에 주목하여 전통극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전통극의 갈래적 특성과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작품을 이해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자료실

● <봉산 탈춤>의 전체 구성과 내용

제1과장	사상좌춤	4명의 상좌가 사방의 신에게 절을 하며 관객의 안녕과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함.
제2과장	팔목중춤	팔목중의 파계와 법고놀이 장면
제3과장	사당춤	사당과 거사들이 흥겹게 노는 장면
제4과장	노장춤	노장이 유혹에 넘어가 파계했다가 취발이에게 욕을 봄.
제5과장	사자춤	• 사자가 파계승을 혼내고 화해의 춤을 춤 • 놀이판 정비
제6과장	양반춤	양반집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내용
제7과장	미알춤	영감, 미알, 첩의 삼각관계와 미알의 죽음

<봉산 탈춤>은 본래 4월 초파일이나 5월 단오에 연희되었던 세시 풍속의 하나였다가 점차 오락 위주의 탈춤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 성격을 지니며 양반, 파계승, 가부장적 남성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가면극의 주제와 주된 풍자 대상이 되는 양반들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봉산 탈춤>에 나타난 풍자 방식과 의도 및 주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가면극의 주제와 사회의식

가면극은 사회 풍자의 희극이다. 가면극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빚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등장인물의 명칭에서부터 각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암시한다. ‘노장·소무·신장수·양반·말뚝이·영감·할미’ 등 신분이나 부류를 나타내는 명칭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은 드물다. 명칭을 통하여 가면극에서 다루는 것이 등장인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나 계층·부류 사이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중략>

양반은 모든 가면극에서 반드시 등장하는데, 양반에 대한 풍자의 방식이 다양하다. 우선 양반의 가면이 이지러져 있거나 병신으로 되어 있어 부정적 인물임을 나타낸다. 특히, 야유(野遊)와 오광대(五廣大)에서는 여러 가지 병신 모습의 양반들이 다수 등장하여 자기들끼리 지체를 다투면서 서로의 약점을 폭로한다. 그리고 영노라는 괴물(용)이 나와 양반을 잡아먹겠다고 덤비는데, 이 과정에서 양반은 더럽고 추악한 대상으로 비유되면서 권위와 체통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여러 가면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효과적인 양반 풍자의 방식은 민중의 항거를 보여 주는 말뚝이라는 전형적 인물에 의하여 진행된다. 양반이 하는 일이라고는 심심풀이로 시를 짓거나, 지체를 자랑하거나, 하인인 말뚝이를 불러 꾸짖는 것밖에 없다. 양반은 위엄 있게 꾸짖고 철저히 억압한다. 말뚝이는 양반에게 걸으려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실질적으로 양반들을 우스꽝스러운 바보로 비하시킨다.

말뚝이는 양반의 어법을 흉내 내며 뜻을 뒤집는 희인(戲引, parody)을 자주 사용하기에 풍자는 더욱 효과적이다. 양반 과장은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비판하고, 말뚝이로 집약되는 민중의 활력을 개방하기 위해서 민중을 억압하는 봉건적 특권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취하고 있다. <중략>

가면극은 당대적 삶의 구조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놀이의 현장 속에서 민중들 자신의 삶을 목격하고 관찰하고 비판함으로써 민중 의식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가면극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해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유교와 초월적인 무관심을 권장하는 불교를 한꺼번에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각성된 여성 의식도 보여 준다. 신분적 특권, 관념적 허위, 남성의 횡포는 봉건 사회의 유물로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부정적 유물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면극의 주제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의식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긍정적인 인물인 ‘취발이·포도부장·말뚝이·할미’를 통하여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는 민중 의식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 운동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 전경욱, <민속극>

읽기 전에

지도 방법

- ① 이 작품이 우리 전통극에 해당하고 조선 후기부터 연희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② 극 갈래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음은 전통 가면극의 하나인 <봉산 탈춤>의 제6과장 '양반춤'이다. 극 갈래의 특징과 이 가면극이 놓인 맥락을 살피며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봉산 탈춤>을 감상하면서 극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본문 연구

발단 | 교과서 96쪽 2~10행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함.**

제6과장 '양반춤'의 주요 등장인물인 양반 삼 형제(생원, 서방, 도령)가 말뚝이의 인도로 등장한다. 인물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신분과 성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 교과서 96쪽 2행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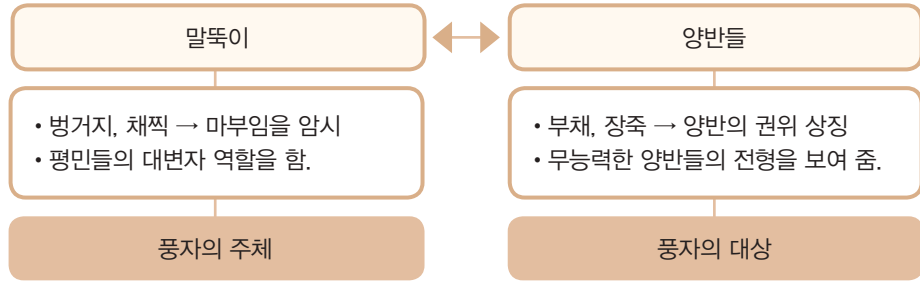
병거지는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모자이다.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것으로 보아 말뚝이가 신분이 낮은 마부(馬夫)임을 알 수 있다. 마부는 양반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많으므로 양반의 내막을 잘 알아, 양반을 풍자하기에 적절한 인물이다.

2 교과서 96쪽 7~10행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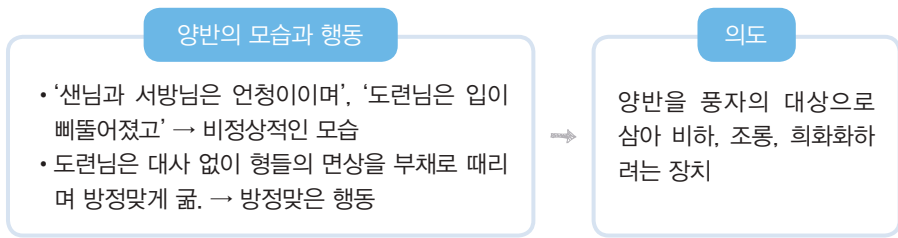
양반 삼 형제의 외양 묘사를 통해 무능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도련님이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때리는 장면은 양반의 근엄한 태도가 허세이며 거짓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양반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핵심 강의

● 등장인물의 신분과 역할



● 양반의 모습과 행동에 담긴 의도



전개 1 | 교과서 97쪽 1행~99쪽 19행 **말뚝이가 양반 소개, 담배 금지 등의 재담을 통해 양반을 조롱함.**

‘양반’의 뜻풀이, 담배 피우기, 새처 정하기 등과 관련한 재담이 펼쳐진다. 양반들은 말뚝이에게 권위를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고, 이에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

3 | 교과서 97쪽 4~5행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 뜻풀이 재담은 극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재담으로,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 풍자하고 있는 대목이다. ‘양반’의 뜻풀이를 엉뚱하게 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민 의식이 담겨 있다.

● 읽기 중 활동 ●

📖 ‘말뚝이’의 말이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활동 안내 말뚝이의 재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아보는 활동이다. 말뚝이의 재담이 언어유희임을 알고, 풍자가 웃음을 통하여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표현 방식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양반의 ‘양’과 ‘반’이 ‘개질량’과 ‘개다리소반’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즉 ‘양반’의 뜻풀이를 하면서 양반을 보잘것없는 것과 연결시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4 교과서 97쪽 10행 (합창) 이 생원이라네.

걸으려는 근엄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말뚝이의 변명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양반들의 언행을 통해 양반들의 우매함을 폭로하고 있다.

5 교과서 97쪽 12~13행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탈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탈춤 공연에서 관객은 방관적인 제3자로 머물지 않고 극의 상황에 참여하고 개입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더 신명나고 친근한 놀이판을 만들 수 있다.

6 교과서 97쪽 13~17행 짚따란 곱방대로 잡숫지 말고~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조선 시대 평민들은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또한 50cm 이상의 길이였던 장죽은 양반들이 사용하던 것이며, 장죽이 서민들에게 넘어오면서 곱방대로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말뚝이는 평민인 관객들에게 양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담뱃대로 담배를 피울 것을 권하고 있다. 담뱃대의 길이가 신분을 나타내는 사회에서 평민들에게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다.

7 교과서 97쪽 22~24행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장단’을 소재로 한 재담으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대목이다. ‘바가지장단’은 바가지를 엮어 놓고 치는 장단이다. 말뚝이는 예법을 갖춘 음악을 버리고, 양반들의 권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훌뚜기(버들피리)를 불고 바가지장단을 치라고 하여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 핵심 강의

● 관객과 악공의 역할

교과서에 나타난 부분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교과서 97쪽 12~17행)
-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교과서 97쪽 22~24행)



관객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이와 한편이 되어 극 중 현실에 참여하고 개입함.
악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판의 배경 음악을 제공함. •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하고 장단을 맞춤. •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이와 한편이 되어 극 중 에 참여함.

● ‘쉬이’와 ‘춤’의 기능

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담의 시작을 알림. •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과 대사의 경계 역할을 함. •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예고함.
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담을 마무리함. •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을 구분함. • 극의 신명과 분위기를 고조시킴.

8 교과서 98쪽 4~6행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술질을 싣술하여 말
뚝이님 내가 타고**

‘노새 원님’은 ‘노 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노새 원님을 탔다는 것은 결국 마부인 말뚝이가 양반인 생원을 타고 다녔다는 말이 된다. 양반인 생원을 노새로 끌어내려 희화화한 것이다.

9 교과서 98쪽 9행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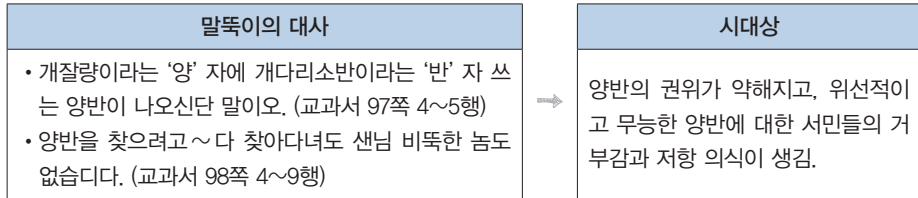
양반을 찾으러 가 볼 만한 데는 다 가 보았지만 양반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을 비꼬고 있다. 앞에서 말뚝이가 자신을 ‘말뚝이님’이라고 한 것과 반대로, 샌님은 ‘놈’으로 낮춰 부른 것에서 이러한 비판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양반의 말에 대꾸하면서 격식과 예의를 갖춰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대신 ‘없습디다’라고 함으로써 격식을 차리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며 나아가 말뚝이의 반항감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Q ‘없습니다’와 ‘없었습니다’의 차이

없습 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와 청자 사이에 별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암시 ·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반항감을 간접 표현
없었 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와 청자 사이에 주고받는 매우 격식적인 표현 · 화자의 청자에 대한 예를 직접 표현

☆ 핵심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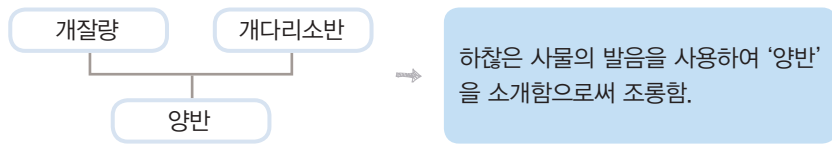
● 말뚝이의 대사에 드러난 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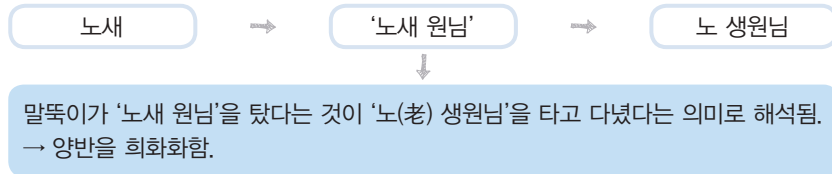
●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

① 언어유희 -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말장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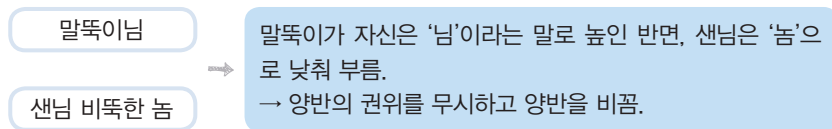
· ‘양반’의 뜻풀이



· 노새를 ‘노새 원님’으로 표현



② 어휘를 의도적으로 바꿔 사용



10 교과서 98쪽 12~14행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새처를 잡아 냈습니다.

말뚝이가 채찍으로 그리면서 묘사한 ‘새치’는 마구간으로, 이를 통해 양반을 짐승과 동일시하면서 양반을 비하하고 있다. 한편 말뚝이가 몸짓과 언어로만 공간을 표현한 것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탈춤의 무대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극 중 말뚝이의 행동과 말로 무대 장치가 설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말뚝춤〉 공연 장면



▶ 무대 한쪽에서 연주 중인 악사들

자료실

● 탈춤의 무대

탈춤의 공연 장소는 많은 관중이 모일 수 있는 빈터면 된다. 관중이 무대를 거의 원형으로 둘러싸고 구경하는데, 무대 장치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연희자들이 가면을 바꾸어 쓰고 옷을 갈아입기 위한 개복청(改服廳)이라는 가건물이 무대 한쪽에 있다. 무대는 관중석과 같은 평면이다. 〈봉산 탈춤〉에서처럼 다락을 만들어 오히려 관중석을 높이기도 한다. 다락을 만드는 이유는 상인들이 다락에서 구경하는 관중들에게 입장료 대신 음식을 팔기 위해서이다.

무대 한쪽에서는 악사[악공]들이 반주를 한다. 〈중략〉

악사는 반주를 하는 외에 극 중 인물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중략〉

탈춤에서는 무대에 나온 배우도 관중과 마찬가지로 “극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한다. 배우가 관중이나 악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므로, 탈춤에는 인물의 등장을 설명하거나 인물의 과거 내력과 심리 등을 알려 주기 위한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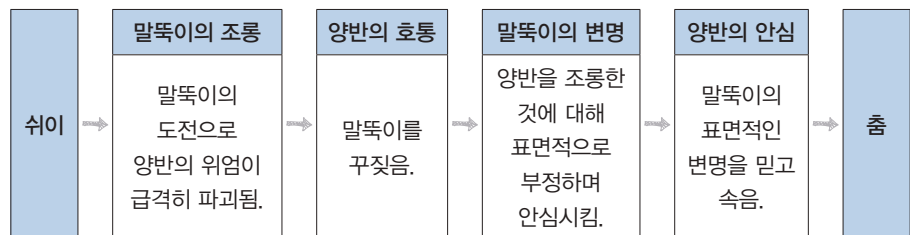
- 장덕순 외, 〈구비 문학 개설〉

11 교과서 99쪽 12~13행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애다 축축 축여 냈습니다.

‘삼털 같은 칼담배’는 거칠게 썬 담배를 말한다. 말뚝이는 앞에서는 양반이 주로 쓰는 한자어 어휘를 사용하여 양반의 호령에 비위를 맞추는 듯하다가 뒤에서는 양반의 위신에 맞지 않는 평민의 비속한 어휘를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 핵심 강의

● 재담의 구조와 풍자성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 구조가 반복됨.
→ 양반의 부정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풍자함.

전개 2 | 교과서 100쪽 1행~101쪽 4행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해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냄.**

양반들의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하여 양반들의 무식함과 허세를 폭로하고 있다.

12 교과서 100쪽 1~2행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한 수씩 불러 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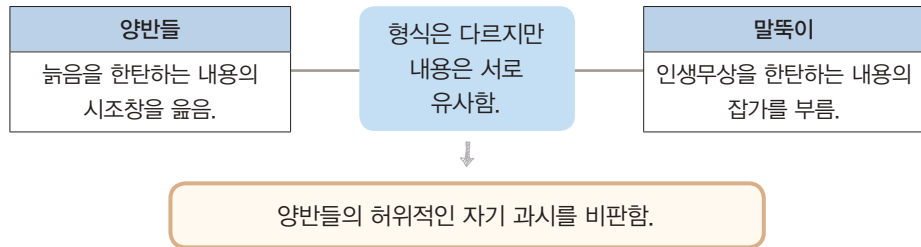
마구간처럼 묘사된 새처방 안에 앉아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양반들은 시조를 읊으면서 자신들의 우월 의식과 신분을 과시하고자 한다.

13 교과서 100쪽 6행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주로 서민들이 즐겨 부르던 잡가 <성주풀이>의 한 구절이다. 양반들이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읊은 시조가 말뚝이가 부른 잡가에 비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양반들 교양의 허구성과 자기 과시를 비판하고 있다.

☆ **핵심 강의**

● **양반의 시조창과 말뚝이의 잡가**



14 교과서 100쪽 12~13행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허니, 황천 풍산(黃川豊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운자로 제시된 ‘산’과 ‘영’을 맞추어 한시를 짓기는 하였지만, 한시의 형태에 맞지 않고 ‘울룩줄룩’이라는 우리말 의태어를 사용하였으며, 황해도 지방의 지명을 단순하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양반들의 전유물인 한시 짓기를 통해 양반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하려 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양반들의 학식과 교양이 허구적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5 교과서 100쪽 19~20행 **“짚세기 앞총은 형겼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멸뭇이라.”**

생원이 지은 한시와 마찬가지로 ‘총’과 ‘뭇’이라는 운자를 맞추기에 급급할 뿐, 한시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반들은 스스로 허위와 허세를 드러내면서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양반들의 한시 짓기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한시 짓기의 내용이 왜 양반의 허위를 드러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양반들의 엉터리 한자 놀이

엉터리 한자 놀이는 주로 학식을 자랑하는 양반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이렇다 할 만한 일거리가 없는 양반들은 흔히 시조를 읊거나 한시를 지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다. <중략>

생원이 읊는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 평산에 동선령이라.”라는 시는 얼핏 보면 대단한 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시와 거리가 멀다. 한자로 된 지명을 단순히 운자를 맞추고 대구를 이루도록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방은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하고 크게 웃는다. 한편 서방은 “짚세기 앞총은 형짚 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멸못이라.” 하고 읊는다. 이 시 또한 생원의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방은 짚세기 앞총과 나막신의 뒤축을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총’자는 몰라도 ‘못’이라는 한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서방은 처음부터 한시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셈이다.

- 김옥동, 《탈춤의 미학》

🔍 파자(破字)

글자를 깨뜨린다는 의미로, 재미를 위해 한자를 부분으로 쪼개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맞추는 수수께끼를 뜻한다.

예 • 약속 날짜로 ‘朝(조)’를 적어 주었다면 언제를 가리킬까?

→ 十月十日 (시월 십일)

• ‘八王女’는 어떤 성을 가리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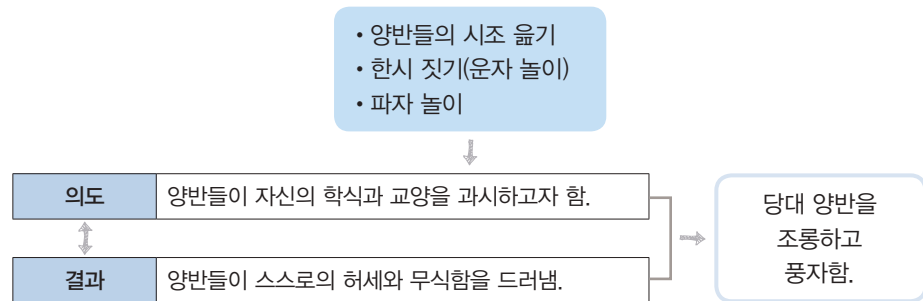
→ 姜(강)

16 교과서 100쪽 21행~101쪽 2행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파자(破字)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놀이이다. 하지만 서방과 생원은 ‘피마자’와 ‘논 임자(논 주인)’와 같이 단순히 ‘자’자로 끝나는 말을 맞추는 수준 낮은 수수께끼를 주고받고 있다. 자신들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한 파자 놀이가 오히려 그들의 무식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핵심 강의

● 양반들의 글자 놀이의 역할



17 교과서 101쪽 3~4행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서 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하여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취발이 놀이판에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한쪽 구석에 있도록 하여 양반들과 다른 극 중 장소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성을 보여 준다.

전환 | 교과서 101쪽 5행~22행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전령으로 취발이를 잡아들이고 심문함.

양반들이 취발이를 혼내 주기 위하여 말뚝이를 시켜 취발이를 잡아 오게 한다.

18 교과서 101쪽 10~11행 **샌님의 전령(傳令)이나~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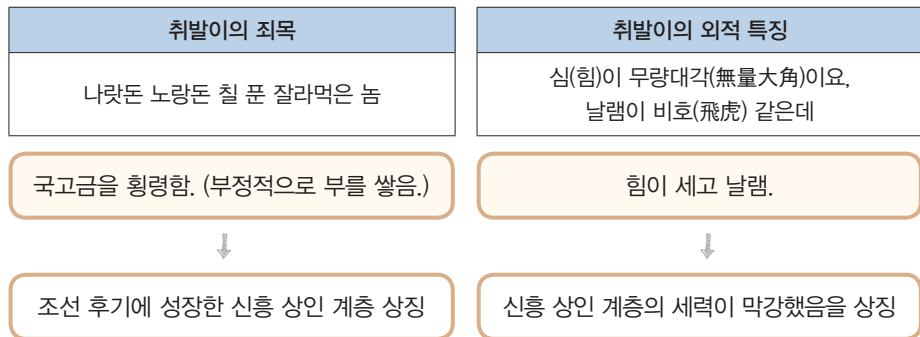
‘전령’은 명령을 전하는 증서로, ‘샌님의 전령’이 있어야 힘세고 날랜 취발이를 잡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당대에 양반의 권위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 준다.

19 교과서 101쪽 22행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밑구녕’은 ‘밑구멍’의 사투리로 항문을 뜻한다. 상스럽고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양반들의 폭력성과 횡포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핵심 강의

● 취발이의 특징과 상징



결말 | 교과서 101쪽 23~28행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퇴장함.

말뚝이가 양반들에게 취발이와 돈으로 타협할 것을 제안하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20 교과서 101쪽 23~24행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말뚝이가 취발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풀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돈에 약한 양반의 심리를 이용하여 양반을 회유하는 말로, 청빈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양반들의 물욕(物慾)과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21 교과서 101쪽 25~26행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그리 알고 계시오.**

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양반의 모습을 암시하여, 양반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있다.

☆ 핵심 강의

● <봉산 탈춤>에 반영된 시대상

<p>선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p> <p>중잇조각에 불과한 양반의 전령으로 날랜 취발이를 잡아오게 함.</p>	<p>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p> <p>취발이가 횡령죄를 저질렀는데도 돈을 받고 풀어 주라고 함.</p>
↓	↓
<p>여전히 신분 질서의 위력이 남아 있으며 양반의 권위가 건재함.</p>	<p>황금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한 부패한 사회상과 양반들의 물욕 풍자</p>

● 등장인물의 상징성

양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결함을 지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됨. • 말뚝이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이를 눈치채지 못함. • 말뚝이에게 권위를 훼손당한 뒤 호통을 친. • 시조 읊기와 한시 짓기, 파자 놀이에서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냄. → 봉건적 신분 제도가 무너져 가던 조선 후기의 부패하고 무능력한 양반
말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반을 업신여겨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양반의 위엄을 무시함. • 양반에 대해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으로 양반에 대한 반항심을 드러냄. → 양반들의 무능력과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민중의 대변자
취발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금을 중간에서 횡령함. • 힘이 세고 날랜. → 당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 계급

● <봉산 탈춤>에 나타난 가면극의 특성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무대 장치가 없음.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장면 전환이 자유로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반들의 부정적인 걸모습과 행동 • '양반'의 뜻풀이 • '노새 원님'이라는 표현

활동 안내

제6과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담 상황과 재담 구조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재담을 통해 인물들의 어떤 측면이 풍자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법

- ① 양반 삼 형제와 말뚝이의 재담이 나타난 부분(전개 1)과 생원과 서방의 재담이 나타난 부분(전개 2)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게 한다.
- ② 재담을 통해 양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풍자되고 있는지 정리하게 한다.
- ③ 양반이 화를 내고(갈등), 화를 푸는(해소) 과정으로 재담의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

1 이 작품에 등장한 인물의 모습, 인물들의 대사와 춤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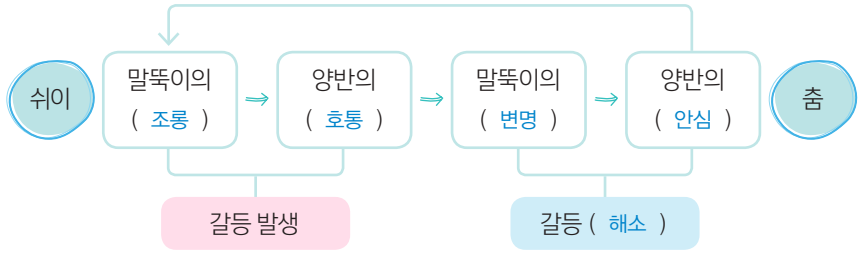
(1) 다음 세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을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p>장면 1</p>  <p>새처를 정하는 장면</p>	<p>권위만 앞세우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모습</p>
<p>장면 2</p>  <p>시조 짓기와 파자 놀이를 하는 장면</p>	<p>허세를 부리지만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모습</p>
<p>장면 3</p>  <p>취발이를 잡아 오는 장면</p>	<p>황포를 부리고 돈을 밝히는 등 부패한 모습</p>

(2) '장면 1'에는 동일한 구조를 지닌 재담이 반복되고 있다. 재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쉬이'라는 대사와 '춤'의 기능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 쉬이: 재담을 시작하면서 춤과 대사의 경계 역할을 하고,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예고한다.
- 춤: 재담을 마무리하면서 장면을 구분하고,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며, 극의 신명과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활동 안내**

제시된 부분을 통해 가면극인 <봉산 탈춤>의 갈래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 작품이 시대를 넘어 현재에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실제 공연 상황에서 말뚝이의 대사와 행동, 관객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고, 현대 연극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한다.
- ② 풍자의 대상이 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을 추측하게 한다.
- ③ 현재에도 유효한 가치가 담긴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안내

이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봉산 탈춤>을 공연하고 즐긴 사람들은 누구인지, 당대 사회상은 어떠했는지, 앞뒤 시대의 극 장르나 동시대의 다른 문학 장르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찾는다.

지도 방법

- ① 인터넷 자료,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찾아보게 한다.
- ② 각각의 맥락에서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짜과 함께 이 작품에 드러난 탈춤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1) 다음 '말뚝이'의 대사에 드러난 탈춤의 특징을 말해 보자.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새처를 잡아 났습니다.

예시 답안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 극 중 장소가 공연 장소와 일치한다.
• 별도의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하지 않다. • 관객과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다.

(2) 다음 글에 언급된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이 작품의 어느 부분에 드러나 있는지 말해 보자.

제17차 유네스코 무형 유산 보호 협약 정부 간 위원회(11월 28일~12월 3일)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유네스코 무형 유산 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 외교부 누리집(2022년 11월 30일)

예시 답안 • 양반의 겉모습을 묘사하는 부분 • '양반'의 이름을 풀이하는 부분
• 관객(서민)들에게 고급 담뱃대를 권하는 부분 • 악공들에게 바가지장단을 쳐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
• 양반다운 양반이 없다고 비판하는 부분

3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이 작품의 관련 정보를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자.

봉산 탈춤

- 작가와 관객을 둘러싼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예시 답안 생략

봉산 탈춤



• 내가 주는 별점: ☆☆☆☆☆

• 한 줄 감상평: _____

QR 코드

〈봉산 탈춤〉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QR 코드

〈봉산 탈춤〉 영상 링크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읽어 읽을 작품

<p>민속극 - 가면극</p> <p>〈하회 별신굿 탈놀이〉</p> <p>작자 미상</p> <p>경상북도 하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 가면극으로, 모두 열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p> <p>양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p> <p>선비: 뭘이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p> <p>양반: 팔대부는 또 뭐야?</p> <p>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p>	<p>민속극 - 인형극</p> <p>〈꼭두각시놀음〉</p> <p>작자 미상</p> <p>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으로 남사당패가 연행했다.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를 다루었는데, 박첨지는 각 장면을 연결해 주는 해설자 역할도 한다.</p> <p>꼭두각시: 영감을 찾으려고 방방곡곡 일개빚 참빚 새새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저 강원도 괴미탄에 들어가서 도토리 밥을 먹었더니 얼굴이 요렇게 되었소.</p>
--	---



작품 감상 연구

1 <봉산 탈춤>은 황해도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으로 ~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전승되다가 1915년경 사리원으로 옮겨 전승되었다. 남한에서는 6·25 전쟁 때 월남한 김진옥과 민천식 등의 고승에 의해 전승되다가, 1967년 6월 16일 중요 무형 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2 오락성과 예술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봉산 탈춤>은 연중행사의 하나인 5월 단옷날에 연희되었고, 나쁜 것을 물리치고 한 해의 풍년을 비는 뜻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아래 자료실 참조)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의 연희 시기와 연희 성격, 연희 지역 등을 소개한 글이다. <봉산 탈춤> 연희와 관련한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봉산 탈춤> 연희의 특징

<봉산 탈춤>은 해서(海西) 일대에 분포된 탈춤 중의 하나이다. 해서 탈춤의 분포를 보면 사리원, 봉산을 중심으로 황주와 서쪽 평야 지대인 안악·재령·신천·장연·송화·은율 등지의 탈춤과 동남쪽 평야 지대인 기린·신원·서흥·평산·신막 등지의 탈춤과 해안 지대로는 해주·강령·웅진·송림·추화·금산·연백 등지의 탈춤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되며, 오일장이 섰던 거의 모든 장터에서 탈꾼들을 초빙하여 1년에 한 번씩은 놀았다고 한다.

이러한 분포로 보아 해서 탈춤은 거의 황해도 전 지역에서 놀던 탈춤으로 그중에서 특히 봉산 탈춤이 대표격이 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일이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한다.

위의 분포 지역들은 농산물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지이며 소도시였고, 팔역지의 소위 남북직로의 주요 읍 및 장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탈춤 공연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황해도 탈춤은 북으로 대동강을 넘지 못한 반면에 남으로 중부 산대놀이 지역과 남북직로로 연결되었다. <중략>

이 놀이는 세시 풍속(歲時風俗)의 하나로 5월 단옷날 밤 모닥불을 피워 놓고 연희되며 새벽까지 계속된다. 5월 단오에 노는 것은 조선조 말 이래의 일이고, 그전에는 4월 초파일에 놀았다고 한다. <중략>

단오는 중부 이북 지방에서 남부 지방의 추석(秋夕)과 맞먹는 명절로서 성대히 지냈는데, 시계적(時季的)으로 이때가 모내기 직전의 망중환(忙中閑)의 시기이며, 단오의 명절놀이로서 봉산·기린·서흥·황주·해주·강령 등지에서 탈춤을 추어 온 것은 벽사(辟邪)와 기년(祈年)의 행사로서, 또 하지(夏至)의 축제로서 그 민속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종교 의례적 행사에서 점차 오락 위주의 민중의 탈춤으로 발전되어 간 것 같다. <중략>

〈봉산 탈춤〉 등 황해도 탈춤은 주로 농민과 장터의 상인들을 상대로 한 놀이였지만, 그러나 역시 원님의 생일이나 그 부임 날과 같은 관아(官衙)의 경사와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놀이로도 특별히 연희되었다고 한다. 다른 군(郡)과의 연희 경연에는 5월 6~8일 간 해주 감영(海州監營)에 나가서 놀았고, 우승하면 감사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고 한다.

〈봉산 탈춤〉은 원래 봉산 구읍(舊邑) 경수대(競秀臺) — 지금의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연희되었으나, 1915년경 군청 등 행정 기관이 사리원(沙里院)으로 옮겨지게 되고, 경의선 철도가 개통하게 되자, 이 놀이도 사리원으로 옮겨져 경암산(景岩山) 아래에서 놀게 되었다. 〈중략〉

사리원으로 옮겨 오기 전에 〈봉산 탈춤〉을 놀았던 경수대는 앞산 밑 강변의 평평한 터로 석벽(石壁) 밑에 겨우 무릎이 닿을 높이의 돌축대를 쌓은 것이며, 그 나지막한 축대 위에서 사방에 횃불을 밝히고 놀았다. 반면 사리원의 가설무대는 경암루(景岩樓) 앞 광장에 28개의 구획을 가진 반원형의 다락을 매고, 그 안마당에 명석을 깔아 탈판을 마련하였다. 이 28개의 다락 중 탈판 오른쪽 제3의 구획이 탈막청[改服廳]으로 쓰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암루 뒤를 탈막으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반원형 2층 관람석 다락의 사용권은 공연 비용을 대는 상인들에게 주어 그들이 단골손님을 초대하거나 음식을 사 먹는 사람에게 한해서 자리를 주게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놀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따로 입장료를 받아서 채우지 않고, 읍민 중 유지와 상인들에게서 엄출했던 것이다.

— 이두현, 《한국의 탈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에 사용되는 다양한 탈의 모습을 제시한 사진이다. 이를 통해 다른 과정에서 사용되는 탈의 모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봉산 탈춤〉에 등장하는 주요 탈

〈봉산 탈춤〉에 사용되는 탈은 종이로 만들었는데 모두 26개가 사용되었다. 아래에 보인 것 외에도 상좌, 목중, 남강노인, 사자탈 등이 더 있다.

■ 제4과장 노장춤



● 노장
생불(生佛)로 불리다가 소무를 만나 파계함.



● 소무
노장, 취발이의 연애 상대가 되는 무당



● 신장수
노장이 소무에게 외상으로 사준 신발값을 받으러 다님.

■ 제7과장 미알춤



● 미알
난리 통에 헤어진 영감을 찾아다니다가 영감과 재회함.



● 영감
헤어졌던 부인 미알을 찾다가 만나게 됨.



● 덜머리집
영감이 미알과 헤어진 사이 만난 다른 여자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에서 탈의 기능과 재료, 모양 등을 설명한 글이다. 탈춤에서 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이 글을 활용하여 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줄 수 있다.

- 판놀음 소리, 굿, 춤 따위의 놀이를 하며 떠돌아다니는 놀이패들이 넓은 마당을 놀이판으로 하여 판을 짜서 노래나 춤, 갖가지 재주를 보여 주는 놀음.
- 이속 고려·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 둔 구실아치.

● <봉산 탈춤>의 탈

탈춤에서 가면은 자신을 숨기고, 탈에 그려진 역할을 대행하며, 판놀음의 신명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

<봉산 탈춤>의 가면은 처음에는 나무로 제작되었으나 <봉산 탈춤> 중흥자인 봉산의 이속(吏屬) 안초목에 의해 종지로 제작되었다. 이후 가면의 주된 재료로 바가지와 종이가 쓰이며, 현재 형겅, 가죽, 흙, 대나무 등도 재료로 함께 쓰이고 있다.

가면의 색은 오방색, 즉 청, 적, 백, 흑, 황색이 주가 된다. 가면에서 사용되는 검붉은 색은 벽사의 의미로 힘을 상징하며, 흰색은 고귀하고 착한 것 그리고 나약함을 의미한다.

가면의 모양은 상좌, 소무, 샌님, 서방님, 영감, 털머리집, 무당, 남강노인, 원숭이, 사자 등과 같이 사실성을 기초로 한 형태도 있지만, 많은 가면들이 비사실적인 귀면형(鬼面型)으로 요철(凹凸) 굴곡이 심하며, 선에 있어서 역시 다른 탈춤의 가면에 비해 대담하고, 활발한 느낌을 준다. 가면의 모양, 선, 색채 등이 지닌 특징은 <봉산 탈춤>의 각 배역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징을 보다 대담하고, 강렬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 이강순·신연경, 《봉산 탈춤》

☆ 핵심 강의

● 가면극에서의 '탈'의 역할

인물의 성격 표현	인물들을 희화화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외양을 과장함.
익명성 보장	탈을 쓰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능하게 함.
극으로의 몰입 유도	현실에서 벗어나 위안과 즐거움을 느끼고 놀이마당을 신명나게 즐길 수 있게 함.

● 가면극(탈춤)과 근현대 연극의 차이

	가면극(탈춤)	근현대 연극
공연 장소	• 극 중 장소 = 공연 장소 • 무대 장치와 소품 불필요	• 극 중 장소 ≠ 공연 장소 • 무대 장치와 소품 필요
관객과의 관계	• 관객이 극 중에 참여 가능 • 능동적 참여자	• 대부분 관객 참여 불가능 • 수동적 참여자
구성	서로 인과 관계가 없는 옴니버스식 구성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관계

자료명	관련 성취 기준/작품(작가)
1 문학의 갈래	성취 기준 [12문학01-02] 문학의 여러 갈래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에 대해 이해한다.
2 실개천이 지줄대는 전설의 바다	제재 ① 향수(정지용)
3 윤희길의 삶과 문학	제재 ② 장마(윤희길)
4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박지원의 생애	제재 ③ 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5 <봉산 탈출> 양반 과장 분석	제재 ④ 봉산 탈출(작자 미상)

1 문학의 갈래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문학의 갈래에 관해 설명한 이론이다. 문학 갈래에 대한 추가 학습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문학의 갈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관습적인 설명이 있지만, 관습적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다면 이론의 심화는 기대할 수 없다. 각 갈래의 명칭 중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굳이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으나, 갈래의 개념은 상식의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

문학의 갈래를 살피면서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갈래가 큰 갈래와 작은 갈래의 두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서정, 서사 같은 것이 큰 갈래이고, 시조, 소설 같은 것이 작은 갈래이다. 이 두 차원을 혼동해 버리면 갈래에 관한 고찰이 처음부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두 차원을 구별할 수 있으면, 이 중에서 먼저 고찰할 것은 큰 갈래이다. 큰 갈래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체계는 작은 갈래의 경우보다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갈래는 모두 어느 큰 갈래에 속하면서 큰 갈래의 성격을 특수화해서 지니기 때문에, 큰 갈래부터 고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하면, 서정·교술·희곡·서사는 각기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서정: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이다.

교술: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자아의 세계화이다.

희곡: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서사: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서정, 희곡, 서사에 관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의는 여기서 규정한 것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서정의 주관적인 성격은 세계의 자아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객 합일적이라 한 희곡은 작품 내적 자아와 작품 내적 세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정과 같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서사와 같다. 서사의 객관적인 성격은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지정한 것이다. 희

곡과 서사의 사건은 바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서사의 특징으로 들었던 서술자의 개입은 여기서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다. 희곡은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므로 무대 상연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지만, 서사는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으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학의 큰 갈래를 2분법 또는 3분법으로 설명한 이론은 모두 틀리지는 않았지만 미흡하고, 미흡한 점은 교술까지 보태서 서정·교술·희곡·서사의 관계를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낼 때 두루 극복된다. <중략>

문학의 갈래 가운데 작은 갈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문학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므로 문학사적인 각도에서 고찰해야 한다. 갈래에 관한 연구는 문학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관념론을 청산할 수 있다.

- 조동일, 《한국 문학의 갈래 이론》

2 실개천이 지출대는 전설의 바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향수>에 대한 해석이 담긴 평전이다. 학습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 마을의 자연과 소박한 촌민들의 인정 어린 농촌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가 어릴 때 보고 들은 고향의 모습을 환기하는 심상(心象)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비록 가난하고 험벗은 농가 마을이나, 차마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과의 떼어 수 없는 관계로, 고향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그곳으로 향하게 됨은 본능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제1연에서는 먼저 그의 고향 마을을 둘러싼 자연적인 공간이 제시된다. 넓은 벌판과 실개천과 얼룩빼기 황소의 이미지들로 그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토속성의 물질화된 이미지들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根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제2연에서는 ‘질화로’와 ‘짚 베개’의 이미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환기한다. 추수를 막 끝낸 황량한 벌판을 불어가는 바람 소리와 질화로가 이어지는 이음새는 극히 자연스럽다. 여름 동안 바깥에 버려졌던 질화로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소중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찬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 한가로운 일손과 함께 질화로를 둘러싼 촌민들의 대화 속에 겨울밤은 깊어가기 마련이다. <중략>

제3연은 유년기의 회상이다. ‘흙에서 자란’ 이 시인의 마음은 언제나 유년기의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차 있다. ‘파아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을 찾으려 풀섶을 헤매다가 돌아온 기억을 통해서 고향을 환기한다. 표적도 없이 하늘을 향해 마구 쏘아 올린 ‘화살’이 떨어진 곳을 찾으려다 다 자란 작자는 유년기의 아름다운 꿈과 신비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중략>

제4연은 온통 전설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농가 마을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어린 누이와 예쁠 것도 없이 사철 밭 벗은 아내가 가을의 따가운 햇살을 받고 벼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시대 가까스로 꾸려 가는 가난한 농촌 생활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중략>

제5연은 단란하게 살아가는 한 농가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석근 별’과 ‘모래성’과 ‘서리까마귀’ 등으로 이어지는 이미지의 전개는 가난한 농촌 생활의 신고(辛苦)로 집약된다. 가난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면서도 괴로움을 잊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마음이 나타난다.

- 김학동, 《근대 인물 한국사》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가 윤희길의 삶과 문학을 개괄한 글이다. <장마>를 이해하는 데 바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심화 확대 활동으로 나아가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윤희길의 문학은 판소리 중고제 소리에 비유되곤 한다. 뚜렷한 주장이나 단정적 진단 없이 밋밋하게 이어지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면 물 아래에서 솟구쳐 오르듯 그 골격을 드러내는 서사의 특성을 강조하는 비유이다. 이는 우리 소설의 편향성 하나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선명한 것, 분명한 것, 순수한 것에 배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편향성이 우리 소설을 지배해 온 중심 요소의 하나임은 두루 아는 대로이다.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의리니 순수한 사랑이니 하는 가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 그것의 실현이나 지키기를 위해 목숨조차 거는 인물들의 삶을 찬양하는 편향성, 우리 소설의 오랜 고질 가운데 하나인 이분법적 단순성을 배태해 낸 궁극의 토대는 바로 이것이다.

윤희길 문학의 한가운데에는 한국 전쟁이 배태한 고통과 슬픔을 증언하는 작품들이 무리를 지어 솟아 있다. 대표작은 중편 <장마>, 장편 <에미>와 <낮>, 연작 소설 《소라 단 가는 길》 등이다. 역사의 폭력성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증언하는 문학이기에 그 작품들은 대체로 이념 대립과 정치적 투쟁의 현실, 전장에서 빚겨나 있다. 윤희길은 이들 작품을 통해 그 고통은 얼마나 크며 그 슬픔은 얼마나 깊은가를 보이기 위해 조금씩 양상이 다른 고통과 슬픔을 거듭 그렸다. 고통과 슬픔의 거대한 연속화기에 떠올랐다.

그 연속화는 전쟁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한편, 그 전쟁의 폭력성에 베이고 짓눌려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정신을 놓친 사람들의 상처투성이 영혼을 꺼안고 위무하는 슬픈 연민의 노래이다. 그 속에 그들이 그 상처로부터 일어나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구가 깃들여 있음은 물론이다. 그 희구의 마음은 <종탑 아래에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 경건한 종소리에 실려 하늘 끝으로 솟아오르고 땅끝까지 퍼져 나간다. 온 땅과 온 하늘을 채우며 울려 퍼지는 저 종소리는 상처 입은 이들의 한이 우는 울음소리이며, 그들의 한을 함께 울며 그것을 따뜻하게 껴안는 슬픈 연민 자비의 소리이며, 공포와 원망과 절망의 철벽에 캄캄하게 갇혀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일어나 새 삶을 열어가도록 이끄는 생명의 소리이다. 윤희길의 전쟁 소설 어디를 들추든 우리는 이 같은 슬픈 연민 자비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1인칭 소년 화자 관찰자 시점이 특징인 이들 전쟁 소설은 다른 한편 성장 소설로 읽을 수도 있다. 윤희길의 전쟁 소설 속 소년들은 느닷없이 덮쳐와 일상이 되고 만 그 악몽과도 같은 현실에 시달리면서 성장한다. 그들은 공부와 놀이 속에서 죽음을,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세계의 폭력성을 알게 되는 한편, 의리며 신의며 순정이며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를 보살피는 이타와 연민의 마음이며 등등 지켜야 될 사람살이의 도리를 깨우치며 성큼성큼 자라나는 것이다.

윤희길은 풍자의 전통을 이은 작가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풍자 소설의 전통은 대단히 영성하다. 채만식을 필두로 이기영, 최일남, 윤희길, 이문구 등의 이름이 올라 간신히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가 금강 유역의 백제 유민들이라는 것인데, 코미디언의 상당수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과 겹치는 현상이다.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이것이 금강을 가운데 놓고 넓게 펼쳐진 전북, 충남 지역 평야 지대의 언어와 관련되어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윤희길의 풍자 소설은 <코파와 비코파>, <완장> 등이 대표적인데, 이를 통해 우리 소설사를 풍성하게 가꾸는 데 일조하였다. 이들 풍자 소설은 부정적인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작품들과 나란히 놓여 윤희길 문학을 이끌어 온 정신의 하나가 비판 정신임을 보여 주는데, 학교 관리자에 의한 시간의 통제를 다룬 <타임 레코드>, 국가에 의한 제식 훈련 동작 형식의 변화를 다룬 <제식 훈련 변천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한편 윤홍길은 노동 소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은 공동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 것이다. 윤홍길은 〈황혼의 집〉, 〈장마〉, 〈양〉 등 1인칭 소년 화자 관찰자 시점의 전쟁 체험 소설들로 분단 소설의 새 장을 열었던 작가인데 70년대 후반 들어 노동 소설로 영역을 넓혔던 것이다. 윤홍길 소설의 중심 언어는 전라북도 익산 방언인데, 이는 두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서울말과 중앙 중심주의에 대한 부정 의식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서울말과 중앙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사투리란 주변부의 언어이니 설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 주변부의 언어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여 중심 언어로 삼음으로써 윤홍길은 중심의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체험의 구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방법론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과거 증언의 문학인 윤홍길 문학에선 특히 두 번째 측면이 중요하다. 언어는 한갓 추상적 기호가 아니며 그 언어가 발화된 그때 그 자리, 발화 대상과 발화 주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체험의 실체를 담아내는 물질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표준어는 사전에 규정된 의미를 따라 체험의 구체성을 잘라 내고 약화시킴으로써 체험을 추상화하는 표준 기호이다. 표준어의 그 같은 속성 때문에 체험의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지난 시절 겪었던 일들, 느낌들의 구체적 실체는 그 경험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언어 곧 사투리를 통해서만 온전히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폭력에 맞서는 윤홍길 문학의 요체는 여성성이다. 자식과 아이들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 남편의 폭력도, 전쟁의 폭력도 포용하고 이겨 내는 〈에미〉의 주인공이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남편의 폭력을 가능케 했고 보장한 봉건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전쟁을 유발한 정치 이데올로기는 다 같이 수직적 위계질서에 근거한 ‘아버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의 폭력을 이겨 내고 감싸 안기조차 하는 어미의 모성과 그것을 뒤받치는 미륵 신앙은 반대로 ‘어미의 사상’에 해당한다. ‘아버의 사상’에 의해 비롯된 역사의 상처를 ‘어미의 사상’이 감싸 안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이후 우리 문학의 나아갈 방향 하나를 배태하고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한편 〈에미〉는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었던 〈낫〉과 함께, 한일 문학 교류의 새로운 장 하나를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에 기록될 만하다. 각자의 작품을 상대방 나라에서 먼저 출간한다는, 일본 작가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와의 약속에 따라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어 한국 독자들에게 앞서 일본 독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두 작가의 이 같은 교류가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두 사람의 문학이 다 같이 민중의 슬픔과 고통을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증언하는 문학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홍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에세이집 《텃석부리 하나님》, 종말론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장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장편 〈완장〉의 속편) 등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글들이다. 윤홍길 문학의 근저에 놓여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은 작가의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홍길의 작품 연보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연작이 눈에 들어온다. 《완장》 연작(〈완장〉, 〈산에는 눈 들에는 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낫》 연작(〈뱀아도 아리랑〉, 〈낫〉),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날개 또는 수갑〉, 〈창백한 중년〉), 《소라단 가는 길》 연작(창작집 《소라단 가는 길》 수록 작품들) 등이 그것들이다. 대상을 복합적으로 살펴 그 시공간적 전체상을 그리고자 하는 작가 의식의 산물이라 할 터이다.

- 정호용, 〈윤홍길〉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세 가지 키워드로 박지원의 생애를 살핀 글이다. 연암 박지원의 세계관과 작품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 백담파: 새로운 학문을 논하고 시를 나누던 친구들

천문학과 수학에 능통했던 홍대용, 《북학의》를 쓰고 상업의 발전을 주장했던 박제가, 엄청난 독서로 박학다식했던 이덕무, 발해의 역사를 되살린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 창검술의 고수로서 박제가, 이덕무와 함께 무예지를 편찬한 무사 백동수 등. 서로 나이와 신분을 초월하여 박지원을 따르며 시와 학문을 나누던 친구들이다. 1770년대 초반 박지원은 서울 종로에 살았는데 이 친구들도 대부분 이웃에 살고 있었다. 마침 그 근처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원각사 10층석탑이 우뚝 솟아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백담파’라고 부른다.

(2) 문체반정 : 박지원은 반성문을 지어 올려라!

“근래에 문풍(文風)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박지원의 죄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한 후로 문체가 이같이 되었거늘, 본래 결자해지(結者解之)인 법이니, 속히 순수하고 바른 글을 한 편 지어 올려 죄를 씻어라.”

이 말은 정조가 박지원에게 전한 말이다. 정조는 당시에 명·청의 문집이 인기를 끌면서 고문(古文)을 익혀야 할 사대부들 사이에 새로운 문체인 소품체(小品體)가 퍼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소품체는 일상의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다루는 한문 단편의 문체로 말하자면 수필의 문체와 같은 것이다. 정조는 문체를 바른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 소품체로 글을 쓰는 사대부들을 과거에서 낙방시키고 벌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를 ‘문체반정(文體反正)’이라 한다. 박지원은 전통적인 문체와 새로운 문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문장의 천재였다. 정조가 직접 《열하일기》를 언급하자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임금이 박지원을 크게 쓰기 위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박지원은 출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3) 이용후생: 생활에 이롭게 쓰이는 것을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

청나라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쉰 살이 다 된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갔는데, 55세에 경상도 안의현 현감이 되었다. 그곳에서 박지원은 자신이 평생 품었던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꿈을 실현해 볼 기회를 얻었다. 그때의 일은 박지원의 둘째 아들 박종채가 지은 《과정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서는 연경에 들어가셨을 때, 농기구와 베틀 등 백성들의 실생활에 이롭고 편리한 기구들은 자세하게 관찰하셨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는 이 기구들을 모방해 제작하여 널리 나라 안에서 쓰일 수 있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탓에 정작 업무를 내지 못하고 계셨다. 마침내 안의현에 부임하셔서 재주와 기술이 있는 공장(工匠)들을 가려 뽑아 손수 가르치며, 양선(풍력을 이용해 겨 따위를 없애는 농기구), 용골차(눈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차), 베틀, 물레방아 등 여러 기구들을 제조하여 시험하셨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 ‘제6과장 양반춤’의 구조를 분석한 글이다. 말뚝이와 양반의 재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주제 의식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봉산 탈춤〉 ‘양반 과장’은 질서 정연하게 분석될 수 있으니,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춤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 모두 대사 없이 일제히 춤추는 대목이다. A, B, C, ……는 대사 부분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기호이다. 1, 2, 3, ……은 대사 부분 내의 대사를 내용에 따라 구분해 나타내는 기호이다. ‘말’은 말뚝이의 대사이고 ‘양’은 샌님을 위시한 양반들이 하는 대사이다. 대사 중에서 아주 긴요한 구절만 인용한다.

춤

A 1 말: 양반 나오신다아!

2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3 양: 이놈 뭐야아!

4 말: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5 양: 이 생원이라네.

춤

B 1 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2 (담뱃대를)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3 양: 뭐야아!

4 말: 담배와 흰화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5 양: 흰화를 금하였다네.

춤

C 1 말: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2 바가지 장단 좀 쳐 주오.

3 양: 이놈, 뭐야!

4 말: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5 양: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중략〉

대사 부분 내의 구조는 거의 일정하다. 어느 경우에도 1은 양반의 위엄을 나타내고, 2는 양반의 위엄을 파괴하는 말뚝이의 항거이고, 3은 말뚝이를 꾸짖는 양반의 호령이고, 4는 말뚝이의 변명이며, 5는 변명을 듣고서 납득해 양반이 안심한다는 것이다. 각 대사 부분은 1에서 5까지 차례대로 다 지니고 있거나, 그중 몇 개가 거듭되기도 하고 몇 개가 빠지기도 하나 순서는 변함이 없다. 1에서 5까지의 것들을 단락이라고 부른다면, 각 단락이 얼마나 긴밀히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한 대사 부분을 이루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1) 양반의 위엄: 양반과 하인 말뚝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 (2) 말뚝이의 항거: 말뚝이의 도전으로 양반의 위엄이 급격히 파괴된다.
- (3) 양반의 호령: 양반은 민감하고 정확한 반응을 보여 무서운 제재를 가해 (2)를 부정하고 (1)을 긍정한다.
- (4) 말뚝이의 변명: 말뚝이는 궁지에 몰려 부득이 표면적으로는 (2)를 부정하고 (1), (3)을 긍정한다. 그러나 내심(內心)으로는 여전히 (2)를 긍정하고 (1), (3)을 부정

하고 있다. 이 반어가 양반에게 어떻게 이해될지는 의문이다.

- (5) 양반의 안심: 양반은 반어를 반어로 이해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말뚝이의 승리가 확정된다. 양반은 (4)의 표면만 알고 기분 좋게 (2)가 부정되고 (1), (3)이 긍정되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일방적인 착각이고 객관적으로는 (1), (3)이 부정되고 (2)가 긍정되었다.

양반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양반의 대사는 말과 의미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양반이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중(二重)의 반어이다. 이중의 반어로 양반은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바보가 된다. 이미 (2)와 (4)에서도 양반은 우스꽝스럽게 비하(卑下)되었지만 (5)에 이르러 비하는 완결된다.

대사 부분이 지니는 이러한 구조는 현실의 싸움을 희극적으로 집약화(集約化)한 것이다. 양반은 신분적 특권으로 평민을 억누르나 평민은 억압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양반의 특권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피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평민적 항거의 실제적인 성격이다. 양반의 패배는 그의 위엄에 대한 일반적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촉진되며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봉산 탈춤〉 ‘양반 과장’은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이러한 현실의 싸움을 반영하고 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희극적 집약화를 통한 반영이다.

집약화란 갈등의 창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오래 걸려서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싸움을 그 본질적인 속성만 따서 선명하고 급격하게 나타내었다. 현실에서는 단순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도 있으나, 대립을 넘어서 타협이나 공존을 허용하지 않은 싸움, 즉 갈등으로 나타낸 것이다. 갈등의 창조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사(模寫)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희극적 반영이란 희극적 갈등의 창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희극적 갈등은 다른 어느 갈등보다도 극단적이며 예기치 않게 급격하다. (2)는 (1)을 예기치 않던 방향에서 긴 말이 없이 극단적으로 또 급격하게 부정한다. (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도 이와 같다. 그리고 희극적 갈등은 정상적이라고 믿어 오던 허망한 이상을 파괴하는 구실을 한다. (1)과 (3)에서 보인 양반의 위엄이라는 이상이 (5)에 이르러서 완전히 파괴된다. 예기치 않던 반어는 파괴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가면극이 희극적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희극적 갈등에 입각해서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가면극은 평민적 항거를 특히 성공적으로 나타내고 또한 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동일, 《한국 가면극의 미학》

정리와 점검

정리하기

활동 안내

각 문항의 빈칸을 채우며 단원 학습 내용을 떠올리고, 표에서 찾아 지워 나가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앞의 마당'과 각 제재에서 학습한 주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 논의하며 정답을 채워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각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아래 표에서 찾아 지워 보자. 다섯 문항의 답을 모두 지우고 남은 여덟 글자를 조합하여 친구를 응원하는 문구를 만들어 보자.

예시 답안

년	물	야	최	서
뚝	리	구	사	선
이	각	술	령	고
말	그	마	음	이
생	이	의	교	음

- 응원하는 문구: 년 최고의 선물이야.

- 1 문학의 기본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으)로 나눌 수 있다.
- 2 <향수>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를 노래한 시이다.
- 3 <장마>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죽은 삼촌의 넋'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은 (구렁이)(이다).
- 4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작가는 갓난아이의 울음을 "(마음)과/와 (생각)이/가 확 트이게 되어 나오는 참소리"라고 하였다.
- 5 <봉산 탈춤>에서 서민 계층을 상징하면서 양반을 조롱하는 인물은 (말뚝이)(이다).



인상 깊게 읽은 구절

예시 답안 생략

.....

.....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예시 답안 생략

.....

점검하기

활동 안내

학습자 스스로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점검 내용에 따라 이후의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자신의 학습 이해도를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라고 판단한 학습자의 경우, '앞의 마당'과 함께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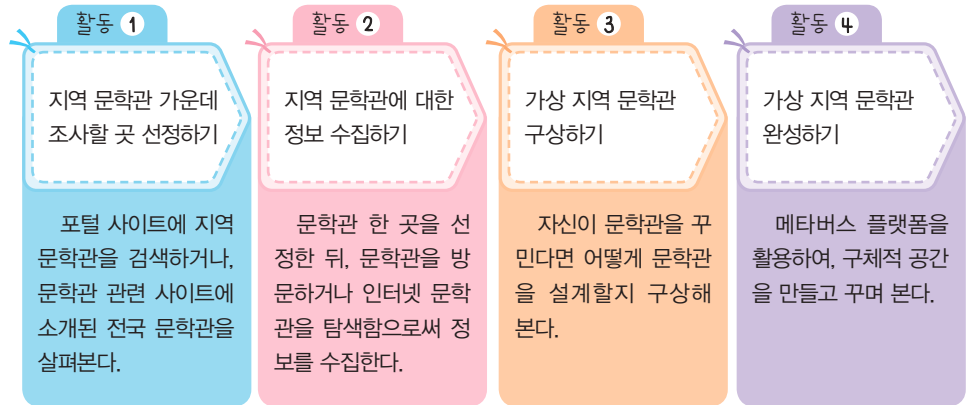
• 문학의 여러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 😐 😞 → 교과서 66-103쪽

• 문학의 주요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하였다. 😊 😐 😞 → 교과서 66-103쪽

◆ 활동 취지와 지도 중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 지역 문학관을 구성해 보는 활동이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전에는 직접 지역 문학관 탐방하거나 조사하는 활동을 했다면, 매체의 변화에 맞추어 가상의 공간에 지역 문학관을 건립하는 활동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가상 공간에 지역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 있게 문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 안내 한눈에 보기



◆ 수업 운영 · 지도 안내

- ① 지역 문학관을 구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므로, 문학관에서 주요하게 전시하고 있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 ② 작가의 문학관인 경우 기획 전시나 작가 연보 만들기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 ③ 지역 문학관을 조사할 때, 시설 안내 부분을 참고하여 공간을 구상하도록 지도한다.
- ④ 가상 공간 문학관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제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한다.

활동 1

지역 문학관 가운데
조사할 곳 선정하기

활동 안내

문학관 정보를 조사하여 가상 공간으로 꾸밀 문학관을 선정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한국 문학관 협회(www.munhakwan.com)에 전국의 문학관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인터넷 문학관이 있는 곳을 찾아본 뒤, 가상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 문학관을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활동 2

지역 문학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활동 안내

지역 문학관에 대한 정보를 답사나 검색을 통해 수집하는 활동이다. 대표작과 전시실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지도 방법

지역 문학관이 가까운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있는 문학관을 찾아 지역 문학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1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학관을 조사해 보자.

(1) 인터넷에서 문학관 정보를 조사하여 방문하고 싶은 문학관들을 적어 보자.

예시 답안

- 예 서울: 윤동주 문학관
- 충북: 정지용 문학관



(2) (1)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조사하고 싶은 문학관을 선정해 보자.

예시 답안

우리 모둠이 정한 문학관

정지용 문학관

그곳으로 정한 까닭

정지용 시인의 생가 옆에 위치해 작품들에 나오는 시인의 고향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모둠별로 해당 문학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문학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 등을 하면서 다음 정보들을 수집해 보자.

예시 답안

- 문학관을 대표하는 작가는 누구인가? 정지용
- 작가(들)의 대표 작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향수>
- 몇 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가? 4개
- 각 전시실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가?
 - ① 지용의 삶과 문학: 연대기와 주제별로 나뉘어 있으며,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지용 문학 지도: 한국 현대시의 흐름과 정지용의 시 문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시·산문집 초간본 전시: 정지용 시인의 시·산문집 원본을 전시하고 육필 원고 및 초간본의 내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문학 체험 공간: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활동 3

가상 지역 문학관
구상하기

활동 안내

가상 공간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지역 문학관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 내용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 ① 포털 사이트에서 가상 공간 이미지를 검색하여 참고하도록 지도한다.
- ② 문학관의 공간, 위치, 구성 비율, 목적 등과 각 전시실을 어떻게 꾸밀지도 적어 보게 한다.
- ③ 메타버스로 구현하기 어렵다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다양한 3차원 가상 공간(메타버스) 이미지를 참고하여 지역 문학관을 메타버스로 어떻게 구현할지 구상해 보자.

(1) 인터넷으로 전시 관련 3차원 가상 공간 이미지를 검색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2) 3차원 가상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간을 나누어 보자.

예시 답안

공간 명칭	위치	구성 비율	목적
복도	중앙	20%	각 전시실 연결, 간이 전시 공간 역할
안내 데스크	입구	10%	문학관의 동선 및 전시, 체험 내용 안내
전시실	문학관 동쪽	30%	작가의 생애와 주요 작품 및 관련된 소장 자료 전시
체험관	문학관 서쪽	40%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감각적 문학 체험, 활동, 문학 교류 활동

활동 4

가상 지역 문학관
완성하기

활동 안내

다양한 공간을 설정하고 공간에 들어갈 요소를 설계한 후, 가상 공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게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에 도움을 주는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가상 공간을 자세하게 설계해 보자.

(1)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가상 공간의 이미지를 설계해 보자.

예시 답안

공간 명칭	공간에 들어갈 요소	담당자
복도	이동 방향 안내 표시, 작가의 유년 시절 자료 등 간이 전시 요소	모둠원 1
안내 데스크	문학관 구성 단면도, 작가 밀랍 인형 등	모둠원 2
전시실	작가 연보, 영상 전시 스크린, 주요 작품의 초간본 등	모둠원 3
체험관	문학 교실, 영상실, 시 낭송 체험실	모둠원 4

(2) 모둠원들이 설계한 가상 공간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가상 지역 문학관을 완성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단원 마무리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단원에서 <단원 길잡이>에
나온 질문을 생각하며
문학의 구성 원리, 문학의 여러 가지 갈
래와 맥락에 관련된
..... 내용을 학습했어.

활동 안내

단원 길잡이에 제시된 핵심 질문에 답하면서 학습 내용을 되돌아보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 문학의 내용 및 형식과 관련된 문학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한다.
- 문학 작품을 공감적 · 비판적 · 창의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학의 기본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를 이해해야 한다.
- 문학의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 · 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